대한 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http://www.kira.or.kr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건축사 h n C 표지사진 _ 세한가

건축사 2005 / 06

Korean Architects

K

0

Contents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5 06 434호

칼럼	건축에서 변화관리와 새로운 도전	이종정	14
건축만평		유원재	17
시론	마스터로서의건축사	박경립	18
회원작품	세한기(歲寒家)	민규암	20
	마리아의작은자매화수녀원	김준회 +박명규	28
	신사동제이타워	정영균	34
1	호텔갤러라	권연하 · 민영만	42
	은석치과 리모델링	이순미	48
계획작품	남해실내체육관	최삼영	54
작품노트	부천대학교 밀레니엄센터, 체육관	최두길	56
현상설계			62
기고	현상설계 유감	김낙동	74
الطنتي	변화의 중심에 서다	김향희	78
연구	리모델링 측면에서 본장수명 주택의 설계와 방향	김수암	82
연재	하우징의 기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 03	박진호	88
건축마당	협회소식		99
	건축계소식		106
	서 평		113
	법 령		114
	통 계		122
	해외잡지동향····		124

편 찬 위 원 장양순, 손기찬, 유원재, 박호견, 이관직, 이종훈, 신호근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 편 번 호 137-857

전 화 대표(02)581-5711~4

팩 시 밀 리 (02)586-8823

인 터 넷 http://www.kira.or.kr 인 쇄 (주)영림인쇄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월간 '건축사'는 한국건병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제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Arch itects

Korean

Vol. 434 June 2005

74

Column

Managing Changes and Facing New Challenges in Architecture

	Loc doing jurig	
Cartoon	Yoo Won-Jai	17
Current view		
Architect as Master	Park Kyung-rip	18
Works	Maria Company of the State of t	
Sehanga	Min Q-M	20
Little Company of Mary	Kim Jun-hei & Park Myeong-kyu	28
J-Tower Office Bulding	Jeong Young-gyoon	34
Hotel Gallery	Kwon Youn-ha & Min Young-ma	an 42
Eun Suk Dental Remodeling	Lee Soon-me	(48
Process works	4.316	
Namhae Gymnasium	Choi Sam-voung	54

Choi Du-gil 62

Kim Nak-dong Kim Hyang-hee

Directions and Design for Long life Housing in view of Remodeling

Housing Flexibility
Architects' Plaza

Kira News

Publisher Assistant Editor

Lee Chul-ho
Chang Yang-soon, Sohn Kee-chan, Yoo Won-jai, Park Ho-gyun,
Lee Kwan-jick, Lee Jong-houn, Shin Ho-guen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137-857

Publishing Office Address Zip Code Tel Fax (02)581-5711~ (02)586-8823

건축에서 변화관리와 새로운 도전

Managing Changes and Facing New Challenges in Architecture

사회 변화와 신건축 환경

지난날 산업 사회는 산업화의 논리로 지칭되는 내재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특히 인구 변천으로부터 근대적 가치관의 확산에 이르는 근대 산업사회의 변화 과정은 공업화, 도시화, 관료제화이었으며, 생활양식, 정주양식, 조직화 양식과 직결된 그 러한 동향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정보화, 세계화, 분산화라는 새로운 경향으로 외연되고 있다고 본다.

오늘날의 거시적 흐름을 긍정적으로 사회 구조적 유연화와 사회 가치의 다원화라는 질적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시대적 전환을 재촉하고 그 결과 현대 사회는 특성 가치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부분 간 경계가 완화되는 다원적 유연화라는 개방체계를 지향한다. 그런데 물질적 생활수준은 물론이요, 상징적 문화가치가 더불어 중시되는 현대적 생활 체계는 객관적, 주관적 측면을 동시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요컨대 과학지식의 대중화와 문화 개념의 범속화라는 이원적 과정에 의해 상호 배타적 대립적 관계로 돌입함으로써 과학과 문화의 영역 파괴가 촉진되어 기술 문화라는 거대한 복합적 긍정체가 출현하고 있다.

이렇듯 기술 영역과 문화 영역간의 경계를 완화시키는 기술의 문화, 문화의 기술화가 전개됨으로써 기술로서의 문화 혹은 문화로서의 기술을 주장하는 기술문화론이 설득력을 배가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건축은 창조와 재현이라는 구상적 활동을 내포한 창의적 산업 활동의 전형인 까닭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기술문화적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과 더불어 업역 경계의 소멸과 부분의 확대라는 기술문화의 흐름에 따라 건축사의 업역도 다양한 학문영역으로 분화 되어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각 전공으로 나름대로 학문과 기술이 발전되어 독자적 사업 영역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장된 업역으로만 생각하고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기보다 이렇게 된 원인 분석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

변형성, 선택성이 고조되어가는 미래사회에서 독창적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유와 감정, 말하자면 심미적 성찰성이 중시되어 갈 것을 예측하여 오히려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하고 끌려가기 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주도해 가는 것이 현명한 대응책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은 어떤 건축물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다는 생각과 무한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확대된 업역에 대한 담론보다는 실행할 때라고 생각한다.

변화 속에서의 대응

이제까지 건축설계 업무 내용은 창작 예술성과 개성을 중시하기보다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공급형의 대량수주 위주의 업무를 소화해

내므로 사업의 방법이라기보다 단순 운영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의 부작용으로 설계의 저가수주와 고급인력을 양성 하지 못하였다. 그래도 사무소의 운영이 유지 가능하였던 것은 IMF 이전까지 건설 산업이 전체 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년 급증하는 업무량에 각 사무소는 수입의 안정속에서 설계 인력의 수급이 잘 안될 정도로 양적으로 매년 팽창하는 풍요로움의 무풍지일 때도 있었으나 예고 없이 불어 닥친 IMF 체제하에서도 시장변화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 조정을 하기보다는 우선 위기 대응을 위한 생존 대책으로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별다른 대안이 없이 막연히 지나간 좋은 날이 다시 오기를 바랄뿐이었다.

통계적으로 2002년 허가 면적은 IMF 이전으로 회복되었으나 꾸준히 늘어온 회원과 만성적 저가 수주의 악순환 속에 21세기 초입의 건축 환경은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이 새로운 요구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의 국토 공간 구조의 변화에 따른 건설투자 환경도 소유 중심에서 투자 중심,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미디어, 인터넷 발달로 폐쇄적 시장에서 정보 공유가 가능하여지는 등 금융의 역할이 커지므로 기업형 도시개발과 개발 시행사의 역할이 건축설계 수주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도시의 재생 방식이 선 계획, 후 개발에 따라 소규모 부분계약 업무에서 신도시 대규모 지구단위 이행 발주 방식으로 시행되므로 철저히 경쟁 원리에 따라 사무소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나타나고, 대부분의 사무실은 운영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업무량 감소로 운영 방식에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고도의 기술정보 등을 깊이 이해하고 책임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업무 영역별 전문화, 업무 내용별 전문화, 건물 용도별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개별전문화 또는 통합 방식으로 건축 산업 변화에 대응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사의 역량도 중요한 핵심사항으로 모방과 답습에서 탈피, 고정 관념을 뛰어 넘는 창조력과 독창력을 요구하고 신지식, 신감각, 전문가 정신의 강한 추진력, 분석력을 갖춘 리더십과 조정능력 등 다양한 문화를 이행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어 설계 디자인의 감각적 경쟁력 등이 갖추어져야 하거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해졌다. 건축사와 설계조직의 경쟁력은 구성인원의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 그리고 조직의 기술 축적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계 진행의 합리적, 능률적 운영뿐만 아니라 업무량을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또 다른 건축에서 살 길

사회변화와 환경에 강요된 수동적인 대응만으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이해되었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자기 성찰과 혁신을 통해 내외부적인 건축 여건과 환경을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

는 것과 함께 국내 건축시장의 변화 환경과 선호 그리고 기술 수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업무용뿐만 아니라 주거부분에서도 최고층 건축물에 대한 선호와 높이 경쟁이 심화되고, 교토기후 변화 협약에 따른 환경친화적, 방재적 건축물의 요구도 활발하여 새로운 정보산업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와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술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수요를 촉발했던 난개발이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도시계획의 기본목표가 건축법 등 관련제도 측면에서도 많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건축법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던 용도지역 행위제한 내용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차장법 등으로 세분되었고, 재건축과 관련된 개별적인 건축도 별도의 법적절차와 규정을 따르도록 되는 등 과거 건축법만으로 운영될수 있었던 많은 건축행위가 별도의 좀 더 까다로운 법적용 내에서 이해되고 운영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건축 내외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건축에서의 역할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진정한 살아남기를 하기 위해서도 자체의 개발적인 자기 혁신과 새로운 변화 즉 고객의 기대와 선호가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과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와 시장 변화에 대하여 이제는, 보편적인 전문가로 유지하여 왔던 과거에서 통합연계 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수평적 통합유도로 업무의 규모를 중 · 대형화 할 수 있고 협력 설계 구축으로 수직 계열화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도 생각해 보자.

이에 대한 준비와 역할을 협회가 하여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 업역의 확대에 관심을 무리하게 확대하기 보다는 건축사의 용역 범위에서 이미 허용된 설계, 감리 이외에도 리모델링, 인테리어,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 업무, Fast Track(설계방식업무), 분양관련 업무, 건축물의 사후관리, 건설사업관리(CM), 지구단위계획, 건물조사감정, 종합계획도, 건축공사사업, 타당성 분석업무,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업무만이라도 업역으로 확실히 하고, 건축사의 위상을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공공 건축사의 업무적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하여 민간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협회 조직 내에 각 전문설계협의회, 혹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잃어가는 업역의 회복과 설계 이외의 또 다른 건축 업무로써 전문화 능력이 발휘될 때 건축사의 자긍심과 안정적인 직업으로써 보다 많은 애착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며, 이렇게 하므로 협회의 존재와 안정적 운영도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협회나 회원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圖

016 Korean Architects June 2005

마스터로서의 건축사

Architect as Master

온 나라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세기 초에는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세기는 남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소회가 아닌 듯 하다.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세계화'와 '지속가능성' 등은 이미 누구나가 다 이야기하는 흔한 용어가 되어 버렸지만 대부분 이 단어가 일으키는 파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재난이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가 함께 하여야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이 같은 재난에는 이미 국경은 의미 없는 구분일 뿐이다. 봄이면 찾아오는 황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 간의 문제로 피해를 입는 쪽이 더욱 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기상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온난화현상은 이미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몇 십 년만이었던 더위와 홍수, 산불 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대형의 지진과 태풍의 피해로 오랫동안이어진 생활의 터전을 잃고 있다. 산업혁명으로 시작되어 20세기에 절정을 이룬 산업사회로의 진입이 가져다준 어두운 면인 '인간 중심의 성장'을 지구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는 인류가 오랜 시간을 거치며 적응하여 자리 잡은 귀중한 행성으로 우주를 탐험하러 떠난 우주선 같은 유일한 장소이다. 우주선 안에서의 모든 행위는 우주선의 용량만큼만 허용된다. 이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자연은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다. 급격한 기후의 변화와 맞물린 자연 재해는 지난 세기까지 누렸던 인간의 번영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곳에서 지진이 빈발하고 홍수와 산불이 계속되는 지역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재난을 당한 다른 국가를 돕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미 지구촌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 간의 시장을 열고 서로 협조하고 살자는 것은 당연한 듯 보인다. 문제는 국가 간의 격차가 너무 크고 더 걱정인

것은 국가 안에서의 격차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열려진 국가간의 협상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고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할 만한 교육이나 대처 방안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었다. '쌀 개방 저지'를 위하여 열렸던 협상에서 '서비스업 개방'이 자연스럽게 들러리를 섰으며, 그 속에 '건축 설계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고 대부분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상당 기간을 허송세월을 보냈었다.

요즈음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 밥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일이 되었고 칠레산 과일이 넘쳐나고 있다. 산지를 표시한다고 하나 우리 농산물은 너무 비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으며, 단지 멀리서 오는 농산물들이 과도한 방부재를 쓰지 않았기를 바랄뿐 이다. 이는 우리의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그에 따라 농촌이 거의 빈사상태로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늦게나마 국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자체도 이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온갖 계획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프로젝트 대부분은 지자체 내의 주민들과는 동떨어진 채 x파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노출되면 땅 값이 올라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그럴듯해 보인다. 농촌은 더 이상 농사를 짓는 공간이 아니며 개발을 위한 장소일 뿐이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지자체는 온갖 아이디어를 다 받아들인다. 문제는 이런 계획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며 각 지자체마다 거의 유사한 작업을 하여 서로 공멸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자금은 거의 민자유치를 꿈꾸며 장미 및 계획안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중요한 프로젝트는 전문인의 참여와 검증 없이 진행되고 참여하는 전문인도 매우 제한적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인이 사후에 뒤처리를 하는 식의 참여이다. 그리고 큰 도시의 프로젝트는 외국인에게, 지역의 것도 외지인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세계화는 거스르기 힘든 파고이고 이를 넘기 위하여 시장을 개방하며 경쟁력을 키워야하는 처지에 외지인의 참여는 환영하여야 할 일일지도 모른다. 보다 좋은 대안 마련을 위하여 그리고 정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라고 하지만, 현지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이유는 그리 간단한 것 같지 않다. 능력 있는 건축사나 도시계획가가 참가하여 모범을 보이고 실천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좋으나 그저 하나의 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며 계획에 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이나 주민들의 현실은 거의 반영되지 못하며, 지역 토호들을 배불리는 경우로 끝나기도 한다.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만들려는 시도는 매우 뜻있는 것이지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서두르는 계획들은 그냥 시도로 끝날 경우가 대부분이 될듯하여 걱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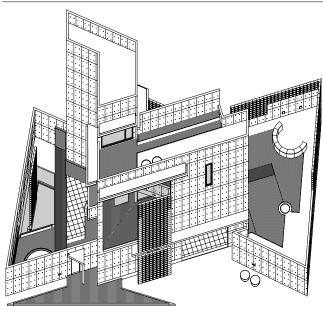
이제 진정으로 자연을 고마워하며, 그나마 남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삶과 번영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자체 장들도 검증되지 않은 공약 남발과 선거를 의식한 주민들 선동을 그쳐야한다. 개발 위주의 상업주의로부터 벗어나 진지하게 삶의 터전을 보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한다. 들러리를 서는 각종 위원회도 전문가 위주의 위원회로 거듭 나야 하며 지역의 건축사들도 개발업자나 부동산업자의 일방적인 주도에 경종을 울리며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개개의 건물 계획과 설계에 머무르는 소극적 역할에서 도시 계획과 각종 단지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래의 마스터로서의 건축사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도시의 아파트를 그냥 복제하여 지역의 삶을 흔들고 경관을 해치는 건설회사 위주의 건축설계 봉사에서 떠나지역의 현실과 미래 비전을 담는 새로운 타입의 건축설계를 제공하는 건축사로 거듭나야한다. 건설회사의 이름이 공동주거의 값과 질을 결정하는 시대를 넘어 건축사가 삶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체성이 있는 설계를 제안하였으면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제 변화하는 농촌을 주시하여야 한다. 이곳마저도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다. 더 이상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농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간 건축사 대부분이 도시 건축을 위하여 힘 써왔고 농촌은 특수한 경우로 치부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농촌과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을 위한 지역 건축 조성에우리 건축사들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개방화 시대일수록 지역의 정체성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圖

세한가(歲寒家)

Sehanga

● 엑소노메트릭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기평군 지역 지구 자연 녹지 지역 용 도 단독주택 대지 먼적 495.00m 건축 먼적 101.33m 연 면 적 418.46m 건 폐 율 19.47% 용 적 률 59.92%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내부마감 바닥 - 우드플로어링, 대리석 깔기벽, 천장 - 석고보드 2겹위 지정락카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구조설계 조정민 설비설계 한일MEC 전기설계 한일MEC

시 공 사 한웅건설 설계기간 2001.5~2001.10 공사기간 2003.3~2004.3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Location Gapyeong-gun Gyeonggi-do, Korea

 Site area
 495,00m²

 Bldg, area
 101,33m²

 Gross floor area
 418,46m²

 Bldg, coverage ratio
 19,47%

 Gross floor ratio
 59,92%

 Structure
 R,C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four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2001.5 \sim 2001.10$ Construction period $2003.3 \sim 20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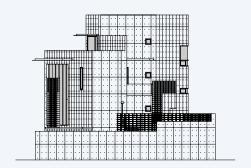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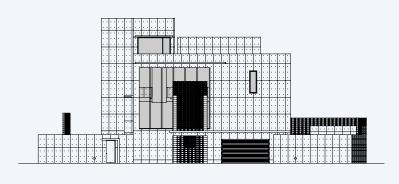


지난해 앙코르와트 유적을 보면서 모두들
그 압도적인 규모와 조각같은 아름다움에 빠
저들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지만 필자
는 점점 더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앙코르
와트 유적군은 약 천년전 수백년의 세월을
두고 건축된 사원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런데 사원들 모두 하나같이 좌우대칭적인 구조를 갖는 엄격한 기하학적 질서속에 존재하고 있었고 비대칭적인 사원을 나는 단 한개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모든 건물들은 완벽하게 신을 위해서 건축되어 과거 크메르인들에게이 신의 집들을 불균형하게 짓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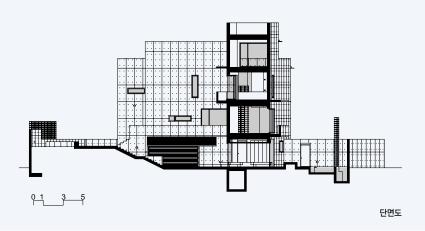
신격화된 인간인 왕에게 권위를 부여했던 조선시대 경복궁은 이 앙코르와트의 시원과 비슷하다. 엄격한 좌우대칭의 구조를 갖는 경 복궁에는 중국의 자금성처럼 기하학적인 질 서가 구축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조선 조의 역사를 들여다 보면 경복궁은 실질적으 로는 건축초기에 왕권의 상징으로 잠시 사용 되었을뿐 대다수의 왕들이 자연의 산세를 따 라서 편안하게 배치된 창덕궁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왕인 그들도 인간인지라 창덕궁 의 후원인 비원같은 오밀 조밀하면도 인간적 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공간에 더 친근감을 느꼈을 것이다. 창덕궁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인간 친화적인 배치를 갖는 거의 몇 안 되는 권위주의 건축인데 시실 우리는 대대로 이런 비권위적인 건축과 문화를 만드는 독특 하고 역동적인 힘을 갖고 있었다. 건축에서 자유분방한 배치의 묘미를 우리 선조들은 잘 터득하고 있었고 이것은 천년전 캄보디아 문 명이 그 규모나 정교성 면에서는 언뜻 우리 의 것들보다 훨씬 우수한 듯 하지만 전혀 갖 고 있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캄보디아의 이 신의 도시는 인간들에 의해 버림받았고 밀림속에 묻혀 있다가 수세기가



동측면도



남측면도







024 Korean Architects June 2005

지난후에야 세상에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다.

세한가는 그동안 줄곧 관심있게 바라보아 온 한국 건축의 역동성이 반영된 주택이다. 여기서 대칭적인 기하학적 질서와 권위주의 같은 것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건물은 많은 날카로운 예각으로 구성되어졌음에도 인간적 인 부드러운 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형태가 아니라 사용자의 동선과 시각을 끊임없이 이 끌고 자극하면서 전체 건물을 통해서 단조로 움이 아닌 풍성한 경험을 방문자에게 주기 때 문이다.

세한가는 청평댐이 바라보이는 강둔덕에 있는 삼십여호로 구성된 마을속에 자리잡고 있다. 백오십평의 대자는 강과 마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쪽으로는 아무런 장 애물없이 넓은 시아를 확보할 수 있고 후면으로는 낮은 주택들만이 이어진다. 훌륭한 주변 경관에도 불구하고 교외주택으로서는 좁은 대지와 20%에 불과한 법정건폐율은 설계에 불리한 조건이었다. 결국 이런 여러 조건들은 세한가를 독특한 사층의 주택으로 만들게 유도했다.

건폐율의 제한으로 인해서 한층은 기껏해 야 삼십평 안팎이지만 각층은 매우 다른 느낌의 공간을 만들었다. 일층은 지면과 접하는 곳으로서 다른 집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현관을 갖는다. 서양의 주거공간개념에서는 항상한 공간은 하나의 기능과 대응된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은 방에 밥상을 놓으면 식당이 되기도 하고 그저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면 기족실이 되고 이부자리를 깔

고 누우면 침실이 되기도 한다. 이집의 현관 은 양측의 담장으로 둘러쌓인 정원을 투명한 유리너머로 모두 조망하면서 누워 책을 읽거 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넓다. 그리 고 현관은 양측정원의 중심에 있으면서 단지 정원과 유리된 주택의 일부라기 보다는 정원 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결국 쓸모없이 신발을 벗는 장소로서만의 현관이 아니라 생활공간 으로서의 현관이난 현관이 이 집에는 있다.

이층에는 주택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규모의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다. 창덕궁의 정신을 표방하는 Z형으로 꺽여진 전체건물 배치는 정원을 통해서 주택을 진입하면서 다양한 각도를 갖고서 이집과 주변의 경치를 바라보도록 만드는데, 그 정점에 이 거대한 거실과 유리창이 있도록 했다. 이 창의 너머로는 이집의 주인이 그토록 사랑하는 청평댐과그 주변의 압도적인 경치가 고스란히 보인다. 그래서 마치 이 창을 위해서 이 집 전체가 계

획된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키게 한다. 한편 이층의 거실 옆에는 주방과 식당이 있고 이 공간은 일부러 담장 높이까지 흙을 채운 높아 진 정원과 연결되도록 해서 정원의 일부를 바 로 이층에서 연결시켰고 정원은 강변과 평행 한 축을 따라서 움직이면 높은 담장으로 밀폐 된 듯한 정원을 지나 그 가운데의 현관을 거 쳐서 강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개방감이 확 보될수 있을 때까지 여러 변화를 이 작은 집 이 갖도록 배려했다. 삼층에는 침대가 놓여 있는데 이 공간 역시 현관처럼 단순히 사면이 벽으로 구성된 침실이 아니고 하부의 거실과 시각적으로 연결되고 다시 창너머의 자연과 연결되면서 자연과 집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 공간같은 곳을 제공함으로써 이곳에서 아늑 한 숙면을 취할수 있도록 했다. 맨 위층인 사 층의 조그만 방은 사색의 공간이다. 방앞의 옥상데크에 누워서 멀리 사방의 경치를 볼수 도 있고 누워서 별을 바라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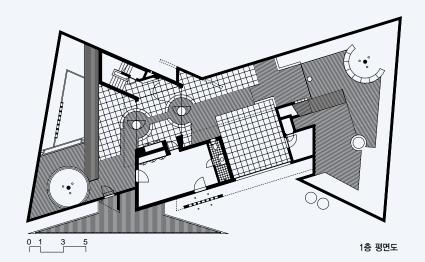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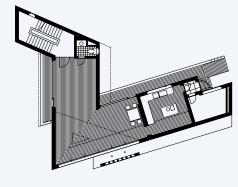




이주 어렸을 적 본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는 세월과 함께 매번 다른 느낌을 나에게 던진다. 동심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 그림이 미술교과서에 실릴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수 없었다. 그러나 점점 더 건축을 이해할수록 나에게는 소나무와 단 한 채의 소박한 집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 그림이야말로 수백장의 사진이나 도면보다도 더 많은 영감을주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소박함과 치졸함의 인간적인 매력은 도저히 앙코르와트의 크메르인들이 이룩할 수 없었던우리만의 것이었다고 믿게 되었다.

세한기에서 나는 과감하게 여러 주변지형 지물에서 나오는 사선들을 과감하게 사용했다. 또한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 그자체가 갖는 기하학적인 내재적 질서가 아니라 거주하는 인간의 반응과 느낌이라고 믿기에 주택에서는 믿기 어려울정도의 큰 창과 엉뚱한 현관을 용감히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집을 보고서 작고 소박한 세한도의 집을 바로 연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 그림속의 정신만은 꼭 본받고 싶었다. 그래서 이집의 이름을 세한가라 정했고 그에 걸맞는 두그루의 소나무를 집주인과 수개월씩 골라서 심었다. 이집이 앙코르와트보다는 세한도와 같은 정신을 갖는 작은 창덕궁이길 바라면서,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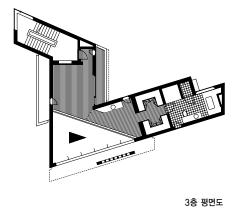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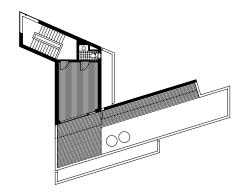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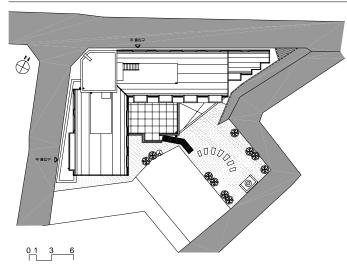
4층 평면도

마리아의 작은자매회 수녀원

Little Company of Mary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4번지 **지역지구** 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수녀원) 대지면적 372,35m² 건축면적 220.54㎡ 연면적 870,54m² 건 폐 율 59,23% 용 적 률 169.15% 모 지하1층, 지상3층 규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벽지 외부마감 적벽돌 치장 쌓기, ZINC 설계담당 이우홍, 최무규 구조설계 (주) 동우구조 설비설계 (주) 동우설비 전기설계 (주)대화기술사 시 공 사 정문종합건설(주) 설계기간 2004.1~2004.5 공사기간 2004.6~2005.3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Location Huam-dong 44, Youngsan-gu Seoul, Korea

Structure 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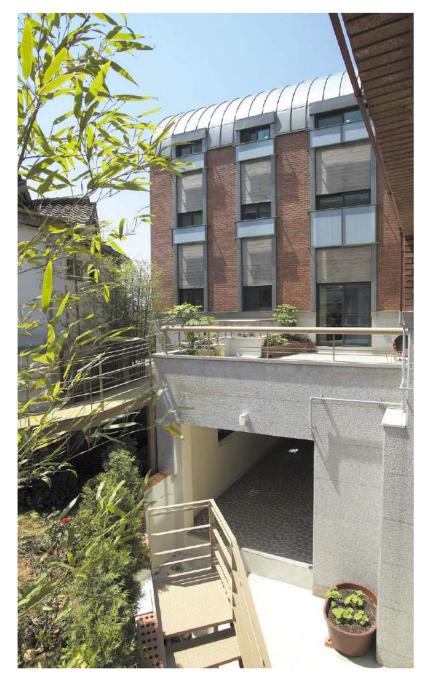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three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2004.1 \sim 2004.5$ Construction period $2004.6 \sim 2005.3$







이여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원으로부터 계획안을 의뢰받고, 대자를 방문하고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대자에 놓여있던 오래된 가정집 같은 수녀원은, 18년전 설계사무소 초년 시절 아침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올라야 했던 남산 기슭 언덕길에서 매일 보아왔던 그 곳이 아니던가! 허름했지만 고만 고만 작고 소박한 주변 건물들 속에 단아하게 자리잡아, 항상나의 눈길을 잡았던 그 가정집 같은 수녀님들의 숙소였던 것이다. 그렇게 '그'와의 인연이

닿았다.

이별

'그'는 낡아서 일부 지붕이 내려 앉아 수명을 다 한 듯 했지만, 호상이라 하면서도 노부모를 보내는 자식들의 허전한 마음처럼 놓아버리고 싶지 않은 건물이었다. 그 만큼 수녀님들, 이웃들과 사십여년 동안 그들의 역사를 함께하며 정이 들 만큼 들었던 가족과 같은 '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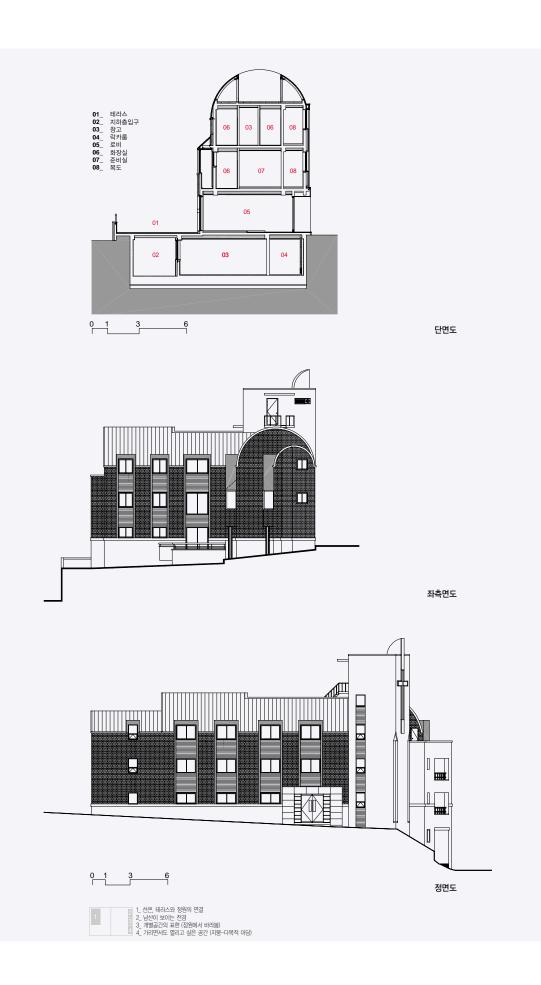
그래서 우리(수녀님들, 이웃, 후원자, 나)들

은 새 건물을 맞이하는 것 보다는 정들었던 '그'와 헤어지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와의 '이별식'을 하기로 했다. 호스피스 일을 하는 수녀님들이라서, 매번 정들었던 말기 암 환자들을 보내며 체험한 '잘 헤어짐'의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일까. 매정하게 늙은 '그'의 손을 놓기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교환하고 정리해서 잘 헤어져이만 새로운 식구를 기족으로 맞이할 수 있음을 모두가 마음으로 이해했다. '그'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우리는 담소하고 노래하고 음식을 나누었다. 그렇게 '그'와 헤어지는 자리는 푸근하고 따스했다.

갈등

그래도 새식구를 맞이하기는 힘들었다. 새 로 태어나는 '아기' 에게서 이전의 '그' 와 같은 푸근함과 따스함을 바라는 수녀님들을 어떻 게 다 만족 시킬 수 있을까. '아기'를 탄생시 키는 동안 조심조심 몸 조심해야하는 이웃들 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자주 불만을 토로 한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기는 아무래도 피가 섞이고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밖에 없 는 진리 인 것을…, 다름을 인정하고 부딪히 며 살아야 하는 것을…, 그렇지만 피는 속일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가풍'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던가? '태생'이 아주 다른 '돌연변 이'는 나오기는 어렵다. 이웃의 작은 몸집에 맞추어 덩어리를 나누어 주었다. 안으로 들어 와서도 작은 단위(unit)를 규칙적으로 배열 했 다. 이웃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고 쫓아내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들을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곳이 또한 수녀원이란 곳이다. 이별식에서 여러해 전 도둑과 대치했던 수녀님의 고백속에 아직도 그 두려움과 떨림을 느낄 수 있어서라기 보다는 수도자라는 특성상 속세와 떨어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던 '감추기'도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담장과방범창, 둥근 지붕등으로 수녀원을 감추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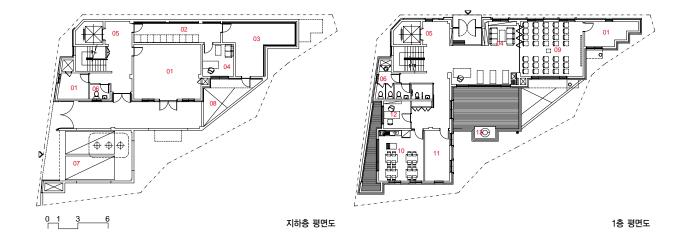








1 234 1. 옛집의 흔적 2. 청반의 최소 공간 (수녀침실) 3. 기도실 (소박함과 단순함) 4. 정숙함과 닫힘 (수녀침실 앞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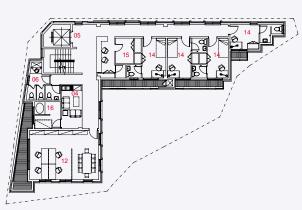
하였지만, 내부에서는 속세를 향한 수녀님 들의 마음은 활짝 열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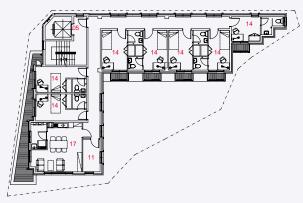
함께살기

그렇게 이율배반 같은 수녀원과 수녀님들 처럼 그 '아기'와 같은 건물도 이웃과 어울리 기가 어려웠다. 큰 덩치로 골목에 있어야 하 고 뽀얀 얼굴로 짜든 모습과 대치해야 한다 니… 난 그 '아기'를 잘 달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였다. 깨끗이 목욕시켜서 좋은 옷 입혀서 부잣집 아기 같이 크고 빛나는 모습보다는 건 강하게 그을리고 장난쳐서 흙 묻은 옷을 걸치 고 동네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노는 어린이로 만들어가야 했다. 그렇게 해서 이웃건물들과 함께 살아 갈 수 있을 때 그 건물은 생명을 얻어 그 자리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풍부한 건축적 공간과 어휘가 부족한 건물을 내 놓는 건축가의 노파심을 이해 바라면서 정리해 보았다.圖

> 식당 기도실 상담실(수녀원집무실) 성모상 수녀원 준비실 욕실 공동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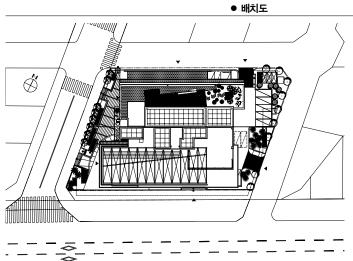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신사동 제이타워

J-Tower Office Bulding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시동 538/538-1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 노선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336.20m² / 1,066.50m²

건축면적 784,20m² / 626,47m²

연 면 적 14,962,67m² / 5,942,72m²

건 폐 율 58.69 % / 58.74%

용 적 률 781,27% / 288,02%

규 모 지하 5층, 지상 15층 / 지하 4층, 지상 7층

구 조 SRC/RC

내부마감 석재, 수성페인트

외부마감 커튼월, 알미늄패널

설계담당 어성모, 한정훈

구조설계 APN구조

기계설계 삼신설계

전기설계 나라기술단

토목설계 아남컨설턴트

C M (주)신영

시 공 사 삼성물산건설

설계기간 2002.4~2002.11

공사기간 2002.10~2005.1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Location Shinsa-dong 538-1, Gangnam-gu Seoul, Korea

Site area $1,336.20\,\mathrm{m^{\circ}}/1,066.50\,\mathrm{m^{\circ}}$ Bldg area $784.20\,\mathrm{m^{\circ}}/626.47\,\mathrm{m^{\circ}}$

Gross floor ratio 781 27% / 288 02%

Structure SRC/RC

Bldg. Scale five stories below ground, fifteen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2002, 4 ~ 2002, 11

Construction period 2002, 10 ~ 2005, 1



1_ 남측 전경 2. 남동층 05경







1_ 옥상정원 2_ 부출입구 입구 3 부출입구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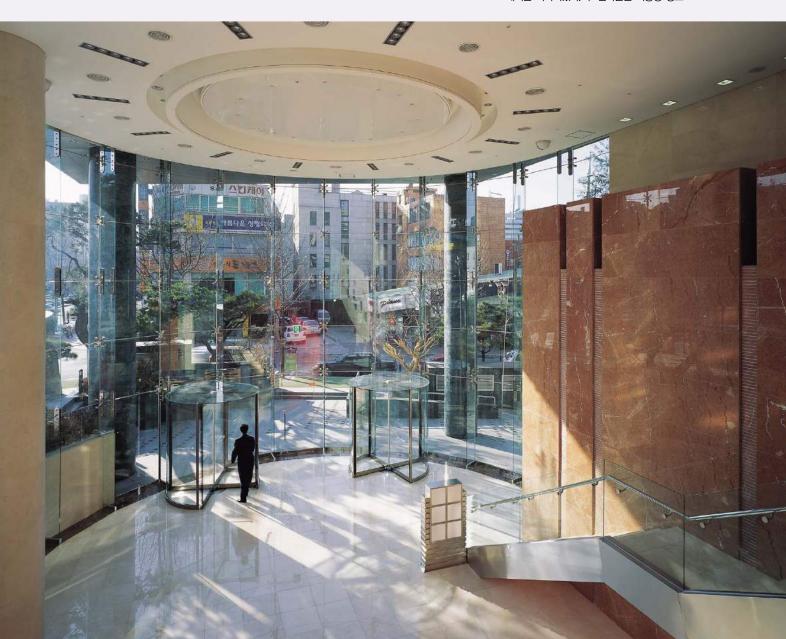


036 Korean Architects June 2005

설계배경

오르내리는 신사동 도산대로변 노선상업지역에 사옥을 겸한 임대형 오피스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계획은 주변 노선상업지역에서의 랜드마크적 역할과 함께 사옥을 겸한 임대형오피스로서 최대한의 건물 효용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건축에 앞서 C.M사가 선정되고현상설계 통해 우리사가 수주하게 되었다.

전후면에 인접한 대지의 특성을 이용한 맞 벽건축으로 최대의 용적률을 확보하는것으로 계획은 시작되었다. 두 건축물은 기능상 상호







보완적이며 동시에 극히 독립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는 까다로운 설계였다.

설계소묘

도산대로변 랜드마크로서 건물의 전면 폭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직성을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 모티브로서 옥상층까지 연속되는 커 튼월과 이후 시공 중에 높이가 조정이 되어 아쉬움을 남긴 옥탑과 옥상구조물이 도입되 었다.

사무공간은 가능상 적정 층고를 고려하여 계획되고 각종 자동화 설비를 대비한 인프라를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최대한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지상층으로부터 7층, 15층, 지붕층에 이어지는 사무녹지공간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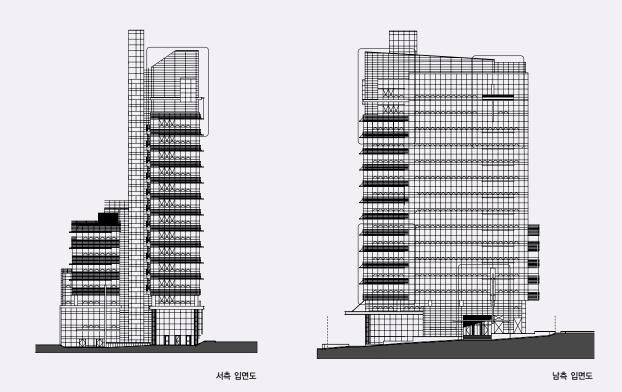
선큰에 의한 지하 1층의 진입은 타원형 로비를 통해 1층 근생 및 사무공간으로 이어지도록 계획되었다. 경사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전후면 건물간의 보행 및 차량동선이 연속성을 갖도록 지하 1층의 레벨이 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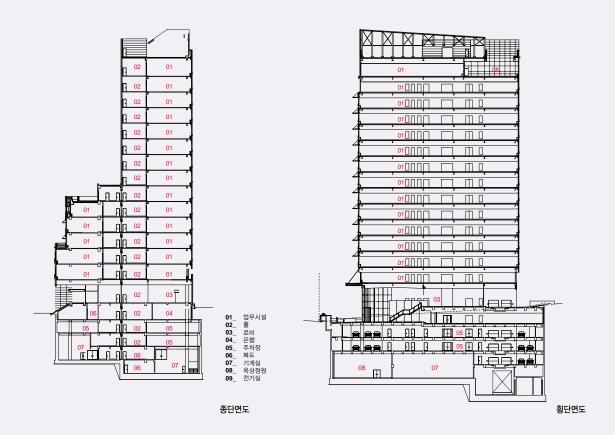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후면 건물간 기능상 공유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후 기능의 효율성과 법적인해석이 배치되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협의와발주처의 이해를 토대로 계획의 균형점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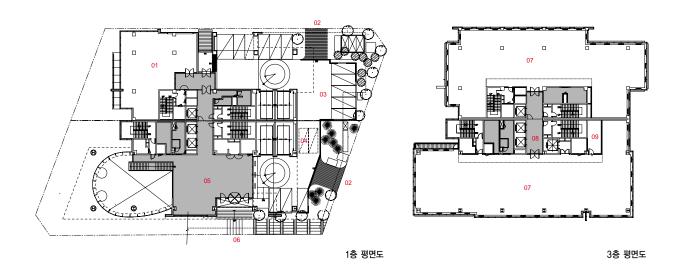
설계가 진행되면서 수차례의 협의와 조정, 시공을 거치며 원안의 개념과 디자인을 최대 한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현상설계 당시의 모습을 실제의 그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보다 이상적인 건축디자인의 실현이기 보다 는 실제화 되기 이전 언제나 실험적일 수 밖 에 없는 현실에 대한 집착이기도 하다. 구체 화된 건물의 모습은 도산대로변 즐비한 상업 시설 중심에 또다른 결절점을 형성하며 주변 지역에 일면 기여하는 건축물로서 인식되기 를 바란다.圖



038 Korean Architects June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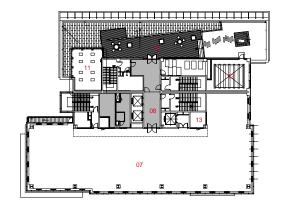








040







7층 평면도 9, 11, 1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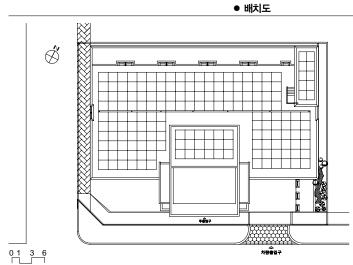






호텔 갤러리

Hotel Gallery



규 구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2

지역지구 중심상업지구,도시설계지구,도시설계에의한업무용지

● 건축개요

도 교육연구및복지시설(연구소), 일반숙박시설(호텔),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105.90m²

건축면적 882.45m

연면적 9,504.07 m²

건 폐 율 79.79%

용 적 률 598,00%

모 지하 3층, 지상 8층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 - 지정대리석, 민속장판 / 벽 - 지정벽지, 대리석,

무늬목 / 천정 - 비닐페인트, 지정천정지

외부마감 T-30 오이스트펄, 알미늄쉬트패널, T-16 파스텔복층유리

설계담당 민영만

구조설계 세현 구조 기술사 사무소

설비설계 (주)대유 MEC

전기설계 (주)다우텍

시 공 사 (주)오스빌건설

설계기간 1999

공사기간 2000.12~2004.2

진 채수옥

Location Seohyoun-dong 272-2, Seongnam-si, Bundang-gu

Gyeonggi-do, Korea

Site area 1,105,90 m²

Bldg. area 882.45 m²

Gross floor area $9,504.07 \,\mathrm{m}^2$

Bldg. coverage ratio 79.79%

Gross floor ratio 598.00%

Structure Steel & R.C

Bldg. Scale three stories below ground, eight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1999

Construction period 2000, 12 ~ 200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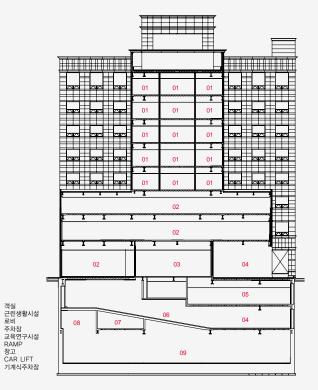
업무 여행자

꽉 짜인 일정, 업무의 성과에 대한 중압감. 그들에게 필요한 곳은 못다한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바로 비즈니스 호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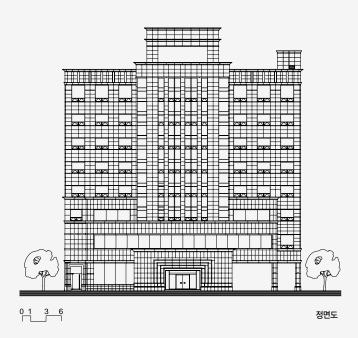
낯선 도시로의 업무 여행은 늘 가슴설레이 긴 하지만 또다른 한편엔 숙박에 대한 고민 이 존재한다.

호텔과 모텔로 대변되는 우리의 숙박 문화 속에서 적절한 숙박시설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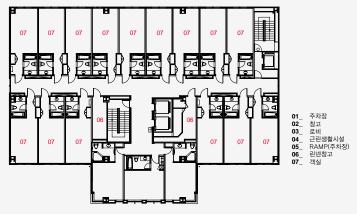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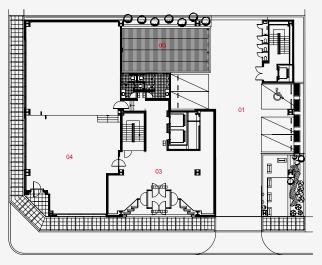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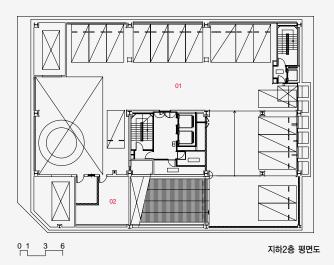




5~7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분당, 서현역

주거, 교육, 업무, 교통환경 등이 좋아 기 업체 연구소, 벤처기업, 공기업 본사 등이 밀 집해있는 업무 중심 공간.

그 중심에 호텔 갤러리가 있다.

업무의 특성상 외국인 업무 여행자가 많고 체류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특징을 갖고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곳이 바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곳, 비즈니스 호텔이다.

호텔 갤러리

호텔 갤러리는 업무 여행자 전문 호텔이다. 호텔의 고급스러운 장식과 모텔의 낯간지 러움을 탈피하고 간결한 형태와 재료로 절제 된 품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검푸른 회강석 (오이스트 펠)의 외장은 단정한 검정색 슈트를 연상시킨다.

겹겹이 줄여들어간 출입구는 입구를 강조하기보다는 건축 한계선에 맞닿아있는 건물이 갖는 겸손함의 또다른 표현이다.

ELEV홀, 로비 벽체에 외부 화강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소 좁은 공간을 재료의 간결함으로 확장시켜보고자 하였다.

3층의 BAR, ROUNGE는 천창을 도입하여 부드럽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하였다. 객실은 여유있다. 정보통신설비도 완벽하다. 업무와 휴식을 겸할 수 있을만큼 크게 하였다.

그리고, 건축적인 이야기를 담기엔 주변 여건이 만만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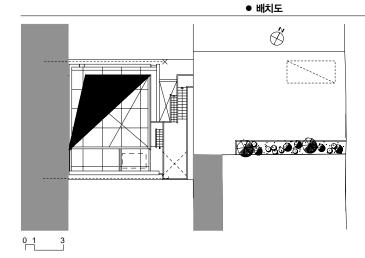
그래서 담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이곳을 찾는 모든 업무 여행자가 편 안하게 휴식하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치 고 평안한 마음으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 는 그리고 다시 찾고싶은 그런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圖



은석치과 리모델링

Eun Suk Dental Remodeling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001-6 번지

● 건축개요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치과의원)

대지면적 333,10m²

건축면적 98.59m²

연면적 592,08m²

건 폐 율 29.60%

용 적 률 147.99%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기존) + 철골조(증축)

내부마감 락카뿜칠

외부마감 압축성형시멘트패널, 내후성강판, 나누드(목재)

설계담당 백민곤

구조설계 김구조 연구소

설비설계 환경설비엔지니어링

전기설계 영상엔지니어링

시 공 사 직영공사

설계기간 2004.1~2004.7

공사기간 2004.3~2004.7

사 진 건축사시무소제공

Location Walsan-dong 1001-6, Nam-gu G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

Site area 333,10 m²

Bldg. area 98,59 m²

Gross floor area 592.08 m²

Bldg. coverage ratio 29.60%

Gross floor ratio 147.99%

Structure R.C & Steel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five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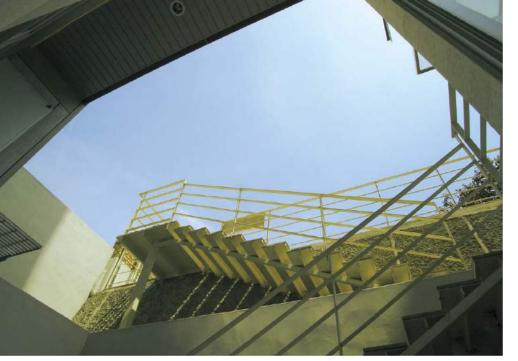
Design period 2004, 1 ~ 2004, 7

Construction period 2004. 3 ~ 2004. 7



1_ 1층 출입구 + 2층 발코니 2 거뭄 정면 좌측면도







내. 외부 관계맺음… 시각적 여유

임대건물로 완공되어진지 약 12년이 된 건물을 치과전용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하였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공간 찾기와 치과 전용 건물로 1층을 통한 모든 층으로서의 동 선 분배를 위해 기존 계단실(지하층, 1층, 2층 계단일부)의 변경이 필요했다.

협소한 한 개 층 바닥면적(27평) 때문에 건 폐율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약간의 증축도 필 요하였다.

무표정한 얼굴로 대로변에 서 있는 건물에 활기찬 기운을 넣어주기 위해 먼저, 1층의 진 입부분을 공공의 공간으로 내어주어 보행자 들에게 꽉 막힌 답답한 벽면보다는 시각적 여유와 경쾌함을 주고자 한다.

기존건물이 도로경계선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파사드 디자인은 발코니 등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옥상층의 조형으로 전체적으 로 건물에 입체감과 실루엣을 주었다.

그리고 투명성을 주어 내부에서는 도시의 풍경을 끌어들여 외부공간과 상호관통을 이 루도록 하고자 하였다.

뒷쪽대지의 추가매입이 이루어지면서 기 존대지와의 1.8m 높은 레벨 치를 해결하며 앞 대지와의 연계도 추가로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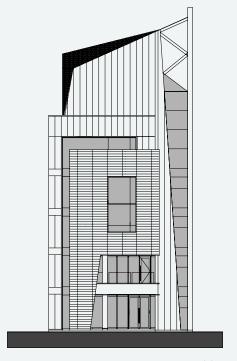
재료 선정에서도 내구성을 고려 세월이 지 나면서 그 시간을 읽을 수 있는 내후성 강판 및 자연친화적 재료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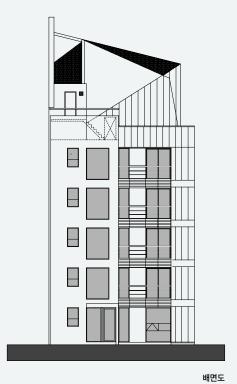
1층은 접수공간 및 대기공간이 있고, 2층, 3층, 4층에 진료공간, 5층은 기공소, 지하층 은 직원휴게공간 및 세미나실이 있다.

소독약 냄새보다는 잔잔한 음악과 차 향기 및 아생화의 시각적 즐거움을 주어 사용자에 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진료가 이루어 지고, 광주 월산동 순환도로변에 밝은 표정의 건물 로 보는 이에게 경쾌함을 주었으면 한다.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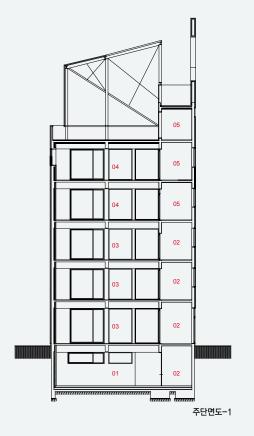


1_ 햇빛마당에서 올려다 본 VIEW 2. 해빛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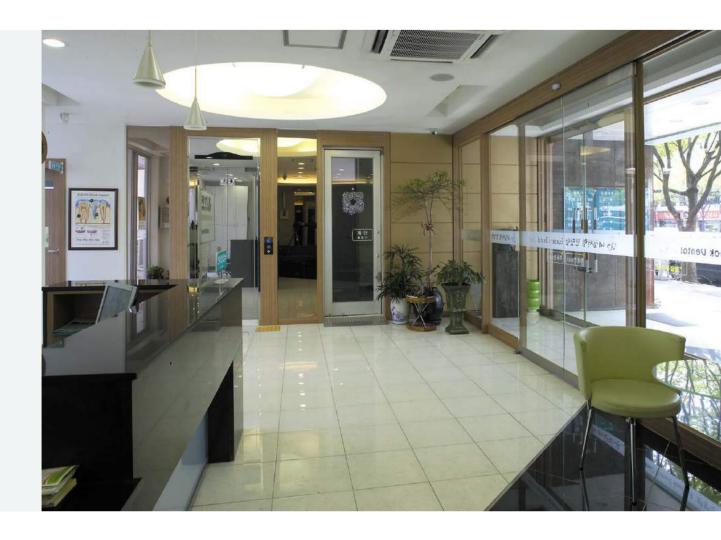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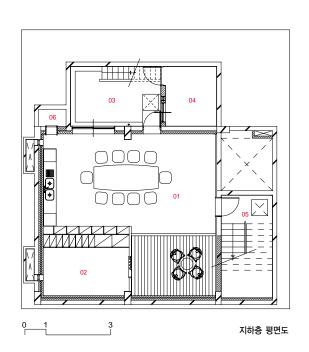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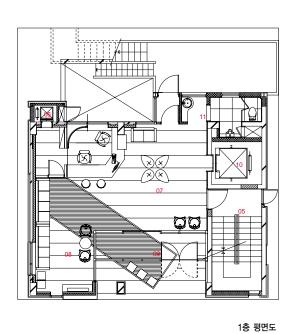




051 0 5 0 6 대한건축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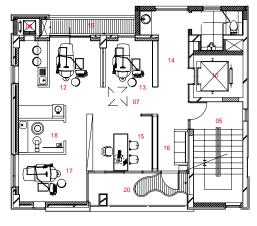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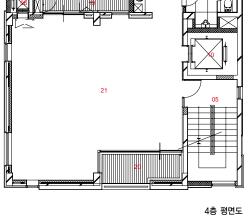




1 2 3 1_1층 대기출 2_2층 발코니 3_1층 접수대

01_ 사무쇼 / 회의실 02_ 휴게실 03. 햇빛마당 04_ 기계실 05_ 계단실 06_ 담웨이터 07_ 지파의원 08_ 대기실 09_ 방품실 10_ ELEV. 11_ 전실 12_ 치료실-1 13_ 치료실-2 14_ 홈 15_ 원장실 16_ 대기홈 17_ 특진실 18_ X-RAY실 19_ 발코니-1 20_ 발코니-2 21_ 기공소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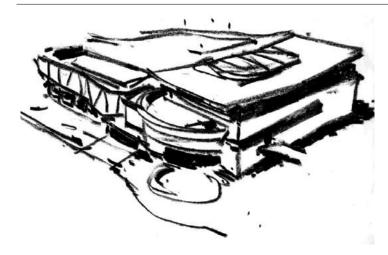
053 0 5 0 6 대한건축사협회

Drocess Works

남해실내체육관

Namhae Gymnasium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05-3번지 일원(남산근린공원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도 문화 및 체육시설

대지면적 9,025.00m²

건축면적 3,003,26m²

연 면 적 6,561,22m²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일부경량철골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대수 86대

외부마감 T.18목재패널, T.3알미늄시트, T.22 복층유리

설계담당 박찬규, 조만재, 이상원, 권오열, 김철기, 이진효



남해군은 한려수도의 자연경관과 따뜻한 기후로 인해 다양한 스포츠행사를 계획 및 유치하고 있으나 현재 실내 스포츠 행사를 치를만한 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 해 실내체육관의 건립이 필요한 상태였다.

따라서 남해실내체육관의 신축은 남해군의 남산 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상호 연계성이 유 지되고 공설운동장과의 단지화를 제안함으로 써 스포츠 파크로서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된다.

대지는 남해공설운동장과 가까이 위치한

자연녹지지역 남산근린공원의 일부로 계획된 곳이다. 대지의 전면은 스포츠행사 유치 시주차 및 접근동선을 위해 하천복개사업을 실시한 도로 및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6m도로가 지나간다. 또한 남쪽으로는 남산근린공원으로 갈 수 있는 산책로가대지를 따라 형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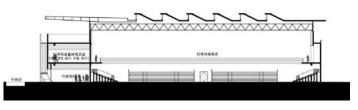
건물의 배치는 대지의 전면을 비워 전면 광장이 형성되어 자연스런 진입을 유도하고 후면에는 남산근린공원의 연계를 위해 연결 데크를 계획한다.

실내체육관은(2,000명 수용) 수납식 의자를 계획하여 농구, 핸드볼, 배구, 배드민턴등 운동경기와 각종 공연 행사 등을 치를 수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기타 체육시설을(헬스장, 권투연습장, 스쿼시) 계획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도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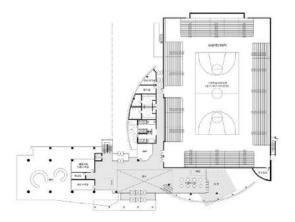
조형의 구성은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기타 체육시설, 부대시설이라는 기능에 의해 매스가 분리되고 분리된 매스는 공용 공간에 의해 통합되어 전체적인 매스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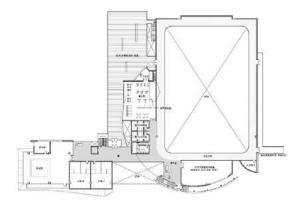






종단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0506 대한건축사협회

배면도

부천대학교 밀레니엄센터, 체육관

Bucheon College millennium Center, gymnasium

대학의 캠퍼스는 대학활동을 담고 있는 대학의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면서 변화되어지는 유기체이다. 대학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속도나 규모에 비해 캠퍼스의 물리적 대응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대학구성원들의 활력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과거대학들이 질적 성장보다 양적성장에 기인한 나머지 시설의 질적 환경구축 보다는 외적크기에 집중한 캠퍼스의 우선순위에 대한 관심사가 대학의 발전을 저해한 요인이기도 했다. 앞으로의 조성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학생수의 감소 추세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대학간 신입생 유치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천대학은 수도권 대학중에서 그간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로 학생 및 복지시설의 건축과 체육관 및 일부 기존건물의 리노베이션과 대학의 학생복지시설과 행정서비스기능, 교직원의 후생 복리시설이 주기능이다. 또한 체육관 및 강의실동의 증축과 리노베이션은 기존건물에 대한 성능개선의 시도이다. 기존건물을 잘 살리면서 증축되어지는 이 계획에서 차용되어진 디자인 언어는 다음과 같다.



중첩의 형태

현대 철학은 주체가 본질이 아니라 주체 의 바깥 그리고 그 바깥에서 주체와 관계 맺 는 타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사조로 변 하고 있다. 서구의 근대성은 철저히 주체철 학이었으며 근대가 이룩한 성과는 인정해야 겠지만 주체 이외의 타자는 모든 가치와 의 미 기준에서 변방으로 밀려나있고 이것은 인간소외와 자연파괴, 파시즘과 같은 현대사 회의 부조리와 비인간성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해 준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 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새로운 사유혁명 은 이런 주체성, 주체철학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바깥의 사유, 타자의 담론, 차이의 사유이다. 현대성을 총체적으로 규정지으려 는 네트워킹적 체계이다. 소위 구조주의 철 학은 각 학문의 제영역이 서로를 공진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형성된 사조이고 추 상적 가설이나 형이상학적 논리구조가 아닌 구체적이며 과학적 사유패턴이다. 주체가 본 질로 작동되어진 서구 이원론적 사유로 파 생된 비인간성과 왜곡 사회의 기형적 현상 을 고발한 미셀 푸코의 광인과 광기의 계보 적 통찰은 이미 그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 다. 현대사회의 설명은 늘 기본적인 대립항 으로 인식되어왔던 대상과 주체의 이분법을 버리고 이 사이에 제3의 차원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 3차원이 구조이다. 이것은 대상과 주체의 일정한 관계맺음을 지배하고 대상과 주체는 제3의 공간을 통해서 관계 맺는다. 현대는 관계맺음과 그물망의 통합적 구조이 다. 즉 다양한 주체가 중층적 구조로서 중첩 되어져 형성된다. 이 사회는 하나의 단서로 서 현상을 규정하기엔 너무나 복잡한 구조 이다.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현상은 토지가 비싸기 때문만이 아니다. 교통, 교육, 정보, 문화와 같은 총체

적 중층구조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알튀세는 중층 개념을 가지고 사회 구성 체계는 물론이고 인간관계의 복합성 뿐만아니라 그 관계가 표방하고 있는 내면 성의 특질까지도 설명하려 했다. 들뢰즈도 의미와 논리에서 알튀세와 유사한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들뢰즈의 시물라크르 (simulacre)는 사건이나 이마쥬 등으로 이해 되는데 사건 이전에 그 위상이 복수적이고 계기적이며, 사건으로 인해 영역의 변위가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사건과 의미는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동시에 발생한다. 건 축에서 다양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 한 키워드로 중첩은 유효하다. 중첩은 건축 과 사회성과의 상관성, 건축이 시대를 표상 해야하는 표현의 다양한 침적층을 구축해 내는 수단이다. 매스의 포개어짐으로 만들어 지는 형태의 다양성과 다이나믹은 의미의 비약을 전의법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킨다. 중





첩되어진 형태는 새로움의 부과에 대해 많 은 것을 말하며 좌표화 되지 않고 계기적 비 약과 진화의 연속적인 생성을 수립한다. 대 학과 사회의 교환과 매개의 모든 네트워킹 을 기술하며 새로운 앙태를 재구성하는 중 첩은 다양성이 설명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다양성을 지시한다. 이 대학 형태구성은 저 층부와 고층부가 45°의 형태가 포개어져 중 첩된 구조이다. 이것의 의도는 롤랑바르트가 텍스트를 지칭하면서 그 작품의 깊이는 다 양한 층리 사이의 유기적 관계들에 있으며 그 관계는 다양한 중첩된 구조를 가져야 한 다고 역설했는데, 은유적이고 환유적 구조가 무의식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무한한 변환망 이야 말로 텍스트의 진정성이라고 했던 그 의 말로 귀결짖고자 한다.

뉴 밀레니엄 에테르

고층부의 큰 접시 모양의 구조물은 무엇이나고 많은 질문을 받곤 한다. 건물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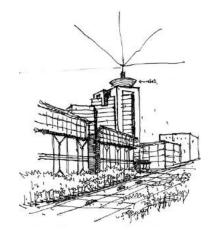
밀레니엄 센터이다보니 새로운 천년을 기념 하고 대학의 미래 지향성을 대변하고 대외 적으로 천명하는 상징적 구조물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 한 것이다. 뉴 밀레니엄은 전 자시대와 디지털 환경일 것이다. 전자시대 의 미학에서 큰 특징을 꼽으라면 아우라의 부재일 것이다. 예술에서 원본성, 유일무이 한 일회성의 개념이 복제시대예술에서 부재 한 것은 당연한 것 인지 모른다. 벤야민은 기술 복제시대의 생산구조 변화에 의해 예 술개념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 바가 있다. 사라져가는 아우라를 상기시키고 건물의 상 징을 표현할 그 무엇은 예측된 가상성을 표 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이미지화해서 기억한다. 또한 직 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이미지화해서 수용하고 이미지로 사고하고 이미지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러므로 이 미지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더 빠르고 깊게 받이들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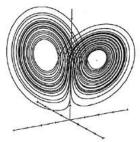
전자 시대적 현존성의 이미지로 원반모양 을 차용했다. 원반모양은 하늘 향해 열려있 다. 상상력의 여러 모양을 허락하고 신비적 영기와 그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 기하학적 특징에서 다분히 아우라적인 구조 물이다. 상부로 열린 상층의 접촉은 무한한 에너지를 위로 발사하고 표면의 반사는 본질 적인 방식에서 이미지를 극대화한다. 준안정 성을 스스로 취하는 동력학적 불안전적 구조 (하부가 좁게 되어짐)는 오히려 더 다이나믹 을 산출한다. 위로 열린 이 원반의 역동적 에 테르는 이 대학의 과거와 외향적 지향성의 미래가 만나는 곳이다.

비선형 어트랙터

외부공간에서 야외극장은 다분히 어트랙터(attractor)이다. 이 어트랙터는 원이 진화된 타원형의 비선형적 구조이다. 어트랙터는 고정된 상태에 이르는 운동과 끊임없이 자신을 되풀이 하는 운동을 나타내는 고정점 (fixed point)과 한계 사이클(limit cycle)을 일컫는 말이다. 어트랙터는 끌개라고도 한다.







로렌츠(E.Lorenz)의 끌개. 대기의 변화 모양을 3차원 공간에 그린 것이다.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일정한 법칙으로 변화지 않는다. 또한 무질서(인먼서도 법칙성을 감지게 한다. 이 그림은 결호 두 번 다시 같은 제도를 돌지 않으며, 영원히 변화하는 카오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임의의 초기치에서 출발한 점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두 개의 소용돌이를 만들면서 단 한 번도 갑치는 일없이 영원히 이어진다. 한쪽의 소용들이를 돌면서 진목은 서서히 커지는데, 어느 순간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쪽의 소용들이도 올게간다. 여기서도 몇 번씩 돌다가 갑자기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나 '게' 전체는 완전한 무질서는 아니다.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얽혀 있는 것이다.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이 며칠 후 뉴욕에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가 마치 나비의 날개짓러 생긴로 로렌츠의 끌개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즉 매력적으로 끌어당기는 위상학적 개념이 다. 끌개는 현대과학의 가장 강력한 창작물 중 하나인 위상공간에 존재한다. 끌개가 중 요한 것은 많은 물리적인 체계에서 초기 상 태로부터 끌개까지 도달하는 과도기적 운동 은 지극히 짧은 순간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 에 체계의 움직임을 고찰할 때 우리들이 보 는 것은 이미 끌개에 도달 했거나 또는 끌개 에 거의 가까워진 체계의 행동이며 체계가 아직 끌개에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운동은 이미 끌개의 성질에 지배되어 있다는 것이다. 야외극장은 대학 외부공간중에 끌개 에 해당되는 공간이다. 끌개는 정형을 깬 비 정형적 구조를 취한다. 타원형의 비선형적 구조는 질서가 있으면서도 일정한 패턴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또한 무질서 이면서도 법 칙성을 감지케한다. 이 기묘한 끌개는 로렌 츠(E. Loremz)의 나비날개 도상에서 잘 알 수 있다. 로렌츠의 끌개가 규칙성과 불규칙 성이 상존하고 그의 기후 이론인 나비효과는 실제 대기를 모형화해서 수백만개의 변수를 포함시킨 기후모형(toy)의 결과물이다. 한국 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며칠 후 뉴욕에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의 로렌츠 끌개는 비선형의 아름다운 형 태이다. 야외극장은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획일화 시키지 않고 복합성이 공존하되 질서를 깨지 않는 위상학적 끌개와 같은 학생들의 매력적인 어트랙터(attractor)이다.

시간과 문화의 축제

대학문화와 시간은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과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두가지이다. 카이로스(Kairos)와 크로노스(chronos)로써의 시간 이해이다. 카이로스가질적인 시간 이해이다. 그러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상적인 시간 이해이다. 그러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서로를 향해 운동을 한다. 크로노스는 실존적 카이로스로 운동하고 질적 충만한 시간으로써 카이로스는 객관화된 크로노스로 운동한다. 시대적 환원과 시간의 재현은 그 역사의 되돌아감의 회귀에서 가능할 것이다. 대











학의 신입생은 대학이란 가입과 통과 의례적 경계를 통해 매년 축제의 시간을 경험하며 대학문화의 객관화된 크로노스로 운동한다. 대학문화는 사회적 유산과 전통에 의해 형성 된 사회적 의미체계로서 연구와 커뮤니케이 션을 통해 지속 양산되고 특정 시공간 내의 사회적 행동양식에 의한 삶의 방식이며 변화 하는 삶의 조건에 적응하기위한 선택적이고 역동적 조절과정으로 사회적 제도의 상호 연 결체계로서 삶을 계획하는 것이다. 또 축제 란 자기 삶의 본질을 찾고 긍정하는 행위이 다. 축제를 회복하기위해 스스로를 긍정해야 하며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긍정이 요구된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방식을 특징짓기 위해 어떤 특정한 날과 시합의 존재, 즉 축제 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경우 날 의 존재에서는 날이 항상 다른 것임에도 불 구하고 사라지기만 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현 전이며 동일한 것의 임재라는 것이다. 대학 의 축제는 동일한 날이 매년 반복된다. 그러 나 매년 다르기 때문에 구하고 사라지기만 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현전이며 동일한 것의 임재라는 것이다. 대학의 축제는 동일한 날 이 매년 반복된다. 그러나 매년 다르기 때문 에 근본적 의미에서 시간적이다. 그 존재는 생성중에 실재이다. 가다머는 축제를 주관적 성격을 지니거나 축제의 존재가 경축하는 사 람들의 주관성에만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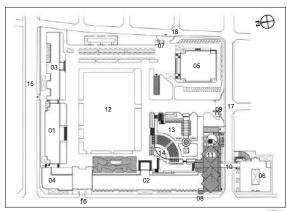
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를 경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연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극의 존재는 관객이 가진 체험의 교차점이 아니라 반대로 관객의 존재는 연극에 참가함으로써 규정된다. 시간의 구조를 참여와 축제로 이해하는 것은 대학문화에 중요한 활력을 부여한다. 외부공간의 공간구성은 시간의 구조와 참여가 유기적으로 경험되는 구조이다. 야외극장은 축제와 참여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고 광장은 시간과 커뮤니티의 장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다.

옴팔로스(omphalos)

도심지 대학들의 공통적 특징은 대학의 건물이 형성되어가는 순서가 운동장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진다는 점이다. 기존의 체육관도 그 부분의 마지막 부위이며 결국 운동장을 에워싸는 형태로 귀결된다. 이 부분은 기존의 주출입구이며 도심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서 학생들의 동선이 가장 빈번히 접하는 곳이다. 기존의 체육관은 이미 슬럼화되어 성능개선이 요청되는 곳이므로 체육관을 넓히고



01_ 본관 02_ 한길관 03_ 공학관 04_ 예지관 05_ 체육관 06_ 도서관 07_ 경비실 08_ 정입실 09_ 수위실 10_ 연결통로 11_ 밀레니엄센터 12_ 운동장 14_ 야외극장 15_ 북문 16_ 서문 17_ 정문









그 주위를 증축하는 개념이다. 전체대학의 각 건물군에서의 시점이 한 곳에 모아지는 코너 부위이므로 전체부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시점이 한곳에 모아지므로 이 다양한 시점을 통분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옴팔로스는 델 포이의 주민들이 부르는 흰돌이었고 이를 대 지의 중심이라 여겼다. J. H 해리슨은 옴팔로 스는 생성의 중심이라 했고 로셔(Roscher)는 세계의 중심이라 했다. 그것은 새로운 탄생과 양심의 회복을 보증하는 것이다.

옴팔로스는 자기영역을 중심화하는 원의 속성을 가진다. 공간의 실존적 체험에서 여 러 유형이 있지만 가장 완전하며 영원한 곳 으로서 이상적 형태는 예외는 있겠지만 원형 일 것이다. 원의 도상은 중심을 확연히 인식 시키고 그 주변영역과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

어 전체를 하나로 통분시키는 특징이 있다. 부지의 코너와 사각지대를 활성화시키고 기 존의 사각형 박스공간을 성능 개선하는 기능 과 시각적 측면을 대응 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옴팔로스를 차용했다. 🖺

한길 밀레니엄센터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424, 454-3번지

지역지구 일반 주거지역

대지면적 44,729.90m²

건축면적 1,337.13m²

연 면 적 24,207.59m²

구 조 SRC 구조

외부마감 T30화강석, T16파스텔복층유리

체육관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424, 454-3번지

지역지구 일반 주거지역

대지면적 44,729.90m²

건축면적 1,949.19m²

연 면 적 10,015.21m²

구 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T30화강석, T3알루니늄쉬트





체육관





061 0 5 0 6 대한건축사협회

현상설계 | Competition

수원 역사(서예, 사운) 박물관 Suwan Museum of History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수원시역사(서예·사 운) 박물관을 건립하여 104만명이 거주하는 도시에 걸맞는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 해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주)건우사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진우종합건축사사 무소 + (주)시공테크 + (주)경동테크엔디자 인'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물기증자의 고귀한 뜻을 기려 기증사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 및 시민들의 서예 및 역사문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당선작 / (주)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공순구) + (주)진우종합건축사무소(김동훈) + (주)시공테크 + (주)경동테크엔디자인

대지위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088-10,11,12

지역지구 자연 녹지 지역

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39,135m²

건축면적 2,813,36m²

연 면 적 5,679.49m²

건 폐 율 7.19%

용 적 률 9.74%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조)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외부마감 유문암 잔다듬, THK24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건우: 허양순, 이익주, 양우성, 하상욱

진우: 강종오, 임용진, 신정섭

계획의 방향

- 수원의 여타 박물관을 총괄하는 센터로서 수원을 상징하는 건축물
- 역사 서예 박물관의 테마를 살린 건축계획 으로 박물관 단지가 갖는 다양성 확보
- 광교산 녹지축과 어울리는 환경 친화적인 생태 건축
- 수원의 랜드마크로서 주변의 여타 박물관과 유기적 연계

디자인 개념

- 발전해가는 첨단도시 수원을 대변하는 모 던한 형태에 역사적 모티브를 차용함으로 써 법고창신法古創新 : 옛 것을 본받아 새 로운 것을 창조한다)의 정신을 반영
- 인인화락(人人和樂)의 정신을 반영하는 열린 박물관(Public Museum)으로서의 역할 증대



- : 방문객에게 서예와 역사라는 테마를 일상의 경험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공간 형성
- 두 개의 다른 전시 특성을 고려한 매스 분절 및 조형성의 창출
 - ① 서예 박물관: 서예의 특징인 구성, 자형, 점획, 필세 등에 의한 시각적 조형미를 인 용한 매스의 다채롭고 조화된 구성
 - ② 역사 박물관 :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첨단 자족도시로서의 수원을 표방, 부유하는 역동 적인 매스 구성
- 모듈화된 선들의 규칙적인 비례를 통해 분동으로 구성된 역사 및 서예 박물관의 절제된 선적 조형미와 조화 창출
- 주변의 녹지공간과 다양한 조망을 최대한 인입 하기 위한 오픈공간의 도입과 유리의 사용을 통 해 적극적인 개방감 창출
- 박물관 내·외부 공간과 주변의 자연 환경이 유 기적 연계를 맺는 자연친화적인 형태 창출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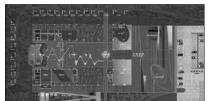


남측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마포구종합행정타운

Mapo-gu Administration town

서울특별시에서는 마포구 거주인구의 증가에 따른 기존 청사시설의 확충과 노인전문 요양센터, 청소년수련관이 유기적으로 연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한 결과 총 3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한 가운데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주)포스코건설+동부건설(주)' 컨소시엄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당선작 / (쥐공간종합 건축사사무소(이상림 · 강희성) + (쥐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김종국) / (쥐포스코 건설 + 동부건설(쥐) (턴키)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68번지 1호외 24 필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5 도 공공업무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23,773m²

건축면적 10.988.26m²

연 면 적 44,206,49m²

건 폐율 45.46%(구청사, 청소년수련관) / 49.11%(노인요양센터)

용 적 률 144.69%(구청사, 청소년수련관) / 154.59%(노인요양센터)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자하 2층, 자상 10층 / 자하2층, 자상 4층 / 자하 1층, 자상 5층

외부마감 THK30 화강석, THK24 복층유리 (로이), THK0.8 불소수지 강판

설계 팀 공간: 박남규, 전성태, 한형욱, 조성준, 김준모, 김미수, 백성진, 옥윤종, 박은주, 이재헌, 손주연, 홍이식

건원 : 지태우, 이광석, 최윤실, 유진희

이번 계획안의 개념을 도출하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였다.

첫째는 앞으로는 점점 더 IT 정보화 사회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구청도 전 자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비방문 민원처리의 비중이 커짐을 의미한다. 앞으로 미래 청사는 일반 민원실의 비중은 점점 작아 질 것이다.

둘째는 최근 계획된 종합 청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래의 구청사는더 이상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한 목적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계획안은 미래 구청사의 모습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 디지탈 통신 네트워크 시대가 지 닌 특징에 주목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 로든 모든 것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공간 개념인



멀티리움(Multirium)을 중심으로 계획하였다.

멀티리움은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단 순한 대공간의 홀이 아니라 각 시설 이용자들이 만나고 흩어지며 다양한 문화, 복합 시설로 전환 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향후, 멀트리움 내 민원 업무 공간들은 상황에 맞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시설 용도로 전환될 것이다. 3층 민원실은 구의회와 연계하여 지역 주민자치 센터로 2층 민원실은 대강당 및 소극장 등문화 시설과 연계하여 박물관과 만남의 장으로 1층민원실은 행정 존을 재구성하여 상담 부스형 민원실과 정보검색·자료실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하여 갤러리와 만남의 장으로 사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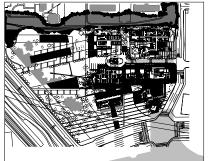
더 나이가 마포 구청사는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노인요양센터 등과 결합하여 단순한 업무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마포를 위한 새로운 문화 중심의 타운이 될 것이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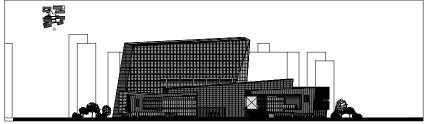












정면도

1층 평면도

단원어린이도서관

Danwon Childrens Library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단원풍속마을의 전통 건축과 어우러지는 예술성과 창의성 있는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하여 40여 업체가 응모한 결과 당선작에 단아건축사사무소, 우수작에 (주) 윤건축사사무소, 가작에 한길건축사사무소 안이 각각 선정 됐다. 심사는 이태윤 안산시 청 건설교통국장과 김영하 단국대 교수, 박 재승 한양대 교수, 임종엽·한상을 인하대 교수, 유 완 연세대 교수, 이상우·최병정 경기대 교수 등이 맡았다. 당선작 / 단아건축사사무소(조민석 · 김상기)

대지위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3,903m²

건축면적 778.91m²

연 면 적 2,076,97m²

건 폐 율 19.96%

용 적 률 42.76%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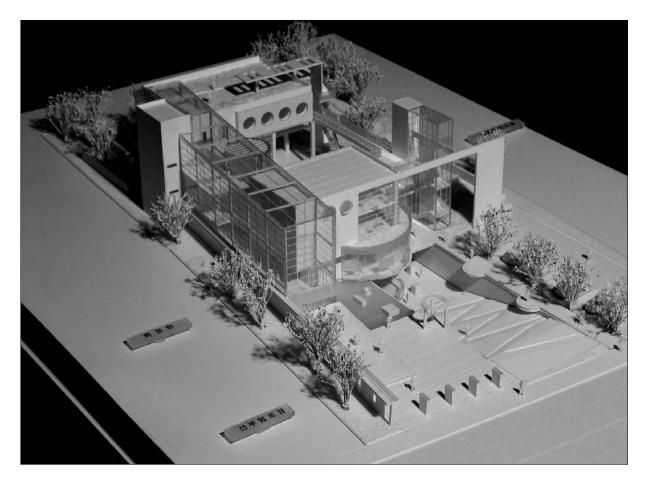
외부마감 압출성형시멘트판, 드라이비트

설계팀 박영실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대지 남측의 단원풍속마을 예정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방적 공간구성을 하였 으며 동선상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도록 하였다.

또한 대지 서측에 인접하여 신축예정인 이동 복지시설과는 시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장, 놀이터, 소나무동산 등을 배치하였고, 대지의 동측으로는 소음과 악취가 발생되는 신부펌프장이 인접하므로 복도, 화장실 등의 서비스 공간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 공간을 보 호하는 일종의 방호벽 역할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명확한 공간조닝과 동선분리로 건물의 기능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단원 어린이 도서 관은 열람영역과 사무관리영역, 교육문화영 역으로 그룹화하여 각 영역별 별도의 동선체 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방문자동선과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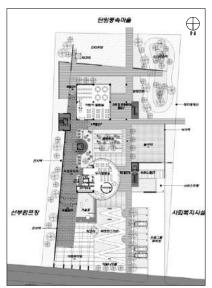


및 서비스 동선을 구분하고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강당을 위한 별도 동선과 교육, 문화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동선도 따로 마련하고 이러한 동선들의 연계도 원활토록 하였다. 셋째, 인접한 단원풍속마을의 전통건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전통건축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중정공간과 누허공간 등을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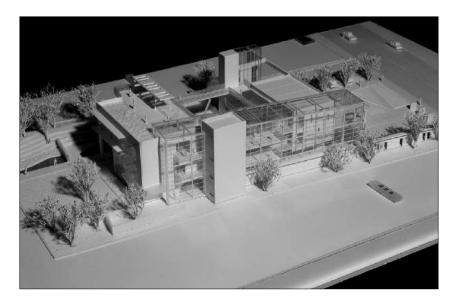
넷째, 어린이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공간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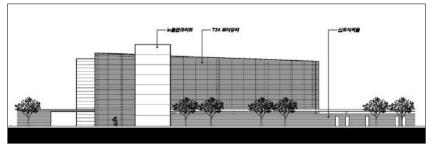
어린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보는 장소가 아니라 문화와 휴식과 체험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도시의 거리분위기를 연출시킨 이벤트거리 를 실내공간으로 계획하여 전시회, 도서벼룩시장, 기 다림, 휴식, 담화 등의 행위를 담도록 함으로써 어린 이들이 이 공간에서 사회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친근한 형태언어와 단순기하학적인 형태 의 반복사용으로 어린이들의 기억에 쉽게 각인되 며 오픈 문화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공간은 흥미로운 교육 및 놀이 장소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낙서벽이 있는 놀이터,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뒹굴수 있는 잔디마당,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소나무 동산, 풀밭에 자유로이 앉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 가든, 전시벽이 있는 이벤트 광장, 조용 하고 향기 가득한 화계정원, 이러한 다양한 공간 들을 체험하며 어린이들의 꿈이 커져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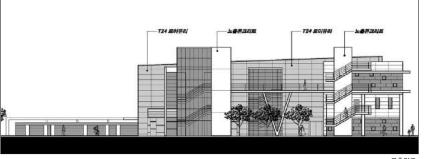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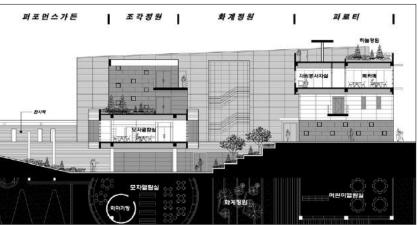




좌측면도



우측면도



C-C 단면도

단원어린이도서관

Danwon Childrens Library

우수작 / (주)윤건축사사무소(윤덕찬)

대지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667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 도 어린이 전용 도서관

대지면적 3,903m²

건축면적 730.73m²

면 면 적 2,066,38m²

건 폐 율 18.72%

용 적 률 50.34%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티타늄아연판, 알루미늄

프레임, LOW-E컬러복층유리

설계팀 문일성, 박정원, 김승훈

설계개념

엄마의 두 팔

단원 어린이 도서관의 전체형상은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생태축(Green AXIS)의 삽입으로 동, 서로 나뉘어지고, 나누어진 두 매스 (Mass)는 마치 엄마의 두 팔처럼 외부로부터 열람실 영역을 보호하며, 각종 영양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엄마의 배

대지중앙에 위치한 열람실 남측의 투명한 외 벽은 엄마의 배를 닮은 곡선형태로 건물의 전 체매스를 지배한다.

배치개념

단원어린이도서관 대지는 화랑유원지 단원풍 속마을 예정지의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 지는 북측 20m도로 건너편의 고층 아파트단 지와 동측의 오수 펌프장, 서측 사회복지시설 예정자는 도서관의 배치계획에 결정적인 요 소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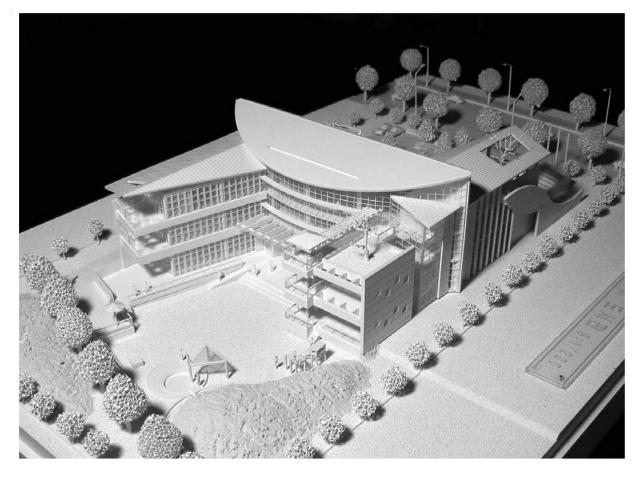
외부공간개념

(Human Scale for Chidren) 진입마당(최첨단 동적공간)

북쪽 진입마당은 동적인 디지털 미디어 랜드스케이프(Digital Media Land Scape) 개념의 생태 정원으로 도서관 출 입자들에게 첨단의 디지털매체를 통한 홍 보, 최신정보전달, 각종 이벤트의 장이 된 다.

잔디마당(친환경 정적공간)

남쪽의 잔디마당은 생태서식(Biotope) 환경 의 정적인 생태정원으로서 도서관의 거의 모든 실들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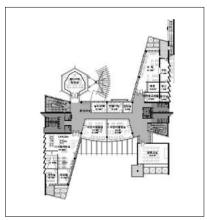


내부공간적 외부공간

열람실 매스로 인하여 남, 북으로 분할된 두 외부 공간은 동, 서측 매스와 함께 내부 공간적 외부 공간으로서 어린이의 시각, 청각적 의사 전달이 가능한 휴맨 스케일(Human Scale In Space) 의 아늑한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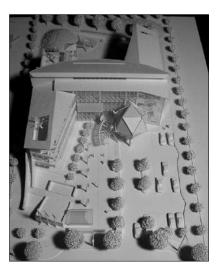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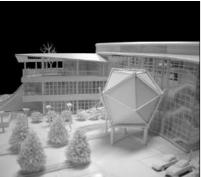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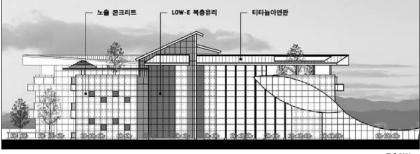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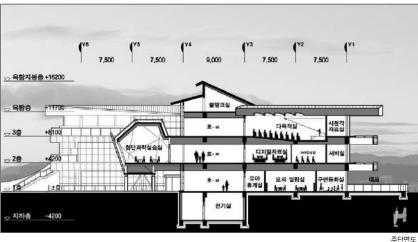








배치도



069 0 5 0 6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서부소방서 Jeju Sedou Fire Station

제주도 서부소방서는 설계방식을 통하여 국 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건설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참신하고 창의 적인 소방서를 건립하기 위해 현상설계경기 를 실시한 바 10여개 작품이 응모하여 심사 한 결과 아름건축사사무소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당선작 / 아름 건축사사무소(고성천)

대지위치 제주도 북제주군 동명리 663외 4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도 업무시설 (소방서)

대지면적 8,598m²

건축면적 1,673.9m²

연 면 적 4,140.3m²

건 폐 율 19.48%

용 적 률 35.1%

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모 지하 1층, 지상 3층

내부마감 무늬코트 목재패널

외부마감 알미늄복합패널, 노출콘크리트,

당이시자목

설계팀 고이권, 변영숙, 강명철, 양원철,

김수이아

프롤로그

제주도 서부소방서는 소방서라는 특수기능 수 용과 더불어 기존 관공서의 경직된 분위기에 서 탈피하여 견학 및 체험 기회를 높여 열린 소방서로 인식되어질 것이다. 또한 제주의 아 름다운 자연환경에 거스르지 않으며, 주위 환 경과 조회를 이루어 제주를 상징하는 이미지 를 내포한 새로운 자연 환경으로써의 소방서 로 인식되어지길 바란다.

대지분석

대지 북서쪽으로 제주 해안의 풍경이 배경을 형성하며 비양도가 한 눈에 들어오는 조망권 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면도로에 대해 역경사 인 대지는 중간 부분에서 5m가량의 급경사 가 대지를 이등분하는 유선형으로 형성되어 있어 강한 지형축을 보여 준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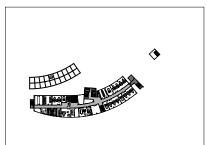
대지내 급경사에 의한 지형축은 지연환경과 맥락성을 갖는 체계로써 자연스럽게 공간의 켜를 형성한다. 이 공간의 켜는 매스 사이에 비워진 공간을 형성하여 공간의 깊이와 풍부한 외부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대지의 절·성토랑을 최소로 하게 하여자연환경과 융화되게 하며 레벨치를 적극 이용한지하층 형성은 공간 활용의 내·외부소통을 꾀한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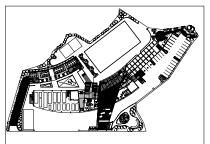
소방활동, 소방행정, 민원 3가지 영역으로 기능 분리 후 유사 기능은 연계시켜 업무효율을 증대 시킨다.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출동 동선을 명확 히 분리시키고, 주 기능별로 동선을 분리하여 명 료한 동선체계를 형성하였다.

입 ·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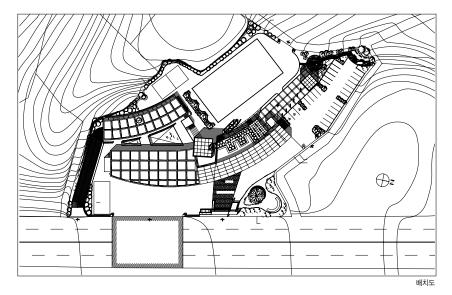
제주 해안에 가볍게 떠있는 배처럼 대지 위에 가볍게 얹혀져 있는 이미지를 알미늄복합패널이라는 주외장 재로 표현하고, 노출콘크리트로 균형과 안정감을 부 가하였다. 또한 긴 매스에서 느껴질 수 있는 단조롭고 답답함을 매스의 일부분을 비움으로써 해소하며, 1층 의 일부분을 비워두어 자연조망권을 기존 상태로 확 보함으로써 기존 자연의 흐름을 대지내로 유입시키 고 보존시켜 기존 랜드스케이프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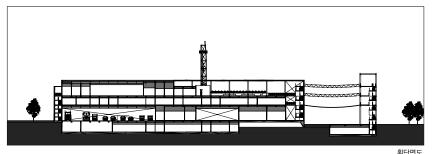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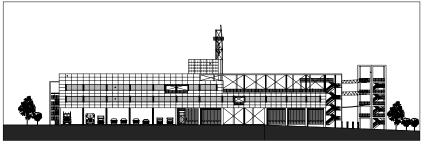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정면도

<u>남양주농업공원</u>애그로 파크

Agro Park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도사업 전환을 위한 새로운 공간 조성과 농업의 소중함, 우리생활과의 연관성, 볼거리, 배울거리, 쉴거리 제공 등 지역발전에 기어코자 남양주농업공원(에그로 파크) 조성을 위한 현상설계경기 결과 당선작으로는 다주종합건축사사무소, 우수작으로는 유앤이종합건축사사무소안이 각각 선정, 발표되었다.

당선작 / 다주종합건축사사무소(유병헌)

대지위치 남양주시 진건면 시능리 92-1번지 외 6 픽지

대지면적 29,411,00m²

건축면적 3,211.60m²(기존) + 1,754.92m²(증축) = 4,966,52m²

면 면 적 $6,008.66m^2$ (기존) + $1,944.04m^2$ (증축) = $7,952.70m^2$

건폐율 16.89%

용 적 률 25.57%

구 조 농업테미관-철근콘크리트조, 식물원-철골+스페이스프레임

외부마감 농업테마관-18mm 복층유리+화강석 버너구이 식물원-상부: 18mm 복층유리, 하부: 화강석버너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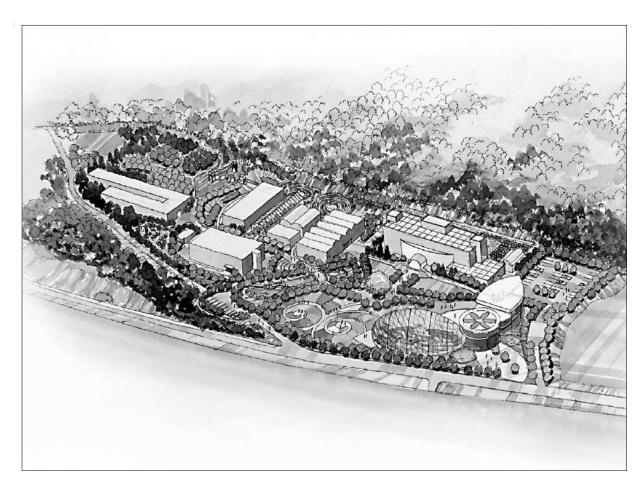
주차대수 41대(기존)+19대(신설)=60대(장애인 3대, 대형2대 포함)

설계팀 신희철, 조인기, 변효선

배치계획

농업공원를 조성 할 시설구상

- 먼저, 철저히 차별화된 농업관련 테마공원 으로서의 조성
- 농업과 관련된 테마 즉 흙, 물, 빛을 주제로 한 테마별 공간계획을 수립
- 기존시설과 적극 연계한 주제별 정원을 조성
- 새싹 형태의 농업테마관을 조성하여 내부에 다양한 체험, 관람프로그램을 도입한 전시 온실계획을 수립
- 다음은 사계절 이용을 전제로한 관광지 환경 조성
- 개화시기인 4~9월동안의 시설이용으로는 프로그램이 부족
- 봄철에는 이생화원, 약초원 등 계절별 초화 류원을 주 이용대상
- 여름철에는 물 요소를 도입한 생태연못, 계



류 및 인공폭포

- 기을철에는 전시괴수포, 곤충놀이터, 미로정원, 장담그기 체험장
- 겨울철에는 농업테마관 및 곤충관을 활용하여 사계절 이용가능한 환경조성
- 탐방의 다양한 접근 환경 제공
- 모든 탐방치량은 주치장 이용을 전제
- 보행접근로는 진입광장을 통해 주 동선계획을 수립
- 농기계 등의 서비스동선은 외곽을 통해 접근토 록 유도
- 다양한 계층유도를 위해 체험, 교육, 놀이 공간 의 조성
- 농업과 관련된 요소를 주제로한 물, 빛, 흙의 정 원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 관련된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

-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미로놀이, 곤충 놀이터 를 조성하여 가족단위 유.소년층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
- •마지막으로 기존시설을 적극활용한 전시 프로 그램 개발
- 농기계 보관창고를 활용하여 농기계전시장을 조성하여 첨단 장비를 전시하고
- 곤충을 주제로한 곤충생태관을 조성하여 전시는
 체험-학습과정을 재미있게 체험토록하고, 주변
 의 시설과 연계하여 그 효과를 증대

주제별 공간구상

- 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공간디자인 개념을 농작물의 생장 모습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여, 그 형태는 뿌리와 줄기, 그 줄기에서 자라나는 잎새와 생장점부위의 꽃의 형상을 표현

- 동선형태는 수맥의 형태를 모티브로 주동선과 보조동선을 계획을 수립
 - 주제별 공간구상은 크게 생명의 원천인 및 과물 그리고 흙과 인간을 주제로 테마별 정원의 요소를 담고지함.
 - 빛의 정원에는 빛에 의해 꽃이피는 아생화원,
 계절별 초화류원, 약초원, 염료식물원, 토종식물원
 원 등을 조성
 - 물의 정원은 생태연못과 계류, 벽천 등이 조성
 - 흙의 정원에는 옹기가 놓이는 장담그기 체험장, 전시포, 과수포, 곤충놀이터 등이 조성
 - 인간을 주제로한 공간은 자연적 요소와 인간의 조화를 테마로해서 농기계전시장 및 체험시설, 농업 테마관 등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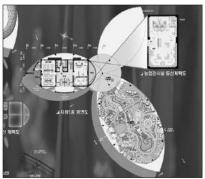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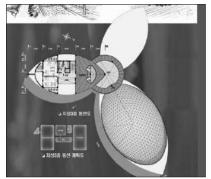
정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배치도

기고FEATURE

김 낙 동 (주)동양건축사사무소 ♭y Kim Nak-d●ng, KIRA

현상설계 유감

- 현상설계 왜곡실태로 비춰진 건축사의 현실 그리고 지독한 바람 Regrets on Design Competitions

필자는 최근 G시에서 공모한 '중앙도서관건립 설계경기'에서 상식이하의 부당한 경우를 맞으며 이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기에 회원간 의견을 공유하여 너무나 미약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며, 회원간의 신뢰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에서 글을 정리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현상설계가 갖는 원천적 의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38조',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건설교통부)',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건축가협회)' 등에서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현상설계는 새로운 신인의 데뷔, 상호 작품세계의 교류,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며 건

축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많은 건축인들이 정열과 시간 그리고 경제적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건축계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건축인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설계경기가 진행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처에 요구하여야 할 건축계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축사 스스로 공정한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계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5항' 근거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43호)'이 제정 되어져 있으며, 제1조(목적)에서 "이 지침으로… 건축 설계경기에 대한 시행절차와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경기질서를 확립하고, 건축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건축 문화의 발전과 공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라고 명문화하여 설계경기의 공정한 경기질서 확립을 명백히하고 있다

현상설계의 왜곡과 악용 (G시 '중앙도서관건립 설계경기'사례를 중심으로)

G시 '중앙도서관 설계경기' 당선작의 문제점

- 주요 결격사유
- 연면적의 700여 평(23%) 이상 초과(연면적 3,200평 이내 설계 조건 위반)
- 지하층 2/3정도 노출에 따른 지상5층 규모(지상4층 이내 설계 조건 위반)
- 부지 내 기존 콘크리트수로(2.0m×1.5m×240m)의 철거 및 신설(부지 내 수로의 보전 조건 위반)

당선작의 실제면적 · 실제층수와 상이하게 기록되어진 설계 설명서의 의도적 오류를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시가 어떠한 합리적 검증절차도 없이 부당한 당선작의 자료만을 판단근거로 제시하며 위반사실이 없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을 펴는 불가해한 행정처리로 일관하였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로부터 연면적 647.33평 초과(기둥중심 산정), 지하층 불인정(지하다층 지상4층이 아니라지상5층) 등의 공식적 확인사항을 제시하자 G시와 Y건축사(당선사)는 현상설계는 디자인 설계일 뿐으로 면적과 층수차이는 실시설계에서 조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라는 말 바꾸기로 상식이하의 궤변을 펼치고 있다.

이울러 현재의 당선작을 건축법과 당초의 설계조건에 맞

추려면 당선작 계획안의 대폭적인 수정 또는 예산(예정공사비:17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비의 상당한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이는 당선작은 없고 당선사만 존재하는 웃지 못 할 초유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상설계 진행과정의 불공정성

- 발주처(G시)의 무지 또는 음모
 - 심사과정에서 기본적인 건축법(층수, 면적 등) 및 공모규 정(수로 보전 등) 위배 사항의 확인과정 간과 : 심사 진행 전 발주처는 기본적인 건축법과 주요한 공모규정의 준수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구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 하였고, 심사위원회 또한 이를 소홀히 함으로 부당한작품이 당선되는 잘못된 결과를 초 래하였다.
 - 당선작 발표 후 당선작의 주요 결격사유 지적에 G시의 비논리적, 비상식적 대처: 필자가 지적한 당선작의 주요한 결격사유 관련하여 G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대상이 되어진 당선작의 자료만을 근거로 당선작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략)—당선작의 설계 설명서 개요 내 시설면적 표기는 지침서상 면적 기준 이내이고—(중략)—"라는 비 객관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G시 스스로의 무지함 내지는 당선작을 낸 건축사와 부정한 연결고리를 의심하게 하는 정표라 하겠다.
 - 수상작(당선작, 장려작) 포상의 반이성적 진행: 이의제기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사와 서둘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비정상적인 당선작 지키기 행태로 시종일관하는 G시는 또다른 이면의 의혹마저도 의심하게 한다. 더욱이 장려작으로 선정된 건축사에게는 포상금만을 온라인 입금하였고, 정작우수작으로 선정된 본 건축사에게는 어떠한 공식적 통보나시상(상금)도 되어지지 아니함은 발주처의 치졸함을 여실히 드러냄이다.

• 건축사의 사욕과 도덕성의 상실

- 건축사 헌장 중 '건축사는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한다', '건축사는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에 협동하여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라는 항목 등이 있다. 건축사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업무에 임

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건축사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Y건축사는 지나친 물욕으로 사회적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을 포기하고,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의심하게 하는 몰상식한 주장을 펼침으로 회원과 협회 그리고 선량한 사회에 심각한 해약을 끼치고 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對 발주처(발주처의 힘)

현재 G시는 자신의 오류를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오히려 G시 스스로의 그릇됨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세비와 막강한 조직력으로 자기방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G시 2005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200여 억이 투자되는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는 당연히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견사항이 쟁점화 된 어느 순간부터 표면상으로는 모든 창구를 도서관장(과장급)에게 넘김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비겁함을 연출하며, 매순간 유치하고 앞뒤가 맞지 아니한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당한 행정을 펼치는 G시의 재력(혈세)과 조직의 힘은 정의라는 사명감만으로 개인이 대적하기엔 모든 면이 만만치 아니하고 개인의 출혈은 너무나 크고 아픔에, 미약한 스스로와 건축사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

對 건축사(건축사 아닌 건축사)

건축사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공인이다. 건축사는 전문가적 소양과 도덕적 가치관을 어떠한 회유(물욕)와 압력에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스스로에게도 보다 엄격하여 회원간은 물론 국민에

게서도 신뢰받는 모범 집단이 되어짐이 우리(건축사 개인과 협회)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기초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현혹되어 건축법은 물론 회원간의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행태를 펼치는 Y건축사를 보며 그와 같은 건축사란 직업을 가졌음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협회의 공식적·객관적 의견을 무시함은 물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회원간은 물론 사회의 보편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건축사마저 동료회원으로 포용하여야 하는지 자문하여 본다.

對 사법부(비전문가(판사, 변호사 등)의 법해석)

발주처인 G시와 대화가 무의미함으로 법원에서 진실과 정의 의 의미를 구하기로 하고, 유사 사례분석 결과 현상설계상 분쟁 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의 발주처(시·군·구청)와 개인(건 축사)간의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사인간의 계약관계(분 쟁)로 분류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되어질 수 없음과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승소확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함이 파악되어 실망을 금치 못하였지만 수치적으로 너무나 명백한 부당사실(실격사유) 등을 확인하였기에 행정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분명 발주처가 무소불위의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과 당선작의 부당사실에의 확신으로 정의로운 법해석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 으나 결과는 행정(효력집행정지), 민사(가처분)소송 모두 시시비 비를 가림도 없이 기각 당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이는 결국 현상설계에서 부당한 작품이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작으로 선정 되더라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발주처, 민법, 행정법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 줌으 로 보편타당한 질서와 사회적 정의 수호는 부질없는 공염불에 그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당한 재판 결과에 대하



G시 중앙도서관 설계경기 / 당선작



G시 중앙도서관 설계경기 / 우수작

여 항소하기로 하고, 남아있는 본안소송에 더욱 충실하기로 함 자 함이다.

은 스스로에의 사랑을, 옳음을 행함에의 신념을 강하게 지키고

건축사로서 지독한 바람

진정한 협회

협회는 회원에 의하여 존립되고, 회원을 위하여 존립 되어진다.

회원간의 신뢰와 질서를 해하고 협회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에 대 해서는 더욱이 그러한 행위자가 우리회원일 경우는 단호하게 대처함 에 주저함이 있어선 아니 될 것이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우리 건축 사들은 너무나 참담한 현실과 사회적 약자로 많은 부대낌을 당하였 고, 회원들 스스로도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경쟁과 불공정한 거래 관 행으로 건축사로서 가졌던 희망의 청사진들은 대부분 접힘을 당하고 있다. 이처럼 사면초가의 어려운 상황들에서 금년 초 절대다수의 성 원 하에 새롭게 출범한 우리 협회에 진실구현·정의실천 이라는 절 박한 희망을 가져봄은 지나친 기대일까?

공인으로서의 건축사

건축사는 많은데 진정한 건축사는 얼마나 되는가?

40대 중반의 중견 건축인으로서 16년 전 느꼈던 건축사로서의 위상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면 심적 물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용기 없는 전문인으로 전락되었음을 절감하게 된다. 더욱이 건축사 로서의 상대적 유리한 입지를 점한 일부 건축사들의 비겁한 일탈과 공개적 불법에는 할말을 잃고 전문가로서의 수치심에 몸을 가누기 조차 힘이 들 정도이다. 우리 건축사들은 사회적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도덕성과 정의를 전문지식 구현보다 우선함이 기본이 아닐까 한다.

자리 잡기

비록에 부정한 G시·부도덕한 Y건축사를 상대로 한 진실 구하기 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몸짓이라 하여도 40여년 지켜온 진 실과 정의에의 믿음 그리고 스스로에게의 사랑으로 옳음을 행함에 사력을 다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진실이 받아드려짐은 개인적인 영예 에 앞서서 우리 건축사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고, 잘못된 관행과 상식 을 벗어난 이상한 법질서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단초가 되어질 것 이리라 확신하여 본다.

건축사와 협회의 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마음을 다잡으며 정의로 운 건축사들의 행동하는 양심에 희망을 담아보기로 한다. 固



G시 중앙도서관 설계경기 / 장려작



G시 중앙도서관 설계경기 / 장려작

077 0 5 0 6 대한건축사협회

기고FEATURE

<mark>김 향 희</mark> 건축사사무소 좋은집 ▶y Kim Hyang-hee, KIRA

변화의중심에서다

- 제1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를 마치고 Standing in the Center of Change

오늘은 전년도 대회에서 차기 대회지로 선정된 고도, 현재가 공존하는 미래의 도시 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여성건축사회(회장 오경은)가 주최하는 '제11차 전국여성 건축사대회'가 개최되는 날(2005. 5. 27)이다.

분주하게 오전 일괴를 마치고 유난히도 맑은 날씨와 함께 대회지로 출발하려는 순간 현장에서 다급함을 알리는 연락이 필자의 발목을 잡는다. 잠시 지연되는 대회 일정이 걱정됐지만 해결하지 않고 출발한다면 일정 내내 불편함은 불 보듯 뻔한 터라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원만한 해결을 본 뒤 가벼운 마음으로 개최지인 수원으로 향했다.

늦어진 출발로 인해 서울에서 출발한 팀과 만난 장소는 점심식사가 마련된 곳이었다. 이미 시작된 식사시간인지라 가벼운 눈인사만을 건네건만 서로들 환한 미소와 함께 반가움을 전한다. 마치 어제만난 친구처럼….

간단한 일정소개와 함께 찾아간 첫 행선지는 우리의 전통정원 '희원'이다.

이곳은 지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의 전통정원의 멋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으로서 호암미술관이 정성을 기울여 가꾼 곳이다. 정원과 건물이 숨겨지고 드러나는 유연한 멋을 통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한국정원 본연의 미의식에 천착하여 이를 고스란히 되살려내려는 의지가 곳곳에 숨어 있었다.

전통정원 조형미의 근원인 '차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옛 지형을 복원하고 석단, 정자, 연못, 담장 등 건축적인 요소와 석탑, 불상, 벅수,

석등, 물확 등 석조물들이 교묘하게 배치되어 그 정서를 더해준다. 일정상 다음 행선지로 급히 가야하기에 서둘러 나와야함이 못내 아 쉽기만 했다.

우리의 전통정원이 주는 단아함과 고요함을 만끽하기 위한 조용한 여행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옮겨본다.

바쁘게 찾은 다음 행선지는 연화장이다. 앞서 받아본 책자를 통해 장묘시설임을 알고 찾아간 곳이라 경건함을 한껏 갖춰 설계자 (건축가협회 경기지회장 김동훈)의 안내에 의해 처음 만난 것은 설계자가 "관계자의 배려로 화룡점정 할 수 있었다."는 조형물이었다.

이승과 저승의 윤회 의미로 계속적인 원의 형성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조형물인 위령탑에서 시작된 축은 화장장, 장례식장, 납골 묘와 납골당으로 이어져 대지의 축에 순응하며 배치되었고, 이는 지, 수, 화, 풍의 배치논리로 형태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 한다.

또한 전통풍수사상에 의하여 화장장은 남향에 배치하였고, 북향 재배에 따른 장례식장을 배치함은 물론,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공 존하는 수벽공간과 납골당의 원형평면은 설계자가 사후세계의 평 등관계를 강조하는 의미라 한다.

더불어 장묘문화의 인식변화와 함께 종합장제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하 납골당과 함께 전시관 및 공연장이 어우러지는 공원화 형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도 잊지 않았으며, 이 프로젝 트의 완성을 위해 협조해 준 관계자에 고마움을 전했다.

점점 더 수요의 필요성은 인지되나, 인식의 변화가 어려운 현실에서 큰 도움을 주었던 일정이라 생각든다.

행사와 함께 1박을 위해 찾아간 숙소는 주변에 푸름이 가득한 한적한 곳이었다. 빠듯한 일정만 아니라면 한껏 느끼고픈 정취를 다 뒤로한 채 서둘러 실 배정이 이뤄지고, 곧바로 이어진 여성건축 사회 오경은 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1차 전국여성건축사대 회가 시작되었다.

대회의 축하를 위해 찾아주신 내빈 인사소개와 축사, 격려사, 환영사는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서 여성이 여성답다는 강점을 바탕으로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여성건축사로서, 그 시대 생활양식의 집합체인 건축물에 창조자의 역할을 맘껏 발휘하여 질 높은 건축사이기를바란다는 내용이며, 이는 6월 24일에서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건축사대회에서도 그 위상을 높이자는 것으로 집약되었다.

이어 전년도 대회 때 토의 안건이었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건은 지역적 여건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바 수원 중앙교회 농아장애인 봉사센터에 후원금 전달로 그 뜻을 같이 하였다.

만찬과 함께한 개회식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는 언제나 든든한 우리의 버팀목이신 지 순선생님께서 격려사를 통해 "나올 수 있는 날까지 나와서 발전하는 여성건축사의 길을 지켜보겠노라"는 말씀으로 큰 용기와 힘을 주셨으며, 여성건축가협회 박연심 회장님의 축사 또한 각 분야의 여성 건축가와 여성 건축사가 뭉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으로 그 힘과 용기는 배가 되었다.

전년도 경과보고에 이어 감사패를 김회순, 김화자 건축사에게, 기념패를 김화자, 문숙경 건축사에게 전달하며 작지만 고마움을 전달하였다. 이어 토의안건에서는 올해로 임기가 만료된 임원개선안이 상정돼 전임 부회장이신 박영순 건축사가 신임회장으로 취임함과 함께 지역회원간의 활성화를 위해 충북지역 장마리아 건축사가감사로 선출되었으며, 차기년도 대회는 서울에서 개최하되 매년 행사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매년 5월 4째 주로 그일정이 확정되었다.







전통정원 희원에서



연화장 위령탑







상사체크 _ 1

화성헹궁 - 2

화성헹궁 - 3

밤늦게 시작된 대회 1일째, 마지막 일정은 심리학 강의였다. 장소를 어렵게 찾아 도착하신 강사님의 열정은 지쳐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강의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외부통제(자주)에 의한 바보가 되지 말고, 내 주변인들에게 좀 더 능동적으로 통제하여 서로 도우며 잘 살아가라는 이론의 집약을 9가지로 건강관리, 시간관리, 가족의 소중함, 자원과 재능, 재정, 인 관관계, 환경, 가치추구, 믿음 등의 실천과제와 함께 정리하며 아쉬운 강의를 마쳤다.

너무 늦은 시간에 마쳐진 1일째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숙소 곳곳에서 두런두런 피어나는 이야기소리와 함께 서서히 내일이 밝아오고 있었다.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 산책을 위해 밖으로 나와 밤새 나누웠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맴도는 듯한 건물을 바라보며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며 잠시의 여유를 즐겨본다.

이어 아침식사 장소로 이동, 꿀맛 같은 얼같이 갈비탕으로 거뜬 하게 아침을 해결하곤 화성행궁으로 이동하면서 대회 이틀째 일정 이 시작되었다.

행궁 진입가로에 범상치 않게 철거되는 건축물을 보며, 무슨 일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착한 행궁 입구에서 그 답을 쉽게 찾을수 있었다.

도시계획에 의한 화성의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하나인 7,000평 규모의 공원조성을 위해 협의가 진행돼 이미 그 사업의 시작으로 철거작업이 이뤄지고 있노라는 화성사업소 도시과장인 이충영님의 안내로 한 곳 한 곳 발걸음을 옮겨본다.

화성행궁은 정조 13년 즉 1789년 수원 신읍치 건설 후 팔달산 기슭에 건립한 행궁으로 수원부 관아와 행궁으로 사용되다가 정조 18년(1794년)부터 정조20년(1796년)에 걸쳐 진행된 화성축성 기간에 화성행궁을 확대하여 최종 완성되었다.

우리나라 행궁 중 가장규모가 크고 이름다웠으며, 낙남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설물들은 일제의 민족문화와 역사 말살정책으로 인해 사라져 버렸지만, 1980년대 말 뜻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복원운동에 의해 1996년 복원공사가 시작되어 1단계 복원이 완료되었으며, 계속적인 복원사업 진행이 이뤄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세계문화 유산이다.

또한 화성은 동서양 군사시설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 현안, 치 등의 방어적 특성이 남아 있으며, 약 6Km에 달하는 성벽 안에 4개의 성문이 있어 각기 모양과 디자인이 다른 다양성을 지 니고 있다. 성벽을 따라 걸으면서 하나하나 느껴지는 조상의 숨결 에 잠시나마 숙연해진다.

복원사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관계자들에게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며, 또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 아낌없는 역량과 수고를 해주신 황정복 건축사님을 비롯한 수원지역 건축사 회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점심식사가 끝나고 이제는 점점 막바지에 다다른 대회일정과는 다르게 제법 익숙해진 회원간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간다.

해단식 장소에, 벽을 깨버린 여성의 힘이 느껴지는 조형물 앞에서 "우리가 진정 깨야하는 벽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제를 남겨보며 여전히 아쉬운 일정을 마쳐본다.間

화성전경

김 수 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by** Kim S●●-am

리모델링 측면에서 본 장수명(長壽命) 주택의 설계와 방향

Directions and Design for Long life Housing in view of Remodeling

배경

세계적인 지구환경보전의 움직임과 함께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건축이 일반적인 개념으로써 자리 잡고 있다. 지속가능한 건축을 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겠으나 핵심은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을 절약하고 나아가 건설 및 사용 중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은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자원을 양호한 상태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원과 건설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억제(Reduce)하고 자재나 부품을 재사용(Reuse)하며 재료는 재생활용(Recycle)할 수 있는 설계와 시공 및 부품의 관리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자원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개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지으면 장기간 사용하고, 사용부재 및 부품은 부품화 등을 통한 재사용이 용이하도록 하며, 재료는 해체할 때 혼합물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용이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택은 신축한지 20년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재건축되어 충분한 강도와 수명이 남아있는 많은 주택이 해체로 인한 자원낭비와 대량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부에서는 자원낭비와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지향하는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리모델링 지향정책에 따라 소수의 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와 시공적인 측면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어렵고 경비도 신축주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정도로 많이 소요되며 쓰레기 배출량도 많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모델링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기존 공동주택의 건설당시에 리모델링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음과 동시에 기존 건물의 설계도면 및 이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구조체만 남기고 전면 철거하여 증축과 보수 · 보강하고, 내 · 외장 설비를 전면 재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 따른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현재 신축하는 공동주택도 이러한 문제점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동일한 문제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성 이 있다.

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측면의 특성 및 한계점과 방향

기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특성과 한계

국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성행 다음에 시작된 여파로 말미암아 유지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성능개선을 실시한다는 개념보다 다분히 면적증축을 통한 재산증식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신축과 동일한 공간수준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부분적인 개선보다는 전면철거 및 가능한한 법규 범위 내에서 전용 면적을 증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법은 외인이파트와 옥인이파트 리모 델링 사례에서 2호 1화 통합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골조만 남기고 전 면철거한 상태에서 기존 골조의 보수 및 보강과 전용면적을 증축하여 내·외장과 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리모델링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세대의 전용면적 증축은 기존 구조체의 부분적인 보강 혹은 증축 부분을 신설하여 신축공사와 같은 구조체의 모습을 갖춘 후 설비공 사, 내·외장 공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철골 기둥과 보를 사용한 건식공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습식공법의 일체식 구법을 취하고 있으며, 내장벽체부분에 서는 스틸 스터드 위에 석고보드를 붙이는 건식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철거부분의 내장벽체 공사, 화장실 주위, 닥트 등에서도 습식 공법이 우세하다.

부분적인 증축시의 콘크리트와 접합부분의 틈새를 메꾸는 작업과

물을 사용하는 공간(화장실, 부엌 등)의 위치이동으로 인한 기존 물사용 공간의 파이프가 관통하는 부분을 메꾸기 위한 습식공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벽체나 파이프 샤프트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고 있다. 즉, 전면 리모델링이나 설비교체, 내외장재의 교체 등리모델링 기술 또한 일반적ㆍ재래적인 방법의 현장철거와 구조체 속에설비배관과 배선의 재설치, 점검구가 없는 등 기존의 리모델링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및 시공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리모델링 기술자체가 반드시 특별해야 한다거나 첨단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래기술 혹은 일반적인 기술로 접합방법 및 시공순서 등을 약간만고인해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리모델링이나 보수 및 보강, 사용시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는 리모델링 기술은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실시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점 공사하기가 어렵고 공기가 길어지는 등 비경제적이어서 리모델링하기 어려운 설계나 공ㆍ구법등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공간의 확장이나 전용공간의 개수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환경친화적인 요소 혹은 고령자나 장애자를 고려하거나, 단지나 주동의 주변 환경적인 차원이나 외관의 다양한 고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흡하며, 기술적인 측면도 건식화, 부품화, 구·공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아직 개선의 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신축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측면의 한계

기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한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신축 공동주택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공동주택의 건설은 아직 「빨리, 값싸게, 많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했던 시대의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 머물러 있으며, 주택의 양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주택의 질적인 향상과 수명연장,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공동주택은 조기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수준도 낮고 리모델링의 대응에도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경제성과 신축시의 요구대응에만 우선하여 공동주택은 내력벽식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실시한다하여도 공간구 성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자원절약을 위 한 장수명 주택을 지향하면서 향후 공동주택은 100년 이상의 존속기 간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 기간중에 거주자 변화와 거주자의 요구변 화는 시대변화 및 기술변화 등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 되어 현재 유행하는 형태와 구성이라 하더라도 20~30년 주기로 발 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리모델링 시의 요구와 일치할 수 없게 될 것

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명이 서로 다른 자재나 재료를 혼합하여 구성하고 있어 수명이 짧거나 파손이 되는 부재가 있을 경우 교체 및 교환이 어렵고, 내장건식벽체의 온돌층 속에 매입, 창틀이나 문틀 등의 앵커나 콘크리트속에 매입, 설비배관이 구조체 속에 매입되는 일체식 구·공법의 일반화로 인해 리모델링 공사부분이 불확실하게 되어 리모델링이 불필요한 부분도 동시에 해체해야 하는 등 공사범위가 불확실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공기의 연장과 비용이 증가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용급배수 샤프트의 전용공간내 위치나 배관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공간 및 점검구의 부재 등으로 말미암아 리모델링과 유지관리가 모두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가변,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를 어렵게 하는 구조체와 내장, 외장, 설비 등의 얽힘현상은 국내 공동주택의 설계 및 시공에서 개선 되어야할 문제점으로써 하루 빨리 전환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림 1 국내 공동주택의 문제점

우리나라 리모델링의 한계점 및 신축의 방향

우리나라의 신축 및 기존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습식공법의 벽식구조 위주로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시공하는 일체식 구법이다. 설비를 구조체 속에 매입하는 시공 방식으로 구조체와 내외장, 설비부분의 얽힘현상을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설계와 시공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으며, 장수 명화를 위해서는 공간의 가변성과 리모델링 용이성 및 유지관리의용이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수명 주택의 개발 장애요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장수명 주택이 개발이 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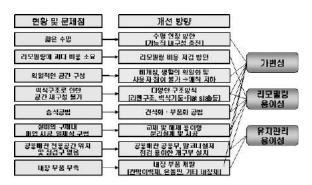


그림 2. 국내 공동주택의 문제점과 방향

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장수명 주택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식이 미흡하다. 지금까지 부족한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에 치중해 왔고 민간업체의 분양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어떻게 하면 분양이용이한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을 뿐 어떻게 오래 사용하면서 품질이 좋은 주택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건설업체는 분양이 잘되고 분양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이지 건설한 주택이 몇 년 동안 품질이 보증되고 존속할 수 있으며, 관리하기 쉬울 것인가에 대한 사항은 관심이 없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수명 주택은 환경보전과 더불어 고품질의 주택재고(housing stock)를 축적할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는 자산가치의 항상과 더불어 자신의 개성과 요구에 맞는 주택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의식이 극히 낮은 상황이었다.

둘째, 현재의 벽식구조 시스템이 시공상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어렵다. 현재의 주택, 특히 공동주택은 20년 이상 벽식구조의 습식구법을 취해옴으로서 가장 경제적이고 익숙한 구조로 자리잡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어려워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양하고 변화하는 생활과 요구에 용이하게 대응할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구조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시공시의 경제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건축물의 경제성은 생애비용(life cycle cost)으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업체의 분양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생애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기술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벽식 구조는 내력벽 뿐만 아니라 외벽도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기 때문에 내장과 외장은 문과 창문을 제외하면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하여 내장 및 외장부품의 건식화 및 부품화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며 개발의지도 없었다. 따라서 시스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장과 외장의 개발이 필수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배관이나 배선 등의 수명이 짧은 부품을 구조체나 경량콘크리트 속에 매입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체와 내·외장은 앵커나 용접 등을 사용한 매입 혹은 일체식 접합방법으로 분리, 교체, 점검이 어려운 기술이다.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수직배관과 같은 공용설비부분이 주호 내의 전용부분에 배치되어 있어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이 물리적, 공간적으로 얽혀있다. 또한 설비배관이나 외벽, 복도나 계단 등 어디까지가 공용부분이며 전용부분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다섯째, 정부차원에서 장수명 주택에 대한 방향수립이 미흡하며 지원제도가 미비하다.

장수명 주택과 관련하여 '리모델링을 고려한 설계기준'이 고시로 공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리모델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수명 주택으로 확대하여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리하고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여 실제로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성과 현실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수명화의 요건과 방법: 어떻게 장수명화할 수 있는가?

주택의 장수명화 요건

장수명 주택으로서 갖추어야할 하드웨어적인 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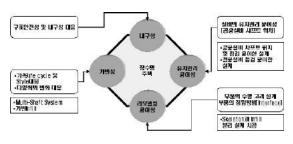


그림 3. 장수명 공동주택의 요건

첫째는 주택을 형성하는 구조체의 내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의 장수명화의 조건은 구조체가 튼튼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능을 갖추는 것에서 출발한다. 구조체가 부실하면 장수명은 처음부터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본 장수명(내구성)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둘째, 주택을 구성하는 공간의 가변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구조체의 물리적인 수명만 길다고 하여 건축물이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이 존속하는 동안 사회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주택의 기능이 변화하고, 적용되는 기술이 변화하고 거주자가 바뀌고 거주자의 생활이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은 본래의 역할을 수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물리적인 장수명만으로는 건축물의 장수명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능적·사회적 측면의 장수명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기능적·사회적 장수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변성이 풍부한 공간으로써 Infill의 다양한 변화를 내포할 수 있는 공간의 수용력을 갖추어야 한다. 가변성은 주호내, 주호규모, 용도의 가변성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정도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고려한다.

셋째, 부재와 부품, 기기의 갱신성을 고려하여 골조와 내장·외장·설비 등이 분리되도록 해야한다. 공간의 가변성이 고려된다 하더라도 공간을 구성하는 내장이나 설비부품이 가변성을 지원하지 못하거나 부재나 부품의 성능이 저하되었을 때 교체나 교환을 할 수 없으면 건축물 부분의 성능이 저하되고, 부분의 성능저하는 건축물 전체의 성능저하를 초래하게 되어 장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축물은 수명이 다른 다양한 부재나 부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수명이 짧은 부재나 부품으로 인하여 전체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나 부품과 기기의 가능및 성능이 저하되거나 혹은 파손되었을 때 교환이나 수리를 용이하게하거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갱신성을 갖추어야한다. 효과적인 갱신성을 달성하기 위한 분리는 수명의 장단, 의사결정, 이용형태의 관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재 및 부품, 기기 등의 기능저하나 성능저하를 늦출 수 있 도록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다. 주택의 부 재나 부품의 점검과 유지, 보수 등 통하여 성능저하를 위한 예방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장수명화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구분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면서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요건과 더불어 도시의 요소로서 도시공간을 배려하여 오랫동 안 친근한 주택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지역에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하드웨어적인 요건을 효과적 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인 체제와 원칙(rule)을 정비 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수명 주택의 계획 및 설계 수법

장수명 주택을 계획 및 설계 수법은 장수명화의 여건에 따라 분류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조체 등의 고내구성 확보

- 구조체의 안전성, 내진성, 차음성 등의 기본적인 성능과 더불어 내구성 등을 확보 한다.
- 구조체의 성능을 높여 고품질을 확보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체는 미복두께를 충분히 확보하고, 철골조 구조체는 충분한 방식처리 및 방·내화를 고려한 피복처리나 마감을 실시한다.
- 옥상 방수 등의 구조체의 성능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의 내구성 을 향상시키다.

2) 공간구성의 가변성 확보

- 사회변화와 거주자의 요구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넓이의 확보와 더불어 구조체 공간의 가변성을 용이하게 하는 수용력 (capacity)을 높여 다양한 주호내부 공간구성을 가능하게 하 며, 내부공간의 크기 조절과 위치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Infill의 조절 및 위치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수법을 확보한다.
- Free plan이 용이하거나 다양한 실 배치 변화형(variation)을 만들 수 있는 구조시스템을 설계한다. 가변성에 제약을 주지 않도록 다양한 실 배치를 검토하여 구조체의 크기와 위치를 설정하고 기둥형태가 주호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설비공간도 가변성의 정도—물을 사용하는 공간 고정, 물을 사용하는 공간일정한 범위내의 이동 자유, 물을 사용하는 공간의 자유로운 이동가능—를 고려하여 타 부분의 가변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크기와 위치, 배관공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MC설계방법의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천장고나 층고 등을 고려하여 높이방향의 치수도 가변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구조방식에 따라서는 보의 형태가 주호내에 노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한다. 또한 실 배치의 변화에 따라 전용 설비배관이나 배선을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2중바닥, 2중척, 2중천장을 전층혹은 일부분 설치(일부분 Slab down)하거나 구배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배관이나 배선을 바닥의 방통부분이나 벽체의 하부 혹은 천장부분에 설치 가능성이나 설비부분을 설정(zoning)하여 일정 부분에서만 실시하는 것 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가동칸막이시스템과 연계성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체적인 가변성을고려하여 천장수납, 바닥수납, 1.5층 주호, 2층~3층 주호 등의실현이 가능성도 검토 필요하다.
- 가동칸막이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위치를 지정(인서트 등의 매입 이나 천장내부 보강 등)하거나 입주후 재배치 등이 가능하도록

배치의 rule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 외벽의 크기나 위치도 가변성에 제약을 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실배치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크기나 위치를 설정하거나 한단계 더 나아가서 내부공간의 배치변화에 대응하여 외장벽체의 크기나 위치를 변화할 수 있도록 외장의 재료, 구법, 형태, 디자인, 부품화 등을 고려한다.

3) Infill의 갱신성 확보 수법

- 갱신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법은 구조체와 내장·외장·설비부분을 분리하여 설계 시공하는 것이다. 분리를 위한 구분은 수명(수명이 긴 부분과 짧은 부분), 의사결정(집단과 개인), 이용형태(전용과 공용구분) 등에 따라서 Support (skeleton)와 Infill부분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명의 관점은 수명이 긴 구조체 속에는 수명이 짧아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내장, 외장, 설비부분을 매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명이 긴 구조체의 성능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보나 슬래브를 관통해야 할 경우는 제외). 의사결정의 관점에서는 개별 입주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과 주동 거주자 전체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부분을 분리하여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호 내부의 내장과 설비를 분리시키도록 한다. 이용형태의 관점에서도 개인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전용부분은 공용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시공순서와 갱신시기의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설계를 실시한다. 내구성의 관점에서 수명이 긴 구조체와 수명이 짧으면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하는 수명이 짧은 부품이나 부재의 등급을 설정하여, 수명이 긴 부품을 먼저 시공하고 수명이 짧은 순서로 배치한다. 수명의 차이를 고려하여 수명이 짧은 부품의 교체시에 수명이 긴 부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짧은 부품을 몇 회 교체할 때 긴 부품의 교체시기가 되면 동시에 교체할 수 있도록 갱신시기의 일치(matching)에 대하여고려한다.
- 해체와 탈착이 용이한 접합구법으로 설계한다. 구조체와 외장의 접합, 구조체와 내장의 접합, 구조체와 설비의 설치 등의 경우에 앵커와 용접 등으로 외장이나 내장을 구조체에 설치하는 것 등 의 교체나 해체가 어려운 접합방법을 지양하고 볼트나 스크류 등으로 교체나 해체가 쉬운 접합구법을 고안하여 사용한다.
- 부품을 많이 활용하거나 건식재료를 활용한 건식구법을 지향하여 용이하게 보수, 교체,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출형 콘센트, 걸레받이 콘센트, 돌림띠 등의 탈·부착이 가능한 배선시스템의 검토도 필요하며, one touch형의 배관, 배선의 연결제품의 개발, 활용도 필요하다.

4) 유지관리

- 공용부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조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점검, 보수, 교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구조체를 보호하는 외장 등도 용이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수명의 등급, 수선 사이클에 맞추어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환 및 교체시에 동반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 설계한다.
- 공용부에 공용배관 수직사프트와 수평배관공간을 배치하고 점 검구의 위치와 크기를 고려하며, 예비공간 혹은 여유공간을 확 보하여 용이하게 점검, 보수, 교체, 증설 등의 유지관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전용배관이나 배선은 공용부분에서 전용부분으로 인입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조체나 방통 등에 매입하지 않고 전체나 부분적인 2중벽이나 트렌치 형태, 노출 배관·배선로 등을 확보하여 용이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지관리 사항의 이력작성 및 유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관련성, 관리체제의 확립 등 용이하게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도 세워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수명 주택의 방향

장수명 주택을 실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수명 주택의 전체적인 요건은 기술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여러 가지 여건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장수명 주택의 방향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오픈 하우징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그 나라의 환경, 산업발전 배경, 기술 등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모습을 만들어 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장수명 주택의 기술적인 방향은 내구성, 가변성, 갱신성, 유지관리 용이성이라는 4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계수법과 요소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모델설계와 시범 건설을 통하여 기술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기술개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정비와 보완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장수명 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기술개발 방향 및 건설여건을 조성하고, 업체에서는 장수명 주택의 구체적인 요소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의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적합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만들어

업체의 기술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해 가면 업체에서 는 차별화전략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원방안은 기술개발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기술인정제도)와 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설계 건설할 경우 초기 건축비를 감안한 용적율 보너스, 융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전체적인 방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업체의 자발적인 기술개발에만 맡겨 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분양성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를 위한 기술로서 전개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익추구가 중요한 업체의 특성상 상업적인 부분에 치우쳐 차별화의 효과가 적은 기술은 배제될 가능성이 커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기준과 정책방향과 민간차원의 요소기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결언

국내 공동주택의 문제점과 장수명 주택의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술과 기준, 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 주택과 비교한 표준모델을 설계하여 설계상의 문제점과 기술의 큰 방향을 검토하여 국가기준을 작성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검토하여 기준에 대응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가기술개발과 제로서 장수명주택 및 리모델링기술개발 연구가 시작되게 되었다. 골조를 비롯한 공공설비 및 공용시설 등의 Support(Skeleton)기술과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 전용설비와 내장 등의 Infill 기술의 개발, 이들의 접합관계 기술의 개발, 공급방식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 리모델링 기술 등이 국가기술로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면 공동주택을 생각하는 개념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건설성이 중심이 되어 개발한 고내구성 주택 (CHS) 기술을 바탕으로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나, 합리적이고 진보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초기 건축비가 기존 주택시스템에 비하여 약 10%정도 비쌈에 따라 건설을 기피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장수명 주택을 지향한 최근 연구들-국토교통성 총합기술개발 프로젝트나 산업경제성의 House Japan Project 등-은 기준과 제도를 정비와 기술개발,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제공하고 있다. 근미래의 환경과 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택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장수명 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圖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03

Housing Flexibility - Design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지난 몇 년간의 연구와 출간된 글,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등 일련의 실험과정을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이란 하나의 주제로 묶어 연재 한다. 근본적으로, 이 연구 및 실험은 두 가지 틀 속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첫째는 '이론과 실무(Theory and Practice)'이고, 둘째는 '분석과 종합(Analysis and Synthesis)'이다.

건축 활동에 있어 이론과 실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에게 흔히 '건축 10서'라고 알려져 있고 현존 가장 오래된 건축 저서인 비트루비우스(Vitruvius)의 「De Architectura」의 첫 번째 책, 첫 장 '건축가의 교육에 관하여'에서 비트루비우스는 건축가의 이론과 실무능력의 겸비를 강조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을 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이론과 그 이론의디자인으로의 적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를 강조한다. 즉 디자인 작업이란 연구, 분석, 실험 행위로 구성되는 연속 과정을하나의 전체로 종합시켜 이루어지는 결정체이다. 따라서 건축 디자인은 그 근본이 되는 이론적 지식의 습득과 연구 그리고디자인으로의 실험적인 적용 및 응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 위에서 전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작업이 '이론과실무'의 상호 보완적인 작업이라는 전제 하에 연재를 이어간다.

접근 방식으로는 '분석과 종합'의 변증법적인 통합에 기초한다. 건축 디자인의 형태적 체계를 인식하거나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과 종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의 분석은 논리적인 사고나 원리에 근거한 디자인을 비교 검증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디자인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에 의거해 정련하고 개괄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종합이다. 즉, 건축가의 작품의 분석적 작업을 통해 이론과 원리를 추출하고, 이 원리들을 다양한 새로운 디자인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디자인 스튜디오 작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방법을 말한다. (필자 주)

01_ 디자인 선례 연구 - 쉰들러의 작품 '쉰들러 쉘터'에 관하여

02_ 디자인 방법론 I: 부분 대칭론

03_ 디자인 방법론 ||: 비례관계

04_ 쉰들러 이론의 논리적 응용 : 하우징의 배치

05_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실험 - 네트워크에 기초한 자바모델

06_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하우징 가변성의 실험

※ 박진호 교수는 인하대 졸업 후, UCLA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 1998년부터 미국하와이 대학교 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 인하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건축디자인 및 이론.

박 교수는 미국의 건축가 협회 (AIA) 하와이 건축상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였고 2001년도에는 제4회 아시아 태평양 건축 심포지엄 의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2002년 하와이대학교 평의회 최고 교수상 수 상을 수상하였고, 2003년에는 미국 건축대학 협의회 (ACSA) 신임 교수상 수상, 그리고 최근에는 JAABE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의 최고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Nexus Network Journal의 편집위원이며,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Symmetry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디자인 방법론 ||: 비례관계

Design Methodology II: Reference Frames in Space

서론

공장에서 기공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조립주택의 계획과 건설공 법에 있어 산업규격에 따르는 표준 모듈과 그 모듈에 따른 부재의 표 준화는 조립주택의 필수적 요건이다. 표준 규격화에 따른 조립주택의 대량생산은 일차적으로 공사기간의 단축 및 공사비 절감으로 인해 주 택의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그리고 품질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측면만 고려 한다면 값싼 주거의 양산 및 건축미 표현의 한계라는 인식에서 탈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모듈의 개념은 단지 조립주택의 효율적 디자인과 건설을 위한 기계적인 수단이 아니라 건축 디자인 전체의 구성원리 개념으로 써 한층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건축사의 이성적 디자인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구를 잘 사용한 예가 르 꼬르비제의 모듈러(The Modulor)이다. 1948년 루돌프 비코버(Rudolph Wittkower)는 "르 꼬르비제는 그의 모듈러 아이디어로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르 꼬르비제의 아이디어는 인체비를 건축의 척도로 삼는 전통적 건축 비례이론에 단순한 피보나찌(Fibonacci)의 수 조합방식에 근거하여 건축에 필요한 척도를 얻는데 기초하고 있다. 르 꼬르비제는 그의 초기 디자인에 'regulating line' 이라는 기하학적 유사성원리에 근거한 디자인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이후 이 아이디어를 The Modulor에 응용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작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르 꼬르비제는 이 원리를 그의 마지막 작품인 퍼미니 교회 (Firminy Church)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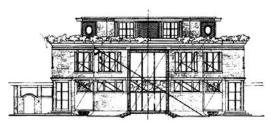


그림 1. Regulating lines in 1916 villa, Le Corbusier, 1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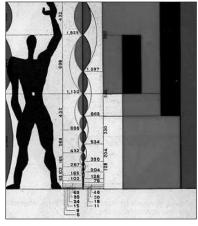


그림 2. The Modulor. Red and blue series

비록 세상에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보다 2년 앞선 1946년 쉰들러는 자신의 이론을 요약한 「Reference Frames in Space」를 발표하게 된다. 이 비례이론은 쉰들러가 일생동안 추구해온 건축 개념인 '공간건축'의 창조에 바탕이 되고 그의 각 디자인에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었다(Park, forthcoming 2006). 이 글에서 그는 이 비례이론을 약 26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의 1920년 뉴저지 도서관 계획이나 1921년 킹스 로드(Kings Road) 주택을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의 체계가 쓰여지고있음을 알 수 있다 (Park, 1996). 쉰들러가 자신의 직접 기록한 1916년 강의 노트에도 비례체계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당시 그는 직사각형의 크기가 'rows'의 형태로 배열되는 체계에 관심을보였다. 이후 좀더 실용적이고 그만의 공간창출에 필요한 비례체계로 발전시켜왔고 이 비례체계를 평생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의 초기 'rows' 개념을 잠시 알아보고, 1920년경부터 사용되어온 「Reference Frames in Space」에 관해 짚어본 후 그가 어떻게 이 원리를 건축의 구성원리로 디자인에 응용하였는지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초기이론: The theory of 'Row'

그의 초기 비례개념은 저자에 의해 발견된 1916년 그의 강의노트

에 설명 되어있고, 그의 2~3페이지에 비례에 관한 그의 관심이 표현되어 있다. 그의 관심의 원천은 1898~1899년 사이 「Architectural Record」에 세 번에 걸친 연재를 통해 잘 알려진 John Beverley Robinson의 'Principles of Architectural Composition'라는 글이다. 이 글에서 로빈슨은 건축 구성 원리를 15개의 항으로 분할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서 8번째 항이 비례에 관한 이론으로 쉰들러가 이 항의 일부를 요약 및 해석하여 그의 강의노트에 기록하였다.

로빈슨 글의 8항의 대부분은 그리스 신전부터 근대 건축에 이르기까지 입면 디자인에 나타나는 'regulating lines'의 사용에 관한 내용인데 쉰들러는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쉰들러는 기하학적 유사성원리에 근거한 전통적인 방식이나 당시 르 꼬르비제의 'regulating line'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전체 디자인에 있어 같은 비(ratio)의 반복은 스케일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선들러의 'Row'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로빈슨은 일련의 음악적 비례를 길게 일렬로 배열하여 설명하는 반면, 선들러는 이러한 음정관계의 비례를 'Row'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Row'는 고대의 subsuperparticular numbers(March 1999)에 상응하는 비례로 만약 'p \times q'가 한 'Row'라면 그 다음 연속 비는 $(p+1) \times (q+1)$ 로 정의된다. 이러한 비들은 결국 1로 간주되는 수(unity)에 다다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속적인 비례들은 일반화 될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1×2 의 비가 주어지면 그 다음 연속 비는 2×3 , 3×4 , 4×5 , 5×6 ···으로 이 'Row'를 'Row(2)'는 1×3 , 2×4 , 3×5 ··· 11×13 ··· 이 되는 것이다. 각각의 'Row'는 비례 가 'p \times q'로 주어진 사각형의 연속적 형태로 나타난다. 이 형태는 그림 3에서 보듯이 그리스의 'gnomon' 형태로 나타난다.

때로는 이러한 일련의 비례는 약분될 경우 복잡하고 잘못된 비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 'Row' 이론에서는 두수의 관계를 약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Row(10)에 해당되는 9 x 19의 관계를 예를 들어보자. Row(10)은 … 8 x 18, 9 x 19, 10 x 20… 으로 만약 약분할 경우 4 x 9, 9 x 19, 1 x 2가 된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4 x 9는 row (5)이고 1 x 2은 row(1)로 단순한 수학적 이론으로 생각하면 'Row'이론이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p x q의 비를 약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 자체가 건축적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row' 이론이 건축에 적용되면 방의 크기가 창문의 크기로 p x q 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 크기에 따라 한 건물에서 서로 연관된 비례를 이용하면 건물 일부와 전체의 비례가 협화하는 전통적 비례개념에 상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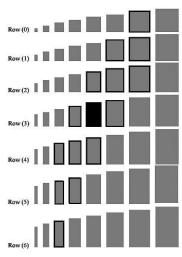


그림 4. 쉰들러의 7가지 'Row'에 따른 다양한 직사각형 방의 크기(After March)

이러한 'row' 이론의 논의는 르 꼬르비제의 The Modulor 이론을 상기시키는데, 그의 모듈러 이론에 나타난 비례관계는 쉰들러의 'row' 이론의 한 부분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쉰들러의 'Row' 이론에 관한 자세한 기술적 내용 및 르 꼬르비제의 Le Modulor 이론과의 비 교는 저자와 라이오넬 마치(Lionel March)교수의 글들을 참조 바란 다(Park, 2003; March 1993,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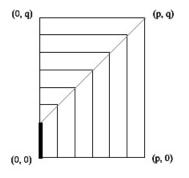


그림 3. 그리스 시대의 'gnomon' 형태로 나타나는 'Row' 의 패턴 (After M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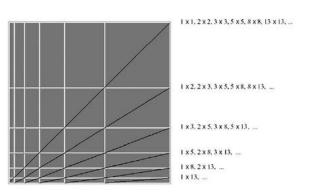


그림 5. 르 꼬르비제의 Le Modulor이론의 그리드 표현(After March)

Reference Frames in Space

선들러는 1946년 실무, 강의 및 디자인 경험을 통하여 축적되고 응용된 비례개념을 정리하여 Reference Frames in Space라는 주 제로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비례는 각 건물에 개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비례 이론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건축사의 손에 의해 살아있고, 건축표현을 위한 도구이다"라고 주장한다. 특히 공간을 주 개념으로 다루는 공간 건축사에게는, 공간을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있고 동시에 스케일 같은 척도 도구 없이 이성적으로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적절한 기본단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차원적인 평면은 단지 도면에 그려진 것에 불과한 반면, 공간 건축사는 공간형태를 건축사의 머리에서 먼저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공간형태의 안과 밖을 자유스럽게 인식하고 다자인 하기에 모형이나 투시도로는 불충분하고, 여기에 건축사의 공간 상상력과 더불어 그의마음 속의 공간형태를 개발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Reference Frames in Space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선들러 주택의 평면과 입면은 그의 모듈 체계에 준하는 48인치(약 122cm)의 정사각형 그리드 위에 계획되어 있다. 이 모듈 체계는 선들러의 공간건축개념에서는 필요 불가결한 조건인데(Schindler, 1935) 여기서 그는, 공간건축사는 디자인의 크기의 조화와 리듬을 주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자신만의 단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chindler, 1946). 그 단위는 건축사의 머리 속에 공간의 크기를 상상하면서 정확히 산출할 수 있어야 하고,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이하며, 동시에 작은 치수까지 쉽게 산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들러는 48인치를 기본 단위로 그 배수(multiples)와 세분 (subdivisions)을 사용하여 자신의 건축형태 및 공간에 필요한 모든 치수를 산출하였다. 세분에는 기본단위의 1/2, 1/3과 1/4를 사용하였고, 방, 창문, 무, 가구 등 모든 요소의 크기는 이 시스템 하에 통제되며 이는 곳 건물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게 되고 전체척도의 통일을 이루게 된다. 이 중 1/4(12인치)과 1/3(16인치)은 수직 모듈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 수직 모듈은 문, 창살, 창문, 가구 등의 높이를 제어하게된다. 가구의 크기도 이 시스템 하에 놓여있다(Park, 2003; March 1993, 2003). 선들러는 48인치 정사각형 그리드의 한쪽에 A, B, C, D…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1, 2, 3, 4…의 순서대로 표기하고, 수직모듈은 주로 세분(subdivisions)을 사용하여 위치표기를 하였다.

선들러 비례체계의 논리적 근거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어떠한 건물이라도 기능에 관계없이 너무 커서나 작아서는 안 되며 그 크기가 인체치수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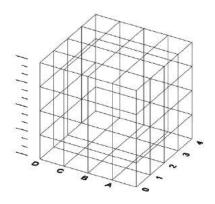


그림 6. 「Reference Frames in Space」의 3차원적 도식

크기를 산정할 때에도 그의 비례이론과 관련하여 방의 크기 및 높이를 산정하였다. 쉰들러는 사람의 키 6피트(182cm)를 기준으로 치수를 산 정하였는데, 이 치수는 단위 모듈로 환산하였을 때 1과 1/2m에 해당된다. 이를 기준으로 쉰들러는 표준 문 높이를 6피트 8인치(1과 2/3 Units, 약 203cm), 표준 방 높이를 8피트(2 Units, 약 244cm)로 산정하였다. 또한 쉰들러의 탁자 및 의자는 좀 낮게 디자인 되는데 탁자는주로 2피트 (1/2모듈) 정도이고 의자는 16인치(1/3 모듈) 정도이다.

선들러가 사람의 키 6피트(182cm)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르 꼬르비제가 택한 "잘생긴 6피트(약 182cm) 신장의 영국 경찰관"과 같은 높이이다. 두 건축사 모두가 인체 비를 건축의 척도로 삼는 전통적 건축 비례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르 꼬르비제가 프랑스에서 건축활동을 하는 관계로 미터 시스템을 사용하고있지만 미터 시스템의 인위성(artificiality)에 동의하고 사람의 신체치수에 근거한 foot 시스템이 건축에는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Le Corbusier, 1982). 선들러에 따르면 미터시스템에 기인한 기본 모듈은 건축사가 공간을 창조하거나 사고하는 도구로는 너무나 작거나 건축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불합리한 척도이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간을 구성하기위한 단위 척도로 1피트(약 30.3cm)란 기본 단위도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는 건축사는 건물의 목적과 부지 그리고 각 건물의 개성 있는 표현을 위하여는 자신만의 기본단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쉰들러 비례체계는 당시 유행하던 Modular Coordination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당시 모든 건축제품 및 부품은 Modular Coordination의 기본 모듈인 4인치(약 10.2cm)에 의해 표준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Modular coordination의 표준 모듈인 4인치는 건축 관련제품의 생산을 위한 표준화 체계에는 합리적일지는 몰라도, 4인 치라는 크기는 너무 작아 공간의 크기나 형태 등을 다루는 건축사의 디자인 도구로는 부적절 하다고 주장하였다. 쉰들러가 Reference Frames in Space를 발표하기 바로 전인 1944년경 그와 모듈러 제

품 소위원회 의장인 프레드리히 히스 주니어(Frederick Heath Jr.)와 의 편지 내용이 저자에 의해 쉰들러 자료실에서 발견되었는데 (March, 1999), 여기서 쉰들러는 그의 글이 발표되기 전에 이 글의 사본을 소위원회에 보내었으며, 그 소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다시 말해, 그들의 4인치에 근거한 Modular coordination는 건축 모듈러 제품의 생산을 위한 표준화 체계이고 쉰들러의 체계는 건축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계획 모듈이다라는 사실에 동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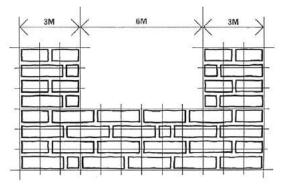


그림 7 모듈러 벽돌을 사용한 창문 개구부

셋째, 건축사는 비례체계를 항상 머리 속에 지니고 다녀야 하며, 줄 자나 어떤 척도의 도구 없이 공간의 이성적 조작 및 측정이 가능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면은 어떤 척도의 도움 없이 공간의 크기를 읽 을 수 있고, 디자인 과정에서 공간의 크기를 이성적으로 산출 및 측정 할 수 있다. 단위 모듈을 근거로 공간의 이해와 그 표현이 자유자재로 가능 하며 여기에 정확한 크기 및 치수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쉰들러의 4피트 체계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재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바닥의 장선, 샛기둥, 지붕의 rafter 등의 간격이 12, 16, 24인치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쉰들러의 보조모듈 (1/2m, 1/3m, 1/4m)과 일치하는 간격이다. 쉰들러의 체계는 그의 구조 디자인 및 시공과 아주 밀접한 관계이다. 쉰들러의 체계는 그의 구조 디자인 및 시공과 아주 밀접한 관계이다. 쉰들러는 디자인을 한 후에 공사현장에서 대부분 공사를 직접관리 감독하였고 현장에서 디자인도 직접 수정하였다. 이는 직접 현장에서 현실에 부딪쳐 씨름함으로써 구조, 시공 그리고 디자인 사이의 어떤 틈을 해결하려는 의도였다. 쉰들러는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였는데, 실제 그의 주택들은 구조가 "불인해" 보인다는 시청 공무원들의 주장으로 때때로 시에서 허가조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난 로스엔젤레스 지진 때 주변 현대식 건물이 무너지거나 구조상의 문제점을 드러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쉰들러의 "불안한 구조를 가진" 건물들은 거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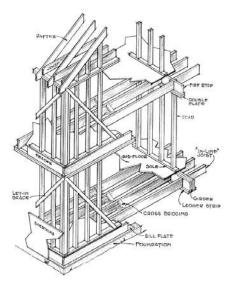


그림 8 목재 프레임의 구조

사례 연구

선들러의 모든 작품에는 그의 이 비례체계가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도면에는 이 체계가 그대로 표시되어 있고 때로는 지어진 건물 디자 인에 그대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의 후기 작품에 접어 들수록 이 체계 가 도면에는 종종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그의 도면을 자세히 보면 그 디자인이 지그재그이거나 어떠한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 모든 디자인 은 이 체계에 준하여 디자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선 그의 초기부터 후기까지 이 체계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몇 작품만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샴페이 주택 (The Shampay House, 1919)

삼페이 주택은 1919년 일리노이(Illinois) 주의 비버리 힐즈(Beverly Hills)에 계획되었으나 지어지지는 않았다. 이 작품이 시공되지 않은 이유는 주택 의뢰인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쉰들러가 프랭크 로이트 라이트(Frank Lloyd Wright)와 함께 일할 당시의 작품으로 라이트가 제국 호텔 디자인 당시 동경에서 설계하고 쉰들러가 미국에서 변경 및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저자와 라이오넬 마치(Lionel March) 교수가 공저하여 「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에 발표한 글에서 이 작품은 순수하게 쉰들러의 작품이었음을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증명할 수 있었다(Park and March, 2002).

삼페이 주택을 디자인할 당시 쉰들러는 그가 건축의 구성원리로 적용하기 위한 어떤 체계를 추구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샴페이 주 택의 평면은 정사각형 그리드 위에 그려져 있으며 1919년 6월에 그려 진 도면을 보면 2피트의 그리드 위에 오른쪽과 하단부에 4피트의 간격마다 표시가 되어있다(그림 9). 그가 일본에 있는 라이트에게 보낸 도면에서 평면은 4피트의 그리드 위에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도면의 바닥에는 1부터 26까지의 숫자가 일렬로 배열되어있고, 오른쪽에는 A부터 Q까지의 알파벳이 일렬로 순서 있게 기입되어있다. 이작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쉰들러의 비례이론이 체계화되기 전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Park, forthcoming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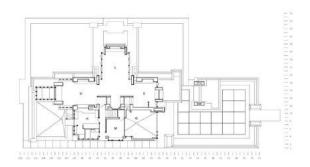


그림 9, 2피트의 그리드 위에 그려져 있는 1919년 6월에 그려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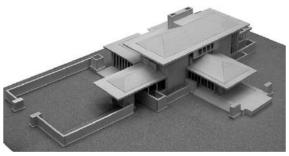


그림 10. 샴페이 주택 모형

푸에브로 리베라 코트 (Pueblo Ribera Court, 1923)

선들러의 체계는 Pueblo Ribera Court에 잘 나타나있다. 이 집합 주거의 평면은 4피트의 그리드 위에 계획되었으며, 16인치 수직모듈 (1/3 모듈)에 의해 방의 높이, 가구의 높이, 문과 창문의 높이 및 창살의 간격 등이 디자인되어있다. 이 디자인에는 Slab-Cast Construction라는 건설공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공법은 주택외벽의 일련의 나무 틀을 짜서 하루에 한번씩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한 줄씩 쌓아가는 형태로 외벽공사가 끝난 후에는 수평줄무늬 같은 흔적이 남는 형태의 건설 방법이다. 각 단위평면은 단층으로 거실이 독립된 옥외 마당을 갖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평면의 한쪽 면은 부엌 및 식당 공간이고 다른 면은 욕실 및 침실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지붕테라스는 옥외수면 및 일광욕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비록 이 단위평면 계획은 단순하지만 전체 단지계획은 쉰들러가

디자인한 집합주거 중에서 가장 정교한 배치계획이었다. 배치계획에 선 두 가지의 대칭개념을 이용하였는데, 첫번째는 두개의 비대칭 단위평면이 L-형태로 한 쌍을 이루면서 반사(reflect)되거나 회전 (rotate)되어 부지에 배치되는 것이다(Park, 2002). 12개의 단위주거가 6개의 L-형태로 배치되는데 쉰들러에 따르면, 이러한 배열 방식은 전체주거에 통일성을 줄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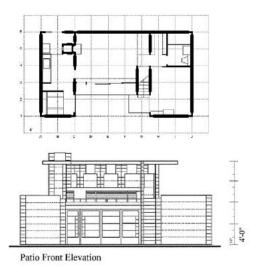


그림 11. Pueblo Ribera Court 단위평면도 및 입면도

Pueblo Ribera Door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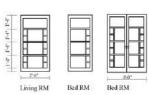


그림 12, Pueblo Ribera Court 집합주거의 배치도 및 쉰들러의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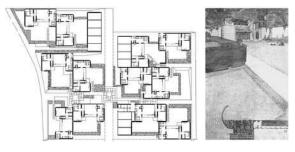


그림 13. Pueblo Ribera Court 집합주거의 배치도 및 쉰들러의 스케치

하우주택 (The How House, 1925)

1925년 로스엔젤레스 실버 호수(Silver Lake) 근처에 지어진 이 주택은 이 기간 중의 선들러의 작품 중에서 그의 비례체계와 대칭개념을 가장 잘 이용하고있는 작품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주택은 긴 직사각형의 경사 부지에 건물은 도로 면에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되어있다(Park, 2000). 또한 이 대각선에 의해 모든 공간이 배열된다. 건물의 하부구조는 푸에브로 리베라 코트(Pueblo Ribera Court)처럼 Slab—Cast Construction라는 건설공법을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로되어있고 이 구조 위의 상부구조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널려져 있고 가볍고 실용적인 적색삼나무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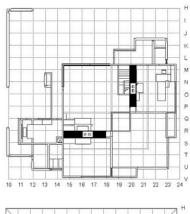




그림 14. 하우주택 (The How House, 1925)의 내 외부 사진

이 주택의 주층 부분의 식당, 거실, 공부방 등은 대각선을 기준으로 배치되어 있고 엄격한 대각선 대칭에 벽난로, 계단실, 부엌 등의 공간이 부가되어 있고 모든 방들은 그의 체계의 배수(multiples)와 세분 (subdivisions)에 의해 구획되어 있다. 평면은 4피트의 기본 그리드모듈 위에 수평으로 10부터 24까지의 숫자로 위치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고, 수직으로는 H부터 W에 이르는 알파벳으로 위치가 기록되어있다. 따라서 정확히 14모듈 위에 이 주택이 계획되어 있다. 주택의단면과 입면의 높이는 16인치(1/3 모듈)의 수직 모듈에 의해 계획되었다. 외부 콘크리트와 나무판에 나타나는 수평선 또한 16인치 높이로이것은 Slab-Cast Construction 건설공법을 사용한 콘크리트 타설시 16인치의 거푸집을 사용한 결과이고, 외부와 내부의 마감 나무판의 폭도 이 16인치의 수직 모듈에 근거한 것이다. 이 16인치 수직 모듈은 구조체 뿐 아니라 내부의 창문 높이, 창문 살 간격, 의자 높이, 가구 높이에도 적용되었다.

이 주택의 주요 공간 계획은 3쌍의 정사각형에 의해 정해진다 (Park, 2000). 전체 평면은 14 x 14모듈 위에 계획되어 있고 그 중심이 거실의 중심이 된다(O-17). 이 거실을 중심으로 공부방과 식당이 또 하나의 정사각형 공간을 형성하는데 이 공간은 10 x 10 모듈 내에 배치된다. 이 모듈의 중심은 바깥 테라스에 있는 상·하층을 시각적으로 연결하거나 환기구로 이용되는 5피트 정사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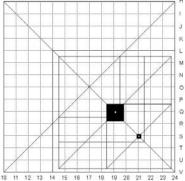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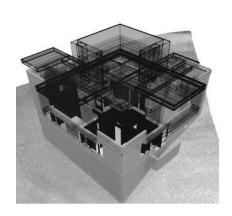


그림 15. 하우주택 (The How House, 1925)의 평면도 및 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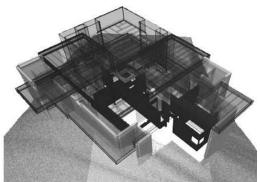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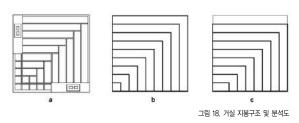


그림 16. 하우주택의 지붕구조를 보여주는 3D 컴퓨터 모형

094



그림 17. 하우주택 (The How House, 1925)의 거실 지붕구조와 테라스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보이는 거실



크기의 수직 개구부의 중심이 위치한다. 또한 식당과 공부방의 천정 볼륨을 형성하는 공간의 크기는 7 x 7모듈 안에서 배치되고 그중심에 있는 거실은 5 x 5모듈이다. 이러한 비율 관계를 종합해 보면 7:5, 10:7 그리고 14:10 이라는 비례관계가 나오는데 라이오넬마치(Lionel March) 교수는 이를 고전주의 비례이론에 근거해 "ad quadratum"이라고 하였다. 이 공간에서 외부 테라스는 5 1/2 x 5 1/2 정사각형 모듈의 크기인데 이 테라스 또한 대각선을축 위에 놓여지고 바로 위 캔틸레버 구조에 위치한 조명장치가 그중심에 위치한다.

이 주택에서 노출된 지붕구조물 디자인 또한 쉰들러의 체계 위에서 디자인 되었다. 우선 그 디자인을 보면, 이 구조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을 향하는 두개의 엇갈린 지붕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이 두 구조는 16인치(1/3모듈) 간격을 두고 분리되어 있다. 아래층부분은 거실 위에서 테라스로 향하고 있고 위층 구조는 식당과 공부방으로 각각 향하게 계획되어 있다.이 두 구조는 각각 L-형태로 대각선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위치한다.

이 주택에서 노출된 지붕은 20피트(5 모듈)의 크기로 두개의 벽 난로 굴뚝이 양쪽에 위치하고 24인치(1/2모듈) 간격으로 지붕구조의 들보(beam)가 배치된다. 이 구조의 패턴을 자세히 보면 한편으로는 정사각형의 반복된 구조 형태($1 \times 1, 2 \times 2, 3 \times 3, \cdots, 9 \times 9$)를 이루고 또 다른 형태로는 2:1 직사각형의 반복된 패턴($2 \times 1, 3 \times 2, 4 \times 3, \cdots, 9 \times 8$)임을 알 수 있다(Park, 2000). 라이오넬 마치 (Lio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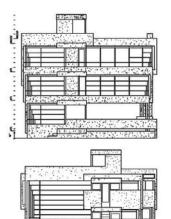
March)교수는 이를 'Greek gnomon' 방식으로 배열되었다고 주 장한다.

브락스톤 주택 (The Braxton House, 1930)

1930년 캘리포니아 베니스 해안에 계획된 이 주택은 지어지진 않았으나 쉰들러의 공간구성 등 여러 건축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작품이다. 특히 이 주택은 그의 '공간건축'(Schindler, 1934)개념이 가장잘 나타난 디자인이다.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에서 그의 Reference



그림 19. 브락스톤 주택 (The Braxton House, 1930)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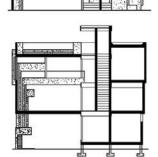


그림 20. 브락스톤 주택(The Braxton House, 1930)의 입면도 및 단면도

Frames in Space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작품에서도 예외 없이 평면은 4피트의 기본 그리드 모듈 위에 수평으로 1부터 24까지의 숫자로 위치가 순서대로 배열되어있고, 수직으로는 A부터 K에 이르는 알파벳으로 위치가 기록되어있다(Park and March, 2003). 이 주택의 수직 모듈은 16인치(1/3 모듈)이다.

이 주택의 공간 계획은 3부분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차고, 주택 그리고 이들의 공간적 흐름으로 연결하는 통로 공간(circulation spine)으로, 특히 이 통로 공간의 구조체계는 전체건물의 뼈대 역할을 한다. 일층은 차고, 바닷가 모래사장과 연결된 옥외 마당, 대부분의 방은 손님방과 가정부의 공간이다. 이층은 부엌과 식당, 거실 등이 위치하고 그 위로는 침실 등이 위치한다.

이 주택의 특징에 관한 논의는 저자의 글을 참조하고(Park and March, 2003) 여기서는 쉰들러 체계가 이 주택에서는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비록 공간구성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단순한 몇 개 방들의 조합임을 알 수 있다. 쉰들러는 각방의 크기를 간단한 정수로 도면에 표기해 놓았다. 물론 모든 방의 크기도 그의 모듈기본단위의 배수와 세분의 조합 수이다. 또한 때때로 방이 사각형이 아니라 여러 형태가 서로 맞물리거나 겹치거나 지그재그형을 이루거나 무정형을 이루더라도 쉰들러는 도면에 방의 크기를 axb 형태의 간단한 정수로 표시하였다. 이 말은 그가 방의 크기를 산출할 때 그의모듈체계를 이용하여 그 크기를 이성적 수단으로 산출하였음을 증명한다.

이 브락스톤 주택은 11개의 서로 다른 방들이 8개의 비율(ratio)로 구성되어 있고 6개의 서로 다른 'Row'로 구분될 수 있다. 각 방의 크기와, 비례관계 그리고 앞서 논의한 'Row' 체계로도 구분해 볼 때 도표 1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들의 비례관계는 간단한 피보나찌 수열이나 음악적 비례로 설명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을 참조 바란다(Park, 2002).

	방의치수	Row	비례
입 구	10 x 10	Row (0)	1:1
가정부방	8 x 8	Row (0)	1:1
남자방	12 x 11	Row (1)	12:11
거 실	27 x 24	Row (1)	9:8
보일러실(furnace)	8 x 6	Row (2)	4:3
여재방	16 x 14	Row (2)	8:7
부 엌	16 x 10	Row (6)	8:5
욕 실	8 x 5	Row (3)	8:5
포치(porch)	10 x 6	Row (4)	5:3
손님방	15 x 9	Row (6)	5:3
방	16 x 10	Row (6)	8:5

도표 1. 브락스톤 주택의 여러 방들의 치수, Row 그리고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도표

칼리스 주택 (Kallis House, 1947~48)

샌퍼난도 계곡(San Fernando Valley)의 가파른 대지 위에 위치한 이 주택은 주인의 작업실을 포함한 주거공간으로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전경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었다. 원래의 평면은 가운데 테라스를 중심으로 상부의 두개의 구조로 나뉘어지고 한쪽 공간은 작업실, 다른 한쪽 공간은 거실과 부엌 등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계획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소유주는 이 두 상부구조를 연결하여 테라스 공간을 실내 공간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주 건물과 차도 사이에는 차고가 놓여 주거공간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한다.

비록 이 주택은 1946년대의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각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각들은 임의적으로 산출되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삼각형의 60도 각의 계속적인 이동분에 의해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운데 테라스 부위는 정삼각형을 반으로 잘라 다시 합친 형태로 기본적으로는 60도 각도에 근거한다. 외부 벽의 각도는 30도와 75도의 이동변 각으로 형성되어있고 외부 복도의 지붕은 이 각의 반인 15도의 이동변 각으로형성되어있다. 쉰들러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복잡한 공간형태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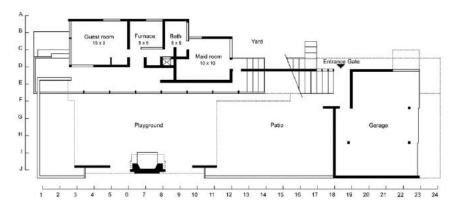


그림 21. 브락스톤 주택(The Braxton House, 1930)의 1층 평면도



그림 22. 칼리스 주택(Kallis House, 1947-48)의 프리젠테이션 평면과 단면도

파른 대지 경사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대지의 경사각이 이 주택의 경사 내 외부 벽이 되고, 그 경사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개구부 및 창문이 형성된다.

이 각들은 이 주택의 형태의 복잡성 및 역동성을 표출하는 형태를 이루는 기본 도형이 될 수 있으나, 이 주택의 공간형태를 산출하기 위한 근본 체계는 Reference Frames in Space에 기초하고 있고, 실제로 그의 평면도에서도 이 4피트의 모듈이 그려져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쉰들러는 입방체 형태의 Reference Frames in Space을 가지고 아무리 복잡한 공간형태라도 만들 수 있고 또한 그 공간형태를 이성적으로 통제할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3. 칼리스 주택의 내 외부 사진

지금까지 보았듯이 쉰들러 비례 체계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기계적인 모듈 혹은 대량생산의 도구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쉰들러 자신이 주장하였듯이 이 체계는 디자인과 건축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도구로써 그리고 디자인 과정에서 보다 내적인 사유체계의 도구로써 사용되었다. 나아가 그는 이 체계가 조립주택의 대량생산, 효율적 디자인과 건설을 위한 기계적인수단이라는 부정적 면모가 아닌 대규모의 주거 디자인을 위한 표현적도구로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는 도구임을 증명해 보였다.

주택의 수가 부족할 경우 똑같은 조립주택의 대량 생산은 값싼 주 거의 확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는 있을지언정 주거의 질이라는 측면에 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주거의 양적 팽창시대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질을 우선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앞으론 '값싼 주거' 라는 이미지로는 큰 호응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값싼 집이라도 '그냥 집(house)' 보다는 거주자 '자신만의 집 (home)' 혹은 주거의 질을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모듈 체계를 이용함에 있어 건축가는 건설업자나 건축 부재 제조업자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져야 한다. 자신만의 모듈체계로 자신의 건축세계를 위한 표현적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圖

협회소식_ kira news

2005전국건축사대회

6월 24, 25일 BEXCO에서

「2005전국건축사대회」가 오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부산 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개최되어 건축사 대단합의 장을 열게 된다.

약 12년 만에 부활하는 이번 대회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5천여 명의 건축사와 회원 기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건축행사로서 건축사그림전시회, 워크숍, 세미나를 비롯해 '건축경기활성화 및 설계의 질적 항상을 위한 결의문 채택'등이 이루어진다.

전국건축사대회의 개막식은 6월 25일 오후 2시에 개최되며, 대회 기간 동안 '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 연계되어 개최됨으로서 침체된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와 건축사 이미지 제고에 아주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건축사대회를 준비해 온 부산건축사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증진시키고, 도시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 스스로에게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일깨우고 다짐하는 선언의 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고, 전국건축사대회 대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호 우리협회 회장은 "2005전국건축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건축사의 실추된 위상과자존심을 회복하고, 책임 있는 전문가로서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 설계겸업 허용정책을 원천봉쇄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울러 전국건축사대회 집행위원 및 시·도 건축사회 회장단은 전국건축사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6월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건축행정업무의 전문화와 편의 도모를 위해 '건축전문 해당부서'의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다.

문의: 부산광역시건축사회 051-633-6677

〈대회일정표〉

/네뉘ㄹ0파/				
일 차	시 간	행 사 내 용	장 소	비고
1일차	11:00 ~ 11:30	제5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개막식	벡 스 코	
6월 24일	10:00 ~ 19:00	시 · 도대항 축구대회 /건축사회화전	북구구민운동장 /전시실	
(금)	20:00 ~ 21:00	조직위원 <mark>회</mark>	그랜드 호텔	22:00 전체리허설
	10:00 ~ 10:30	2005전국건축사대회 선포식	그랜드호텔 회의실	언론기관참석
		국제건축 심포지움	그랜드호텔 회의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
	10:30 ~ 12:20	건설사업관리(CM) 세미나		
	10.00 12.20	제1주제 : CM 그리고 건축사 업무영역의 확장	벡스코 202호	대한건축사협회
		제2주제 : 건설사업관리(CM) 적용사례		
	12:30 ~ 13:30	중식 및 자유시간	벡스코 광장	고적대 퍼레이드
		개 회	식	
	14:00 ~ 14:50	패 션 쇼		
	14:55 ~ 15:05	초청인사 소개		단상임원 외
2일차	14.55 15.05	포 6 근시 포계		초청인사
2월시 6월 25일		집행위원장, 시도회장, 협회임원		
(토)	15:05 ~ 16:00	고문, 부산시장, 국회의원		
(上)		정당대표, 대회장, 정부대표 입장	_ 벡스코 제1전시실	
	16:00 ~ 16:05	국민의례		
	16:05 ~ 16:10	환 영 사		
	16:10 ~ 16:17	대 회 사		
	16:17 ~ 16:24	치 사		
	16:24 ~ 16:30	축 사		
	16:30 ~ 16:45	건축문화혁신대회		
	17:00 ~ 19:00	건축사 만남의 광장	벡스코광장	
	17.00 - 19.00	2005전국건축사대회 결과 선포	7=200	
	19:40 ~ 20:00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참관	벡스코 3A전시실	
3일차		청와대 방문	FLO EII	조직위원회 및 집행
6월 27일(월)		· 당시네 당표	청 와 대	위원회 위원 약 50명

제8회 이사회 개최

2005년도 제8회 이사회가 지난 5월 10일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원선거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회원신고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설계검업 대처 T·F팀 명칭 변경의 건, 명예이사 위촉의 건, 상임이사제도 도입에 관한 건,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조정에 관한 건, 2005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경기도건축사회 회원 제명처리에 관한 건, 회관 지분관련 소송에 관한 건, 「건축의 날」 제정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임원선거관리규정중 개정규정 (안) 승인의 건
-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함.

현 행	개 정
제13조(현직 임원의 입후보)	제13조(현직 임원의 입후보)
현직 임원이 타직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	
자 등록 전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한다.(단서신설)	기가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 •제2호의안: 회원신고관리규정중 개정규정 (안) 승인의 건
 - 시·도건축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 기로 함.
- 제3호의안 : 설계겸업 대처 T·F팀 명칭 변경의 건
 - 「설계겸업 대처 T·F팀」의 명칭을 「정책 개발 T·F팀」으로 변경키로 하고, 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4호의안: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승인금액: 8,500,000원)

•제5호의안: 명예이사 위촉의 건

- 협회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위상 제 고를 위하여 명예회원 및 명예이사 제도 를 도입키로 하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도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아 차기 이 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협의사항

- 제1호 : 상임이사제도 도입에 관한 건
 - 상임이사제도는 정관개정이 필요한 사항 이므로 우선 사무총장제(가칭)로 운영하 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되 명칭과 임용 시기 및 방법, 보수, 관련근거,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조정 에 관한 건
 - 이사 중 3~4인을 선임하여 조정 방안을 마련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 로 하고, 해당이사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함.
- 제3호 : 2005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 전국건축사대회 지원금은 3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세미나(6/25) 개최문제는 국제심포지엄과 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5월 24일 합 동준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경기도건축사회 회원 제명처리에 관한 건
 - 지역건축사회 미가입 회원(34명)을 제외한 회비 미납자에 대해서는 본협회에서도 제명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함.
- •제5호 : 회관 지분관련 소송에 관한 건
 - 본협회와 서울건축사회가 협의하여 최소
 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함.
- •제6호: 「건축의 날,제정에 관한 건
- 「건축의 날」제정에 따른 기본원칙과 운 영방향 등에 대하여 FIKA 실무협의회에 서 논의하기로 함.

▲ 기타사항

2005. 5. 28 서울건축사회에서 주최하는 '2005 전국기족 한마음 서울사랑 걷기대회' 가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제2회 홍보소위원회

2005년도 제2회 홍보편찬소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5월 24일 오후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회원 고무인 조각 계획에 대한 건, 2005홍보 브로셔 제작에 대한 건, 2005년도 홍보계획에 대한 건, 컨벤션 이벤 트 홍보(2005 경향하우징페어)에 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정회원 고무인 조각계획에 대한 건
 - 공모를 통해 정회원 고무인 조각디자인을 선정하도록 함.
 - 공모대상은 본 협회 회원,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업무종사자로 제한하고, 시상내용은 당선작 1명 100만원, 우수작 1명 50만원, 가작 2명 30만원으로 정하여 공고하기로함.
 - 고무인 조각디자인 선정을 위한 구체적 인 공모지침 작성은 곽진훈 위원 담당책 임 하에 진행함.
- 제2호 : 2005홍보 브로셔 제작에 대한 건
- 5월 31일까지 홍보 브로셔 가편집안에 대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접수, 이를 반영해홍보 브로셔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함.
- 제3호 : 2005년도 홍보계획에 대한 건
 - 지난 제1회 홍보소위원회('05. 4. 26) 에서 제안된 안건(Agend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당위원을 정하여 진행하 도록 함.

- 1. 대외적 홍보(대국민 홍보로 인한 건축 사 알리기와 위상강화)
- 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한 건축분쟁상 담 - 유종옥 위원
- 나. 재난시 협회 봉사활동 및 스타건축사 양성 - 장양순 이사, 사무국
- 다. 언론의 주요현안 이슈화 및 건축관계 바로잡기(각 언론사의 담당자와의 긴 밀한 관계설정 및 체계적 관리 간담 회, 기사선점 및 지원) — 곽진훈 위 원(각 언론사), 전주희 위원(건축전문 잡지)
- 라. 컨벤션 이벤트 홍보 이규환 위원
- 2. 대내적 홍보(회원에게 협회 활동사항 홍보 및 협회의 유지와 발전)
- 가. 신규 건축사 연수 본 협회 교육시 험위원회
- 나. 회원에게 협회 활동사항 홍보(회원 이 원하는 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효과적인 전달연구) – 차기 회의에 서 협의
- 다. 홍보위원회 회의록 책자발행 차기 회의에서 협의
- 기타(생존권 위협대응 등) 차기 회의 에서 협의
- 가. 건축계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 연계연구
- 나. 일상적인 건축관련 발생사항 예측과 대응에 대한 방향설정과 역할분담으 로 현안에 대한 신속대응
- 다. 기타 위원회와의 사안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으로 신속대응
- 4. 홍보 소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 에 개최하도록 함.
- 제4호 : 컨벤션 이벤트 홍보(2005 경향하 우징페어)에 대한 건
 - 구체적인 계획서를 이규환 위원이 담 당 작성하여 경향하우징페어 사무국에 통보하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 록 함.

■제1회 여성건축사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여성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4월 14일 오후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5년 전국여성건 축사대회 개최 계획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5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최 계획에 관한 건

- 일시: 2005. 5. 27(금)~28(토)

- 장소 : 경기도 수원

- 초청인사: 우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 회 회장, 경기도 지역건축사회 회장, 경 기도자사. 경기도 내 관련인사
- 행사내용: 경기 수원지역 고건축(화성행 궁), 현대건축물(희원, 연화장)견학, 특강 (심리학 강의) 등

■제2회 설계겸업 대처 T · F팀 회의

2005년도 제2회 설계겸업 대처 T·F팀 회의 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4월 21일 오후 2 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업체 설계 겸업 관련 대처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건설업체 설계겸업 관련 대처에 관한 건
 -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대처에 따른 객관 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함.
 - · FIKA가 발주하고 건축학회(서울대 : 김광현 교수)가 수행하는 방안 검토
 - · 국회 정책토론회와 관련하여 우리협회 가 토론회 참석자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강력히 항의키로 하고, 정장선 국회의원에게도 향후 우리 협회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 공문을 발송키로 함. 이울 러, 가협회 및 학회에는 현 사항을 알

- 리고 협조를 요청키로 함.(4월 26일 관 련 공문 발송)
- · 진행내용에 대한 보도 자료는 박종철 위원이 담당키로 함.

■건축문화혁신관련 회의

건축문화혁신관련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4월 25일 오후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는 건축문화혁신 방안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건축문화혁신 방안에 관한 건
 - 건축전반에 통합된 법을 만들기 위한 건 축문화부 신설 필요
 - 건축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육성시스템 형성 필요
 - 건축관련법을 통합하기 위한 건축문화진 흥법 제정 필요
 - 국제화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 한 건축사법 개정이 필요함
 - 건축설계(허가)도서관리 및 통제시스템 개선 필요
 - ·체계적인 건축시스템 구축 및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통한 관리 및 통 제의 선진국화
 - 일반인이 쉽게 건축문화를 인식할 수 있 도록 건축문화방송국 개국 필요
 - 공무원과 건축사간의 협력시스템 정비 필요

■제3회 설계겸업 대처 T · F팀 회의

건축문화혁신관련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4월 27일 오전10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찬반토론, 대책추진계획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제1호: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찬반토론

〈정부 측(설계겸업 참여허용) 주장〉

- 건축사사무소를 기업화, 대형화, 시스템 화해서 건축사의 생활안정 및 취업의 기 회가 확대될 수 있음
 - · 건설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30명의 건축사를 고용해야 자체사업을 할수 있으므로 건설사의 자회사로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제도권 안에서 양성화시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건축사사무소는 영세해서 건축문화발전 이 가능한가?
- 일본, 미국 등에서는 건설회사가 설계를 검업해서 하고 있지 않는가?
- 설계겸업을 반대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토론회를 통해 대응논리로 정리된 내용〉

- ①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5년제 건축대학을 나온 신진건축사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들을 육성, 교육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회사 설계검업은 반시대적인 발상
- 국가는 후진양성교육(신진건축사를 육 성)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음
- ② 건축산업은 문화지식산업으로서 개인의 작가적 능력에 좌우됨
- 건축사 30명이 건설사에 고용되어 설계
 를 하게 된다고 해서 김기백 화백과 같
 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지?
- 의사가 약을 잘 못 처방하면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건축설계는 결과물이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음(건축설계의 무 형적 특수성)
- 지식기반사업은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함
- 영화산업의 경우 스크린쿼터 제를 유지 (정부지원)함으로서 경쟁력을 키워 국가 의 문화발전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주시하여야 함
- ③ 건설사가 설계겸업에 참여하겠다는 주장 은 "건축문화창달"을 하겠다는 것보다

- "이윤추구"만을 하겠다는 것임
- 돈벌이만을 추구한다면 문화 창달이 되 겠는가?
- 설계겸업을 하지 못해 시장진입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지?
- ④ 대형건설사 10여개 업체만이 혜택을 받 게 되어 중견업체들에게 또 다른 진입장 벽을 만들게 됨
- 구체적인 데이터 파악(위장계열사 조사, 건설회사의 악용시례, 자격대여 실태파악)
- ⑤ 건축사 30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설계의 창작력보다는 엔지니어링(기술)에 의한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대학교 육과정도 이에 맞춰 다시 개편되어야 하 는 것임
- 교육제도를 5년제로 바꿔 창작(디자인) 위주로 개편한 것을 엔지니어링(기술) 위 주로 다시 바꿔야하는 문제가 발생함
- ⑥ 건축설계시장을 사회주의처럼 바꾸려는 것인가?
- 건축사가 건설사에 고용이 되면 창의적인 설계가 나올 수 없음
- 일본의 제네콘사는 창작력에는 실패한 사례임
- ⑦ 건설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파트설계 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사회시스 템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함
- 1995년~2004년 동안의 아파트 허가평균면적은 40.8%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대형건설사는 전체허가면적에 40.8%의 공사를 독식하게 될 것이므로 이것은 국 민을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몇 개의 대 형건설회사만을 위한 정책방안임
- ⑧ 정책은 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해야 함
- 선진국은 일반인도 건축이 문화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건축이문화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는 건축을 소유개념(부동산)으로 보고 있지만 외국은 일정기간 렌탈해서

- 사용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공공성이 중요하게 자리 잡 고 있음
- ① 건설은 시스템화 되어야 하지만 건축은시스템화 되기보다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건축문화창달이 가능함
- 건설사가 자체 설계하겠다는 것은 싸구려 설계를 하겠다는 것임
- ① 건설업체가 설계겸업을 자기시공건물에만 한정하여 설계하겠다고 하지만
- 건축허가이전에만 건설업체소유로 하고 허가이후에는 명의변경을 하면 소유건 물 이외에도 얼마든지 설계가 가능함
- ⑪ 건축설계의 결과물은 즉시 나타나지 않음
- 건축이 갖는 무형적 특수성이 있음
- 이러한 무형적 가치를 건설회사의 단순 양도양수의 개념으로 넘겨줄 수 없음

〈다음회의 과제〉

- 대처논리연구(회의 참석 시 각자의 위원 들은 과제 발굴 및 자료를 제출)
 - · 건축문화를 저해시키는 시스템은 무엇 이 있는지?
 - ·지식기반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하는지?
 - · 건축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어려서 부터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보도자료 작성
 - · 임두기 위원과 조원용 위원이 함께 진행 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보도 자료로 작성 하고 박종철(총무) 위원이 총괄을 함
- 제2호 : 대책추진계획에 관한 건
 - 시·도건축사회에 현 상황에 대한 심각
 성을 알리기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키로 함.
 - · 건교부에 건설업체 설계겸업과 관련한 논의를 중지해줄 것을 공문으로 발송
 - · 연대서명운동, 국회 항의방문 및 건교 부장관 면담 신청
- 5월 3일 시·도건축사회 회의 시 추진 경과 및 예산 요구사항을 보고 키로 함.

- · 신문방송 보도
- · 연구용역 : 외국사례조사, 위장계열사 조사, 건설회사의 악용사례, 자격대여 실태파악
- · 토론회 개최(3~5회)
- · 장외투쟁
- 설계겸업 대처 T·F팀의 명칭을 정책개 발 T·F팀으로 변경하고, 차후 이사회에 보고 키로 함.

■제1회 국제위원회

2005년도 제1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소회의실에서 지난 4월 28일 오후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5년도 국제행사계획및 업무분장에 관한 건, UIA 이스탄불 총회 참석에 관한 건, APEC 건축사회의 참석에관한 건, 한·몽 상호교류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5년도 국제행사 계획 및 업무 분장에 관한 건
 - 국제위원들의 전문분이를 파악하고 각 국 제행사의 성격, 행사간의 연계성, 행사별 일관성 등을 검토하여 추후 확정키로 함.
- 제2호 : UIA 이스탄불 총회 참석에 관한 건
-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참석자는 업무 분장 및 아카시아 등 타 국제행시들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선정하기로 함.
- 제3호 : APEC 건축사회의 참석에 관한 건
 - 건설교통부 APEC 건축사회의 진행상황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건교부 소
 속 1인의 참석을 요청하기로 함.
- 제4호 : 한 · 몽 상호교류에 관한 건
 - 초청 시기는 9, 10월 중으로 하고, 단순 건축물 견학을 위주로 개최되던 과거의 초청형태를 벗어나서 양국의 실절적인 건축교류가 될 수 있도록 건축관련 전시

회 등의 프로그램 또는 서울시내 대학의 건축관련 행사와 연계하여 초청하는 방 안을 검토하기로 함.

■제1회 전국건축사대회 합동준비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전국건축사대회 합동준비위 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5월 3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회일 정에 관한 사항, 대회주제·로고·포스터 도안 선정에 관한 사항, 대회 지원금에 관한 사항, 스 폰서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대회지 제작에 관한 사항, 현판식 및 차기 회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대회일정에 관한 사항
 - 대회일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일정 (안) 중 일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 여 확정하기로 하고, 개회식 식순 등 세 부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 시 재논의 하기로 함.
 - · 1일차('05.6.24, 14:00~19:00)는 축구 시합, 미술 작품전시회 등 회원의 동아 리 활동 위주로 준비하되, 축구시합은 정명옥 위원이, 미술 전시회는 최영집 위원이 담당하기로 함.
 - · 2일차(05.6.25, 10:30~12:20)의 세미나는 CM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주제로 본협회에서 주관하고, 부산건축사회에서는 장소(임대료 포함만 제공하기로함.
 - · 환영사(집행위원장), 축사(부산시장), 대회사(대회장), 치사(국무총리)의 순서는 정부의 의전관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로 함.
 - ·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행사이므로 결의 대회의 성격은 지양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건축문화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결의문을 작성하기로 함.

- · 대외 인사의 초청범위, 단상배치, 입장 순서, 대회 진행 시나리오 등은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대회주제, 로고, 포스터 도안 선정에 관한 사항
 - 대회주제는 "건축문화 그리고 미래"로 결정하기로 함. 다만, 부제("건축사의 새로운 도전")를 명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설명문 또는 토론회가 있어야 하므로 부제는 생략하기로 함.
 - 2005 전국건축사대회의 영문표기는 「KIRA 2005 NATIONAL CONVENTION」 으로 하기로 함
 - 대회로고는 강석후 이사가 제시한 로고
 중 글자체와 영문표기 및 디자인을 수정
 하여 사용하기로 함.
 - 대회 포스터는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포 스터(안)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기로 함.
- 대회 지원금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승인된 지원예산(1억2천만원) 이외에 집행위원회에서 추가 요구한 지 원금(5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집행위원회는 2005 전국건축사대회 소
 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작성하기로 함.
 - 스폰서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 스폰서 업체의 확보 등 협찬금 모금에 대해서는 대회장과 집행위원장이 협의 하여 처리하기로 함.
- 대회지 제작에 관한 사항
 - 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대회지 제작(안) 중 시·도건축사회 소개란은 삭제하고, 인물사진은 최소화 하되, 회원 미술작품 을 포함하여 제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하도 로 한
- 현판식 및 차기 회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현판식 및 차기 회의는 '05. 5. 24. 부산

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간계획 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 결정하기로 함.

■제1회 법제위원회

2005년도 제1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 회 회의실에서 지난 5월 6일 오후 3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사의 설계겸업 참여 허용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의 건, 건축물의 구조설계 기준 개정에 관한 건,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건설사의 설계겸업 참여 허용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의 건
- 협회의 홈페이지에 "설계겸업"에 관한 토론방을 개설하기로 하고, 각 위원은 5월 10일까지 의견을 게시하기로 함. 토론방에 게시된 의견은 「정책개발 T·F팀」 (5/12)에서 논의
- 제2호 : 건축물의 구조설계 기준 개정에 관한 건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건축사 아
 난 자가 서명날인 하는 것은 문제가 있
 으므로 반드시 시정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함.
 - 구조기술자의 협력대상범위 확대(16층→3 층)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한 후 차기 회 의(5/26)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제3호 :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건
 - 건설교통부에서 요청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문제는 시.도건축사회에서 건의된 사항 중 아래의 2가지만 건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재검토하기로 함.
 - · 건축설계용역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 폐지
 - · 부산시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운영중인 임의규제 개선 건축허가 시 조경기사의 날인 요구

→ 건축사의 확인으로 대체 착공신고 시 상하수도 배수설비업 면 허소지자와의 계약서류 첨부 시공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u>서울시건축사회</u>, <u>'2005 건축가족 한마음 서울사랑 걷기</u> <u>대회'</u>

'2005 건축가족 한마음 서울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5월 28일(토) 서울종묘공원에서 발대식을 열고, 남산 백범광장에서 해단식을 가져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건축가족 한미음 서울시랑 걷기대회'는 약 1 천5백여명의 건축, 건축관련인, 가족들이 참가 하여 시민과 함께 종묘공원에서 남산 백범광장 까지 약 5km 정도의 거리를 행진하며 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한편 세계 어느 도 시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도 시 서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는 행사 였다.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행사에는 이영희, 이 경회, 장석웅 공동대회장을 비롯하여 박진 종로 구 국회의원,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 많은 내외빈 이 참여했다.





오후 4시30분경 해단식 장소인 백범광장에서 는 주워온 쓰레기를 치우고 뒷풀이 행사와 행운 권 추첨 등의 행사를 가졌다.

전라남도건축사회, 한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장기태)는 '21세기 건 강한 살림집 한옥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를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전라남도 공무원 교 육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건축사, 공무원, 학생, 도민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함께 지켜봤는데, 이날 토론회에는 김홍식 명지대 교 수가 '21세기 건강한 살림집 한옥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약 1시간여 주제발표를 하였고, 천득염(전남대) 교수의 주재이래 지정토론이 이 루어졌다.

이날 지정 토론에는 박강철(조선대)교수가 '전통한옥의 개량방안'을, 심국보(국립산림과학원) 박사가 '개량한옥 목구조'를, 황혜주(목포대)교수가 '개량한옥의 황토 이용 방안'을, 김종헌(전남대)교수가 '한옥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박문환(동부요업)대표가 '토기와의 사용과 개량'을, 이봉수(삼진건축사사무소)건축사가 '개량한옥 설계도서'를, 임태영(전라남도개발건축과)과장이 '전라남도의 한옥시책 방안'을 각각 발표하였으며, 이 후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문의: 전라남도건축사회 062-365-9944

우리협회 회관신축공사 진행경과

('05년 5월 30일 현재)

우리협회 회관건립위원회(위원장 정정치)에서는 회관건립 사항을 전 회원들에게 알리어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모아 건축사들의 위상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 단체의 회관을 건립하고자 '05년 6월호부터 매달 우리협회 「건축사」지에 회관신축공사 진행경과를 게재하기로 하였다.

공사진행 현황

본 협회 회관신축공사는 시공사인 남흥건설 (주)과 '05. 1. 19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05. 2월 현장사무실 및 방음벽 설치 등의 가설공사가 완료되었고, '05. 3. 4일 기공식 이후 기존 건물의 2차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목가시설공사가 진행되었다.

현재 토목가시설공사의 진척현황을 보면 사업부지 서축 및 남축구간은 C.I.P공사가 완료되었고, 동축과 북축구간에서 C.I.P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POST PILE 공사를 포함하여총 312개 C.I.P 중 213개가 완료되었다.

• 동측 구간(CJ빌딩측) : 총 114개중 55개 완료

• 서측 구간(센서스빌딩측) : 총 59개 완료

• 남측 구간(전면도로측) : 총 76개 완료

•북측 구간(단독주택측) : 총 20개중 14개

완료

• POST PILE : 총 43개중 9개 완료

공정현황

회관신축공사의 공정은 '05. 5월말 현재 5.91%(계획 12.4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토목공사의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첫째, 인접지역 거주자들로부터 굴착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잦은 민원제기로 관할행정기관의 일일 공사시간단축 및 공휴일 일체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로 인해 작업시간을 일부 제한받고 있으며, 둘째, 이에 따른 저소음 · 저진동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공사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셋째는, 시업부지 서측 및 북측 C.I.P 공사구간 (기존 건물옹벽 부분) 지반 하부에서 잡석콘크리 트, 철근, 호박돌 등의 지장물이 일부 구간에서 발 견되고 있어 지장물 처리 및 C.I.P 천공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목가시설 공사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서 흙막이 공법을 H-PILE+토류벽 콘크리

트 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회관건립위원회 회의현황

제6회 이사회('05. 3. 28)의 의결에 따라 2005년도 회관건립위원회(제3기)가 구성되어 '05. 4. 22일 제8회 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총3회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8회 위원회 회의('05. 4. 22)에서는 향후 회관건립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9회 위원회 회의('05. 5. 2) 및 제10회 위원회 회의('05. 5. 18)에서는 회관 토목가시설 공사계획 조정사항과 설계계획 보완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설계·감리자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제기

우리협회 회관 신축대지 인접지역 거주자인 서측 서초효성빌라(인접 2세대) 소유주와 북측 단독주택(2가구) 소유주가 공동으로 이번 공사 로 인한 소음, 진동 및 가옥균열 등의 공사피해 에 대해 토지굴착공사 및 건물신축공사를 중지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사금지가처 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시공시인 남흥건설(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05. 6. 10일(예정) 1차 심문에 준비하고 있다.



공사현장



트시도



지장물제거 작업

제1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성료

우리협회 여성건축사위원회(위원장 오경은)에서 주최한 '제1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가 지난 5월 27일(금)부터 28일(토) 양일간 경기도 수원 시에 위치한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약 1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첫날 호암미술관과 연화장 견학을 거쳐 라비돌리조트 연회장에서 제1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행사를 개최했다.

첫째 날, 제1부에서는 개회식 및 만찬이, 제2부에서는 제1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주요안건으로는 임원개선의 건, 차기년도 대회 개최 및 일정의 건, 대한건축사협회 행사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되었다.

이재림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는 오 경은 회장의 개회사에 이은 김용서 수원시장과 최영근 화성시장이 축사를 하고, 우리협회 이철호 회장과 경기도 건축사회 조성원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국장과경기도 건축가협회 김동훈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부의안건 협의에 들어갔다. 이어 제3부에서는 서강대 김인자 명예교수의 심리학 특강이 있었다. 이번 대회는 둘째 날 화성행궁답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차기대회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국 300여 여성건축사회 회원을 대표해 수고한 지 순(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 고문을 비롯한 문숙경(종합건축사사무소 예문), 오경은(피아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에 이어 박영순(건축사사무소 상화) 건축사가 이번 총회에서 여성건축사회 새 회장에 선출되어 앞으로 여성건축사회를 이끌어가게 됐다.

문의: 황정복 018-221-0680



건축계소식_ archi-net

2005국제건축교육 심포지엄 개최

지난 5월 31일 13시부터 서울 중구 명지재단 빌딩 대회의실에서 '건축학교육인증 현안과 국 가간 상호인증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의구 한국건축학교 육인증원 이사장의 환영사와 김석철 명지대 건 축대학장, 김진균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은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NAAB C&P Update & the Future of Global Accreditation Agreement' 에 대하여 미국건축교육인증원 운영위원장 Sharon Matthews, WTO도하개발아젠다 서비 스 협상 제2차 양허안'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FTA지역 교섭과 이호열 사무관, '영국 대학교 건축교육의 변화'에 대하여 김영애 건양대학교 교수, '미국과 한국의 건축교육 과정 수요인식에 대한 비교'에 대하여 이준석 명지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이어 있은 토론에는 이선영 서울 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심재호(종합건축사사 무소 범건축)건축사. 박종백(법무법인 세화)변호 사, 박경립(강원대학교)교수, 최중현(우송대학교) 교수가 초청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설립과 더불어 앞으로 중점적으로 토의 되어야 할 건축교육의 인증에 관련된 현안들과 건축시장 개방을 대비한 현안들을 짚어보기 위한 자리였고,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 미국 건축교육인증원(NAAB)의 운영위원장인 Sharon Matthews씨가 초빙되어 미국의 교육인증기준의 내용 설명과 현재 논의 중인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현안들에 대하여 들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2005부산국제건축문화제

전국건축사대회 등 10여개 단위행사 개최



『제5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오는 6월 24일 부터 28일까지 5일간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BEXCO)와 그랜드 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에코포트 부산-아시아·태평양의 관문'이라는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제5회 건축 문화제는 '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 '국제건축심 포지엄', '전국건축사대회', '건축작품전', '국제 건축디자인워크숍', '부산영상센터 공모전', '시 민참여이벤트'등 10여개의 단위행사가 풍성하 게 개최된다.

이 중 문화제에서 처음으로 기획되어 5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인 '친환경건축자재박람 회(BIFEA)'는 돌, 나무, 흙 등을 소재로 한 국내 외 친환경자재업체가 참가, 환경친화적인 건축 문화 조성 및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박람회와 더불어 친환경자재 관련 국제신기술세 미나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그랜드호텔에서 열 리는 '국제건축심포지엄'은 램 쿨하스 등 세계 유명 건축사들을 대거 초청했으며, 이와 함께 '세계건축가초대전', '부산건축대전', '실내건축 대전', '세계도시건축전'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건축작품전'이 기획되어 있어 유례없이 알차고 풍성한 건축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국 5천여 명 이상의 건축사가 참가하

는 대한건축사협회의 「2005전국건축사대회」가 연계돼 약 1만여 명의 국내·외 건축사들이 참 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울러 올해는 '나도 건 축가-문 만들기', '우리 마을 만들기', '전국건 축사 회화전' 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대폭 기획되어 일반인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동서학원 수련 원(양산 배내골 소재)에서 개최되는 '부산국제디 자인워크숍'은 국내·외 건축학도 120여명을 대 상으로 해운대 역사주변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현 안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산영상센터 공모전'은 지난해 조직위가 밝힌 바와 같이 실질적인 건축·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의 도시환경을 변화시키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며, 세계적인 건축사 7인의 국제초대공모전 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영상센터 국제공모전은 부산국제영화제(10.6~10.4) 기간에 맞추어 공개 작품 발표회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가려내게 된다.

■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BiFeA)

이번 문화제에서 처음으로 기획되어 일반인 및 건축 관련 관계자들에게 세계의 친환경건축 자재를 소개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문화의 조성 및 대중화를 목표로 열린다.

- 주제 :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숨쉬는 친환 경 건축자재전

- 일정: 2005. 6. 24(금)~6. 28(화), 5일간

- 장소: 벡스코 (2, 3A 전시장)

■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 신기술 세미나

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와 더불어 친환경자재관 련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수준 높은 친 환경자재박람회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세미나.

- 일정 :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오후3시 / 2회
- · 10:30~12:00 / 다나까 요우이치(田中 陽 一) / 기반조건에 관계없이 도포가능한 광촉매 코팅재

- · 15:00~16:30 / 노구찌 타카후미(野口 貴文) / 친환경건축 재료와 폐기물 재활용 기술
- 장소 : 벡스코 자재박람회 장내 특설 세미 나홀

■부산국제건축심포지엄

좀체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유명 건축 사를 대거 초청하여 건축계는 물론 문외한 대중 들조차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다. 초청건축사는 건축, 조경, 워터프론터, 도시 계획분야의 세계 권위를 자랑하는 렘쿨하스(네덜란드), 맥스코긴 (미국), 베르나드 프랑켄(독일), 더그알랜(미국), 조지 하이그리브스(미국), 승효상(한국) 등 총 6 명이다. 강연회 참가신청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일정(시간/강연자/강연내용/참고))

- 6월 24일
 - · 14:00~15:30 / George Hargreaves /

- 해양건축과 워터프론트 / 하버드대 졸, 하 버드대 교수
- · 15:30~17:00 / 승효상 / 건축과 공공성 / 서울대 졸, 이로재 건축사사무소 대표
- · 17:00~18:30 / Doug Allen / 도시와 변화 / 하버드대 졸, 조지이공대 부학장

- 6월 25일

- · 10:30~12:30 / Bernhard Franken / 디지털 건축의 생성과 디자인 / 독일 담 스타트대 졸, 남가주대 교수
- · 14:00~16:00 / Rem Koolhaas / 영원 성의 건축 / 영국 AA School 졸, 하버드 대 교수
- · 16:00~18:00 / Mack Scogin / 기념비 로서 건축 / 조지아공대 졸, 하버대 건축 대학장
- · 18:00~19:00 / 최재필 (사회자) / 토론 회 / 서울대 교수

〈행사 전체 일정표〉

	11 71					=
일 차	시	-	행 사 내	용	장 소	비고
	11:00	12:00	제5회 건축문화제 개막식		벡스코 1층로비	시상식 포함
	12:00	13:30	개막식 리셉션		벡스코 202호	150~200인 초청 출장연회 서비스
6월	44.00	45.00	국제건축심포지엄 강연 2			
24일	14:00	15:30	(조지 하이그리브스, 미국)		그랜드 호텔	
(금)	15:30	17:00	국제건축심포지엄 강연 1(승.	효상, 한국)	그랜드 호텔	
	17:00	18:30	국제건축심포지엄 강연 3 (대	러그 알렌, 미국)	그랜드 호텔	
	19:00	~	시장주재만찬		미 정	
	10:30	10:00	국제건축심포지엄 강연 4		그래는 수테	•10:00~10:30
	10.30	12:30	(베르나드 프랑켄, 독일)		그랜드 호텔	전국건축사대회 선포식 • 10:30~12:30
	12:30	13:30	심포지엄 간담회 (오찬)		미 정	국제건축심포지엄&세미나
001			국제건축심포지엄 강연 5			14,00 - 00,00
6월	14:00	16:00	(램 쿨하스, 네덜란드)		그랜드 호텔	• 14:00~20:00 전국건축사대회 행사
25일	40.00	40.00	국제건축심포지엄 강연 4			* 16:30~18:30
(토)	16:00	18:00	(맥 스코긴, 미국)		그랜드 호텔	국제건축문화제 참관
	40.00	10:00	국제건축심포지엄 토론회			• 18:40~19:40
	18:00	19:00	(사회-최재필 서울대 교수)		그랜드 호텔	부산시장 초청의 광장
	19:00	~	만 찬		미 정	(벡스코 광장)
6월 26일(일)	10:00	18:00	친환경자재박람회 & 건축작	품전	벡스코	
6월 27일	10:30	12:00	신기술세미나 - 『다나까	요우이치』	벡스코 특설무대	
(월)	15:00	16:30	신기술세미나 - 『노구찌	타카후미』	벡스코 특설무대	
6월	10:00	18:00	친환경자재박람회 & 건축작	품전	벡스코	
28일	40.00	00.00	관계자 위로 만찬 – 행사미?	덩	n	TISHOLOITI THE
(화)	18:00	20:00	(문화제 및 관련단체 준비위	원들)	미 정	집행위원장 주재 (미정)

■부산영상센터 국제건축공모전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10주년을 기념해 건립될 부산영상센터는 국제초대공모전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초대작가는 국외건축사 7명 내외로 선정하되 당선 후 국내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진행토록 하여 국내업체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선정기준은 대륙간 안배, 설계비, 문화시설 설계경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해운대 센텀시티에 들어서게 될 부산영상센터는 지상 6층, 총 7,301평의 사업비 468억원을들여 2008년 6월경 건립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7일(영화제 기간) 당선작가 및 영화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공식이 열린다.

■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흔적'을 주제로 국내학생 90여명과 국외학생 3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워크숍은 해운대 역사 일대를 보다 체계적인 공간계획으로 구성할 필요성을 제안코자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동서대 교육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워크숍 개최에 앞서 6월 24일에는 주제발표 및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8월 25일에는한국전통마을을 찾아 건축투어를 떠난다.

■건축작품전

2005부산국제건축문화제 건축작품전은 2005년도 각 분야의 건축공모전 작품 및 세계 유명건축사의 우수한 건축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행사로서 2005심포지엄 초청강 연자로 나선 건축사 3인의 '세계건축기초대전'을 비롯해 '부산건축대전', '실내건축대전', '세계도시건축전' 등 부산의 주요건축행사가 모두집결돼 올 한해 부산건축계의 동향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준 높은 세계건축사의 작품을 부산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시민참여이벤트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건축이벤트 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건축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심어주며 건축문화제를 시민축제로 승화시키고자 '나도 건축가-문만들기', '우리 마을 만들기'가 기획되었고, 건축인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로 '전국건축가회화전'이 선보인다.

문의: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사무국 051-888-4758

<u>국립아시아문화전당</u> 국제건축설계경기 공모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에서 는 아시아 문화예술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광주 광역시에 건립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가 칭)' 국제건축설계경기 공모를 실시한다.

정부는 문화를 통한 2만불 시대의 진입 및 동 북아 중심 국가로의 위상 확보를 그리고 국가 차원의 문화 중심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를 '이시이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광주 조성사업은 풍부한 전통과 현대예술의 자산을 문화산업과 연계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기반으로 한 인권과 공동체 문화를 아시아 여러 민족과 교류 발전시키고 '생태와 조화된 문화도시', '도시의 문화적 리모델링'을 통해 21세기 도시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20년간(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하여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2010년에 핵심시설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고, 관련 법령 정비 등으로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명실상부하게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건출설계경기는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조성의 핵심사업답게 국제건축가연맹(UIA·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의 승인을 받아 실시되며, 현상공모는 5·18 광주민중항쟁 25주년 기념일인 18일부터 실시되어 6월 27일 등록을 마감한다.

그리고 현상설계에 대한 질의응답 기간이 6월 28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작품 접수는 오는 11월 11일, 수상자는 오는 12월 2일 공모전홈페이지(www.acc2005.org)를 통해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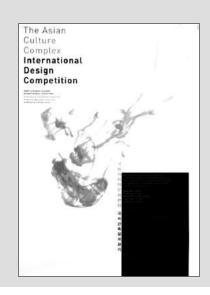
공모 방식은 일반 국제공개 경기형식으로 응 모자격은 전 세계 면허소지 건축사, 건축사 집단 또는 면허 소지 건축사가 이끄는 팀 등이다.

1등 당선자에게는 상금 20만달러(2억원), 2등 (2명) 5만달러, 3등(4명) 3만달러, 4등(10명)은 2만달러 등 모두 62만 달러가 지급되며, 당선작품 출품자는 추진기획단과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하게 된다.

공모전의 해외 심사위원으로는 유럽과 아시 아 미주 지역을 대표하는 리차드 잉글랜드(몰 타), 켄 양(말레이지아), 장영호(중국), 마르코스노박(미국) 라이너 베르비츠(오스트리아) 등 세계적인 건축사들로 구성됐다. 또한 국내 심사위원으로는 김종성(전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 정기용(기용건축소장), 김준성(건축사무소 힘마 파트너)등이 선임됐으며, 숭실대 철학과 김광명 교수가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한다. 또한 국제 현상설계 공모 공고부터 등록, 작품 접수, 작품심사, 당선작 발표 등 업무를 총괄할 추진기회단 전문위원으로는 최재필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오는 9월 기공해 5·18 30주년 인 2010년 5월18일 개관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02-3704-3434, www.acc2005.org



제24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 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하 는 제24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의 일정이 발표되 었다. 이번 일정공고에는 일반공모전 위주로 발 표되었으며, 기성작가전은 추후 별도 공지될 것 이라고 밝혔다.

'사회-사건-건축'이라는 주제로 원서신청이 시작된 일반공모전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1차 계 확안 제출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예술의 전 당에서 전시하던 지난해와는 달리 건축대전을 '2005 한국건축문화제'(가칭)라는 명칭으로 삼 성동 코엑스 태평양홀 전시관에서 기존의 행사 와 더불어 개최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래와 같다.

- 원서신청: 2005, 5, 23,~06, 30,
- ※ 한국건축가협회 홈페이지(www.kia.or.kr) 에서 신청(우편, 방문 접수 불가) 가능
- 작품접수 : 1차 : 2005, 08, 19(금) 2차 : 별도 추후 공지
- 원서 및 작품계획안
 - · 계획안 용지 : 규격 A3(29.7cm x 42.0cm), A3 2장 제출.
 - · 1장에는 프로젝트의 계획서, 주제의 설정, 가치 등을 담은 설명문 제출, 1장에는 도 면 등 도면상으로 시각적 표현
- 작품 제출 시 CD자료 별도 제출
 - · 파일형식: JPG(JPEG), 해상도: 200dpi
 - · 파일명 : 성명_원서번호.jpg(jpeg)
 - * 우편접수도 기능하며 단, 등기우편으로 접수 마감일 소인에 한함.
- 전시장소 :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 홀(1층)
- 전시기간: 2005. 11. 23~27
- 출품자격: 동일 작품에 대하여 작가 명의 는 2인을 초과할 수 없고, 작가가 2인인 경 우 대표 작가는 1인으로 한 한다.
- 주제: '사회-사건-건축'
- 심사위원: 민현식, 박경립, 손기찬, 이영수, 이종건, 장윤규, 임재호

- 시상 : (일반공모전에 한함.)
 - · 대상(1점) : 상장, 상패, 상금 오백만원 및 UIA회장 메달
 - · 우수생(3점): 상장, 상패 및 상금 각 이백 만원(한국건축가협회 회장상, 대한건축학 회 회장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각 1 점)※우수상의 경우 후원업체 등 추가시 상 가능
 - · 특선(약간점) : 상장, 상패 및 상금 각 일 백만원

문의: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김수근 문화상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허유재병원(김영준)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김수근 문화상의 시상식 및 전시회가 6월 14일 오후 5시에 공간 사옥마당에서 개최된다.

김수근 문화상의 후보작은 배재대학교의 국제 교류관(유걸)과 예술관(조병수), 일산 허유재병원 (김영준), 피주출판도시의 열회당(김종규+플로리안 베이겔), 인사동 쌈지길(최문규) 등 다섯 작품으로 서 심사위원회는 사흘간의 협의를 거쳐 김영준의 허유재병원을 올해의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김수근 문화상은 두 단계의 심시방법으로 선정된다. 전문위원이 지난해에 회임(物) 된 작품들 중에서 후보작들을 추천하고, 이중에서 심사위원회가 수상작을 조산(助産)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번 수상식에는 지난해 제15회 김수근 문화상 수상작품도 초청 전시되는데, 김병윤(백 제예술대 교수)의 파주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가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약 보름간 공간사옥 전시장에서 전시된다.

문의: 재단법인 김수근문화재단 02-743-7281

<u>명승건축그룹,</u>

<u>스페인 도시전문가 마누엘 가우사 초청</u> 강연 및 '사랑의 헌혈운동' 개최

종합건축그룹 명승건축(대표 이효추)이 지난 5월 1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건축가 마누엘 가우사(Manuel Gausa)를 초청해 '현대건 축과 도시문화' 강연회를 강남 포스틸사옥 이벤트홀에서 개최했으며, 아울러 지난 25일 역삼동 사옥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혈액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다.

'현대건축과 도시문화' 강연회에는 학계 및 업계 관련자 200여명이 참석해 세계적인 도시 전문가이자 이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누엘 가 우사가 최근 자신이 맡아 작업해 온 '프랑스 36 인의 건축사 프로젝트', '바르셀로나 자폐어린이 거주 주택 구성 프로젝트', '미래의 브뤼셀에 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한마음 혈액원에서 나온 헌혈버스 속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명승건축 임직원들

한 공간 제시 프로젝트', '바르셀로나의 통신 탑 프로젝트' 등을 소개한 강연에 몰입했다.

그는 강연회에서 "현대건축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가져오는 사회적 기능 또한 상호 연계적인 면을 고려해서 새로이 조명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건축과 도시문화의 조건으로 자연과의 조화,다양한 개성과 그것을 조율하는 능력,동시성,다양성,원활성,혼합성 등을 꼽으며 오늘날의도시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의 건축물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명승건축은 지난 5월 25일 역삼동 사옥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혈액부족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은 헌혈을 하고 싶어 도 바쁜 시간에 쫓겨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던 직원들을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한마음 혈액 원에서 헌혈버스를 보내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수집된 혈액은 혈액의 수급이 원활하 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문의 : 홍보대행사 맥스컴 오미연 02-573-4643

KCC. 프라임 플러스(PRIME+) 출시

(주)KCC(대표: 김춘기)는 고층 아파트 및 해 안가 아파트 발코니에 적용이 가능한 PVC재질의 'KCC발코니창호 프라임PLUS(PRIME+)'를 출시했다. '프라임PLUS'는 아파트의 고층화 및 발코니창호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고층에서의 강한 풍하중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풍압 설계된 창호로서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심의 고층건물, 해안가 아파트 발코니에서도 고기능성 창호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형상에서부터 전체 창호 구조에까지 철저한 시험을 거쳐 설계된 고성능 발코니창호이다.

이미 국내의 대단위 고층 아파트 외벽 및 외

장재 시험성능소에서 내풍압 등의 창호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입증된 바 있다. 프로파일 대형화 및 다격실 구조를 반영한 과학적설계를 바탕으로, 내풍압 성능 구현을 위한 코너연결구, 풍하중에 의한 창짝 변형을 방지하는 고강도 금속 고정부재, 창짝 탈락을 방지하는 상하 ANTI-LIFT, 창짝 여밈대 부의 고층용 구조 보강재와 AL-SPACER 등 기능형 부자재를 적용함으로써 고층건물에 미서기 타입 발코니창호의사용을 가능토록 하였다.

이는 안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넓은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사용이 편리한 미서기 타입 발코니창의 적용 범위를 고층아파트에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발코니창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프라임PLUS는 창 틀-창짝 간 중첩을 극대화한 프로파일 설계와 가스켓 및 모헤어를 통한 다중기밀구조(최대 5 중 기밀구조)로 탁월한 방음, 방풍, 단열 성능을 발휘한다.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프라임PLUS'는 기능형 부자재의 중후한 외관, 대형 프로파일과 더불어 다양한 라미필름의 적용으로 세련된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하다.

문의: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신제품 KCC발코니창호 프라임PLUS(PRIME+)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실시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인구 와 산업이 과다하게 집중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의 발전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 수도권 발전전략 등과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추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세계적 모범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이미지, 도시골격 등 도시개념에 대한 아이 디어를 얻고자 국제공모한다.

- 공모방식: 국제 공개 아이디어 경기방식

- 참가자격: 개인이나 법인이 단독 또는 팀 으로 참가 가능

- 참가자 등록 : 2005년 6월 1일 ~ 7월 11일

- 질의응답:

· 질의접수 2005년 7월 12일~25일

· 응답 2005년 7월 29일

- 제출물 :

· 제안설명서 : 20부, A4사이즈 50페이지 이내

· 도판 : A1사이즈(594mmX841mm) 6개 규격의 크기로 구성

· CD-ROM : 도판, 제안설명서를 포함 (300dpi 이상의 해상도)

·참가등록서

 작품접수: 2005년 10월 18일 ~ 25일(우 편제출시 10월 25일까지의 발송날짜 소인 이 찍혀 있어야 하고, 10월 31일 오후 5시 (한국시각)까지 도착하여야 함)

- 응모작품 제출처 : 국토연구원

- 심사: 2005년 11월 11일 ~ 11월 14일

- 입상작 발표 : 2005년 11월 15일(홈페이지 게재)

– 심사위원 :

· 심사위원(국내3인, 국외4인) : 민현식, 유 걸, 온영태 David Harvey(Professor/ USA), Arata Isozaki(Architect/Japan), Dominique Perrault(Architect/ France), Winy Maas(Architect/ Netherlands)

- · 예비심사위원 (국내1인, 국외1인) : 박삼 옥, Tehrani(Architect, Professor/USA)
- 상금: 1등 1작품 미화 20만불, 2등 2작품 각각 10만불, 3등 3작품 각각 5만불, 장려 상 4작품 각각 2만불이 지급되며, 1등, 2 등, 3등 당선자는 기본계획 수립시 컨설턴 트로 참여하거나 후속계획의 설계공모시 지명초청으로 공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음
- 제공자료: 2005년 7월 12일 참가등록자에 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다운로드)
 - · 수치지도(1:25,000) 및 기타 지도(위치 도, 지형도 등)
 - · 대상지 사진(항공사진 포함) 및 동영상 · 대상지 현황분석자료 등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홈페 이지 http://competition.macc.go.kr

international Jurhan, ideas. competicion Jucha. New.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korea city Indiana and an analysis of the second administrative and a second admi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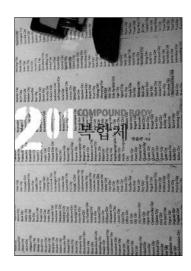
신간

복합체

신간 '복합체'는 정윤규(국민대 건축대학) 교수의 저서로서 건축을 넘어 문화적 확장을 위해 '갤러 리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고 '장윤규건축실험아 뜨리에'를 건축가그룹 '운생동'으로 변화시켜 새 로운 건축적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그의 첫 번째 저서이다.

저자는 그간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복합체를 구체화시켜왔다. 각각은 완성된 것이기 보다 개별적전달의 성격을 가진 하나의 설정에 다름 아니다. '반응체', '스킨스케이프', '트랜스프로그램', '트랜스스케이프', '부유체', '클립시티', '인터랙티브 앱' 등 이 책의 중심 메뉴가 되는 이들 각각의 명제는 저자의 건축세계가 다양한 방식과 요소의 결합으로 탐구된 변위의 한 표징임을 대변한다. 저자는 스스로를 욕망의 기계라고 말한다. 끊임없이 새로움을 찾아가는 욕망의 기계 말이다. 지식의 벽을 뛰어 넘어 정신병 못지않는 집착을 즐기는 저자의 건축사유를 따라잡는 이미지와 글의

복합체적 배열이 독서의 재미를 더해주는 책이다.



장윤규 지음/250쪽/10,000원/간향미디어랩 간행 02-3147-1212

2005경향하우징페어 Summer Festival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경향하우징페어는 올 가을시장을 준비하는 여름, 각종 건축시장을 집대성할 2005경향하우징페어 Summer Festival을 삼성동코엑스(COEX)에서 오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여 간 개최한다.

이번 경향하우징페어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우리협회 및 회원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건축산업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연 중 수 차례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건축산업 전시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로 참여하게 되는 전시회로서 국내외 다양한 건축자재를 선보이는 종합주택전시회로서 건축관련 중요한 정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협회를 통하여 전시회에 참가하는 회원 사 및 건설자재회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전시지원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니 가능하면 우리협회를 통한 전 시회 참여로 많은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

- 전시기간 : 2005년 7월 8일(금) ~ 12일(화)
- 전시장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태평양관
- 전시지원책
- ▶『건축사』지 디렉토리 광고 게재
- ▶ 전시회 참여협력사 인증서 발급(본 협회 인증)
- ▶ 전시장내 협회정보센터 이용권
- ▶ 전시정보 제공
- ▶ 전시디자인 무료컨설팅
- 주 최 : 경향하우징, 경향신문사
- 후 원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 협 찬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주택공사, 한국주 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운영실 (Tel, 02) 581-5711~4)
- ※ 경향하우징페어 전시회 초대권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협회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S

서 평

book critiques

건축마당

통일 독일 현대건축

김지덕 / (주)유신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Chi-tok, KIRA

평소 독일 건 축에 관심을 갖 고 있던 필자는 얼마 전 발간된 「통일 독일 현대 건축」이란 책을 우연히 접하면서 현재 우리 건축 사가 당면한 고 민들에 대한 좋



이선구 지음 / 2만8천원 / 시그마 프레스 (주) 발행(02-323-4845)

은 참고가 될만하여 짧게나마 소개하며 건축사분 들의 일독을 권한다.

「통일 독일 현대건축」은 독일로 유학했던 이선구 교수가 「공간」지에 1년 여간 연재했던 내용을 정리 하여 출간한 책으로서 현대건축운동(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의 발상지였던 베를린 시에 성취된 20세기 후반 건축 장면들을 현장감과 시사성에 초점을 두어 조명한 건축 전문 서적이다.

이 책은 19세기말부터 지난 100년간의 정치 · 사 회의 근대화 과정을 유용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유럽 여러 신생국가 중에 독일의 수도 베를린 시로 꼽으며, 세계 어떠한 도시보다도 더 권위적 건축실

험이 가능했던 도시의 여러 창의적 실험건축을 한 눈에 보기 쉽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현대 건축 운동에서 실현했던 실험정신의 열매를 한국적 현실에서도 비교할 수 있도록 건축론적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건축 전문인들에게 새로 운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총 12장으로 나뉘어 소개되는 이 책은 그 첫 장 에 건축이 모름지기 기술적 문제로만 다루어지기 쉬운 오늘날의 우리나라 형편에 중요한 수정을 유 발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1920/30년대 '현 대운동'을 유발한 당시 독일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케 하는데 글의 초점을 맞추어 독일 건 축 교육, 100년 베를린시의 건축들, 도시개발 주제 로서 베를린 시 계획, 친환경적 건축, 건축의 주체 성과 창의적 표현 경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책 머리말에 "다른 나라 건축을 심도 있게 연구 하는 일은 어느 나라의 건축을 빨리 모방하고자 하 기보다는 이들의 건축이 어떻게 하여 세계 건축계 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자국의 건축을 세계건축문화에 창조적으로 기여케 하는 데 있다"는 저자의 말은 건축사들에게 분발을 촉구하 는 듯 하다.

저자 이선구 교수는 숭실대학교 건축학부를 창과 하고, 건축학계의 안목을 독일로 향하는 여러 학업에 이바지 하였고, 건축 교육에서 유럽 도시와 건축 관련 하여 여러 저술을 발간한 바 있다. 또한 독일 통일과 베를린 새 계획 등의 여러 논제들이 신교육에 대응 하도록 연구한 모형도 이선구 교수의 저서다. 베를 린 대학에서 수학한 저자의 건축적 노력이 후배들 에게 읽을만한 귀한 자료들이라 여겨 다시 한번 신 중하게 추천하는 바이다. 固



바로크 시기의 옛건물 옆의 부서진 '다윗의 별'처럼 보이는 유태박물관(리베스킨트)



건축가 브루노 타우트와 마르틴 바그너의 '말굽형 단지' 전경(1926년)

113 0 5 0 6 대한건축사협회

PLAZZ TECTS

ĮĮ.

건축마당

법 령 laws & ordinances

<u>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u>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2호, 2005, 5, 20)

-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3조에 의 한 내화 구조의 인정과 관리에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한다.
- 주요 개정내용
- 시험기관의 다변화

기존의 건기원 단독시험에서 건설기술관리 법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한국산업 규격(KS)이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정 받은 공인기관으로 시험기관을 다변화

- 과정별 현장 품질관리시스템 도입 내화구조의 제조, 공급 및 시공 등 각 과정 별로 책임자가 품질관리확인을 하도록 하여 내화구조의 유통확인을 용이하게 함
- 부정행위 발생시 벌칙규정 강화 인정신청내용과 시험체 규격이 상이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인정을 취소하고 2년 간 내화구조 인정신청을 못하게 규제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 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시 인명과 재산 및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 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등에 사용되는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내화구조"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품 질시험의 결과로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내화성능을 확인하 여 인정한 구조를 말한다.
- 2. "품질시험"이라 함은 내화구조의 인정에 필요 한 내화시험 및 부가시험을 말한다.

- 3. "제조업자"라 함은 내회구조를 구성하는 주 요 재료·제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 는 자를 말한다.
- 4. "시공자"라 함은 내화구조를 사용하여 건축 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반건설업 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 를 말한다)를 말한다.
- 5. "신청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지를 말한다.
- 6. "내회품목"이라 함은 내회구조를 구분하는데 있어 그 구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유사한 재료 성분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제2장 내화구조의 성능기준과 인정절차

제3조 (성능기준) 건축물의 벽·기둥·보·바닥 또는 지붕 등 일정부위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별표1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제4조 (내화구조의 인정신청)① 신청자가 내화구 조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내화구조 성능인정 신청서에 별표2에서 정 한 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제조업자 및 시공자로 하되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신청인"이라 한다)가 대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공통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각 신청자별로 내화구조가 동일한 재료로 제조되어 그 품질이 기준의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시공자는 내화구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시공현장별로 내화구조 공사착공 전에 내화구조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인정을 받은 내화구조로서 제19조제1항 제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 인정이 취소된 재당해 내화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생산·제조 공장을 포함한다)가 동일 성능의 동일 내화품목에 대하여 새로이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품질의 개선 및 개량 등을 위하여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하여야 한다.
- ⑥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는 동일 성능의 동일 내화품목에 대한 인정신청을 새로이 하는 경우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 할 수 있다.
- ⑦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인정신청 또는 인정 이 취소된 자(당해 내회구조를 구성하는 재 료의 생산·제조 공장을 포함한다)는 모든 내화구조에 대하여 인정신청을 새로이 하 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4개월 이후 에 하여야 한다.
- ⑧ 인정신청시 인정이 유효하거나 취소된 구조와 동일한 내화구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 (내화구조의 인정절차 및 처리기간)① 원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화구조 에 대하여 별표3의 내화구조 인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처리기간은 별표4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② 원장은 내화구조 인정업무 수행상 재시험의 실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되 어야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원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화구조에 대하여 별표2의 인정신청시 첨부도서에 대한 생산 공 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 ① 원장은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구조의 내화성능시 험을 위한 시료 또는 시험편을 한국산업 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시료채취방법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원재료 품질규격 및 구성배합비 등

- 2. 제조공정 및 제품의 품질규격 등
- 3. 구조의 상세도면과의 동일 여부 등
- ② 원장은 신청자가 품질시험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 또는 시험편이 제1항에 의하여 채취된 것임을 확인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시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험체를 제작하게 하여 신청자 등과 함께 시험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 료채취 및 시험체가 제작과정에서 신청내 용과 상이하게 생산 또는 제작되거나 부정 한 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제8조 (품질시험)①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 관의 장은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되, 품질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 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시험방법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② 품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을 실 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제작 및 시 험에 관한 일정과 제작과정을 기록하고 이 를 유지·관리하며 시험결과는 원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 문기관
- 한국산업규격(KS A 17025) 또는 ISO/IEC
 17025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내 공 인시험기관
- ③ 원장은 제2항의 시험기관이 시험결과를 부정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부정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당해 구조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시험기관이 될 수 없다.

- 제9조 (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원장 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인정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신청구조의 품질시험 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 2. 신청구조의 내구성 및 안전성
- 3. 신청구조의 제조·품질관리, 시공의 적정성 등
- 4. 신청구조의 구조설명서 및 시방서, 재료의 품질규격 및 현장품질관리의 적정성 등
- ② 원장은 건축재료·구조 및 방내화 전문가로 구성된 15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두어 야 하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의견수렴과 자문위원회 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1.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 2 제3항의 구조의 보완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시 제출된 현장시공상태 검 사기준에 대한 사항
- 3. 내회구조의 인정 및 품질관리업무에 관련된 제반 사항
- ③ 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하며, 신청구조의 종류에 따라 현장시공오차 및 시공기술자의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두께, 밀도 등 내화성능의 보강을 위해 당초 신청된 내용보다 10%의 범위까지 증가하여 그 구조를 인정할 수 있다.
- 제10조 (인정 등의 통보)①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화구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단체에 제1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내화구조의 공고내용(상세도면, 공사방법, 현장품질검사 및 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 한 세부내용)
- 2. 내화구조의 인정서(별지 제2호서식)

- 3. 내화구조의 제품품질관리 사행(내화구조 품 질관리확인서 등)
- ② 원장은 제18조의1에 의한 내화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또는 제19조에 의하여 내화구조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명 및 일시정지 또는 취소 사유 등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 부 장관 및 시·도지사, 대한건축사협회, 대 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단체에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인정의 표시)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내화구조 인정제품, 구조 또는 그 포장에 내화구조를 나타내는 별표5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인정표시는 인정 내화구 조가 아닌 제품 또는 포장에 동일하거나 유 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시공자가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건축공사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당해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내화구조의 관리

- 제12조 (인정변경 및 양도·양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변경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인정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정변경신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인정 내화구조의 변경 등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다.
 -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양도·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 2. 공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
 - 대화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 부지정 내용의 변경
- 제 3조 (내화구조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①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유효기간은 인정 또는 연장받은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유효기간내 품질관리확인점검 결과가 적정한 동일 내회구조에 대하여는 내화구조 인정을 연 장할 경우 차기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
- ②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가 내화구조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 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원장에게 시료채취를 요청하여야 하 며, 채취된 시료에 대해서 제8조에 의한 품 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요청하고, 유효기 간 만료 15일 전까지 품질시험결과를 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제2항의 시료 또는 시험편의 채취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공사현장에 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부 득이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내화구조 인정 당시의 시료 또는 시험편의 생산과정을 확인한 후 채취하여야 한다.
- ④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유효 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신청을 받은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품질시험의 실시결과 를 원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내화구조의 생산·제조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1. 구성재료 · 원재료 등의 검사
- 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 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 4. 제품생산, 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시공 현장 등에 대한 상세내역 등
-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신청인은 제조업 자의 위임을 받아 제1항의 자체품질관리 결 과를 보전·관리할 수 있다.
-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내화구조 품관리확인서에 인정받은 대화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 방법 등을 첨부하여 공급업자,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내화구조의 현장반입 및 시공과 현장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는 제조업자, 공급 업자(공급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한한 다), 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수급인을 말한다), 감리자가 각 단계별 내화 구조 품질과 시공, 검사 등을 확인·서명하 여 별표6과 같이 각기 1장씩 보관하며, 제 조업자는 원장에게, 감리자는 관할 허가청 에게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를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
- ⑤ 관할 허가청은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공현장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내화구조 시공실적의 제출)원장은 제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제14조제2항에 의한 대리신청인을 포함한 다)에게 인정된 내화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요구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된 내화구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품질관리의 확인점검을 실시하되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통보없이할 수 있다. 다만, 확인점검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공장품질관리확인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동일 내화품목에 대한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 검결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공사현장품질관리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 시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인정 내화구조의 품질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되는 경우
- 2. 국가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확 인요청이 있는 경우
-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내화구조 신청보완, 인정의 개선 및 취소

- 제17조 (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첨부하여 야 할 도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상 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품질관리 확인 결과 신청내용과 상이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 ②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 청을 반려하고, 반려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1. 신청자가 내회구조의 인정신청을 반려요청 하는 경우
- 2. 신청자가 제1항의 보완요청을 9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제8조에 의한 품질시험결과 내화성능이 확 보되지 않는 경우
-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제18조 (내화구조의 개선요청) 원장은 다음 각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개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요청을 받은 자는 30일이내에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12조에 따른 인정변경 등에 대한 확인신 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제14조에 따른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를 제조업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 3. 제15조에 따른 내화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 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현장품질관 리 확인점검결과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 제18조의1 (내화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90일간 내화구조 인정을 일시정지한다. 다만, 제1호의경우로서 유효기간내 품질시험신청이 이루어

- 졌다면 품질시험결과가 제출되는 즉시 일시정 지 사유는 해소된다.
- 1.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 유효기간의 재연장을 위한 품질시험결과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 2.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거부 하는 경우
- 3. 제18조에 따른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② 제1항에 의하여 인정이 일시정지된 내화구조로의 조는 일시정지된 날로부터 내화구조로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 제19조(내화구조 인정의 취소)(원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화구조의 인정을 즉시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품질시험, 제16조에 따른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확인점검 또는 제18조의에 따른 내화구조 인정의 일시정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내화구조인 인정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 제13조에 따른 내화구조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품질시험결과 내화성능이 확보되지 않 는 경우
- 3. 인정 내화구조를 나타내는 인정의 표시가 제11조 및 별표5와 다르게 된 경우
- 4. 인정 내화구조와 상이한 제품을 내화구조로 판매한 경우
- 5. 제4조제항 각호에 대하여 자체 품질관리의 실시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 6. 제18조제2항에 따른 일시정지된 내화구조 를 판매 및 시공하는 경우
- 7. 제18조의1에 따른 내화구조 인정의 일시정 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 ②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시 험을 위한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과정에 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제작된 경 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내화구조에 대한 인정신청 및 인정을 즉시 취소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인정이 취소된

내화구조는 취소된 날로부터 내화구조로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제5장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의 지도 · 감독

- 제20조 (세부운영지침) ① 원장은 내화구조 인 정과 관련된 업무범위에 따라 처리문서, 기간, 절차, 기준, 구비서류, 서식, 수수료, 인력편성, 시료채취방법, 시험방법 및 내화구조 품질관 리확인서 세부기재사항 등을 구분하여 상세하 게 명시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규정한 세부운영지침의 제·개정시에 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 제2조 (일반적 경과규정)①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하기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하기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중 KS F 2257-4의 부속서 2에 의한 시험기준에 의하여 내회구조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기준 시행일로부터 2년의 기간내에서 내화구조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내화구조의 인정권자 및 인정신청 등의 경과조치)① 이 기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에게 내화구조 인정이 신청된 경 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 정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기준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 업자 및 사용자로서 인정을 받은 내화구조에 대 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2년의 기간내에 서 내화구조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세부운영지침의 제정) 원장은 이 기준이 고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2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지침을 따른다.

	(년위 : A													
			'성 부재				벽							
	_				외 별	†		내 별	1	보	바	지		
용	도				비	내력		Ыί	내력					
	용도구분 (1)	용도 규모 층수 / 최고높0		· 내 력 벽	연소 우려가 있는부분 (가)	연소 우려가 없는부분 (나)	내 력 벽	간막이벽 (다)	샤프트실 구획벽 (라)	기 둥	닥	IJЮ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	12 / 50	초과	3	11	1/2	3	2	2	3	2	1		
	용시설중 군사시설 · 방송국 · 발전	12 / 50	이하	2	1	1/2	2	1 1/2	1 1/2	2	2	1/2		
일반 시설	소·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 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위락 시설,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장 제외)	4 / 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주거	단독주택중 다중주택·다가구주	12 / 50	초과	2	11	1/2	_2_	2	2	3	2	1		
구기 시설	택·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12 / 50	이하	2	1	1/2	2	1	1	2	2	1/2		
시결	의료시설	4 / 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산업	공장,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12 / 50	초과	2	1 1/2	1/2	2	1 1/2	1 1/2	3	2	1		
	시설, 자동차관련시설중 정비공장,	12 / 50	이하	2	1	1/2	2	1	1	2	2	1/2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 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비고 1

-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2)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시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 (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
-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재

0 구조설명도(구조의 형상, 크기, 구성건축 재료명 등)

-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 (라) 승강기 · 계단실의 수직벽

신 청 도 서

[별표 2] 인정신청시 첨부도서

1. 내화구조 설계도서	o 제품 및 재료설명서(제품 및 구성재료의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 o 제품의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o 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o 시방서(시공방법 등) o 시공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신청자의 사업개요	O 신청자 연혁 O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O 신청자 생산 및 판매실적 O 품질관리 조직(인력포함) O 제조 · 검사설비 리스트 및 관리기준 ※ 대리신청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O 대리신청자 연혁 O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O 기타 필요한 서류
3. 품질관리 설명서	□ 제품 및 재료의 품질기준 o 물리적 성능 및 화학적 성능 시험방법 o 제품 및 원재료 시험성적서 o 내화구조의 시공 및 현장품질관리에 관한 사행(검사기준 포함) □ 사내 규격 o 작업표준 및 공정관리 관련 사내규격
4. 내화구조 품질관리 확인서	0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A(제조업자용) 0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B(공급업자용) 0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C(시공업자용) 0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D(감리자용)
	o 품질시험 희망기관(연락처 포함)

※ 다만 제4조에 의하여 시공자가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부지침에 따라 품질관리 설명서 등 일부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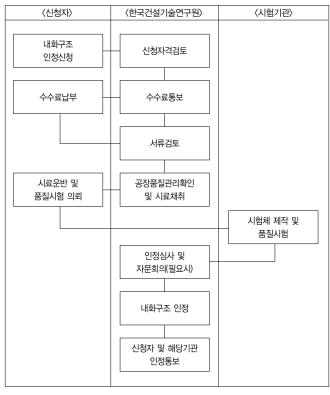
o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시공자인 경우에 한함) o 내화구조 공사물량

o 제품의 특성을 검토한 설명서(필요시)

o 소재지, 층수 및 연면적, 구조 등 당해시공건축물 일반사항

[별표 3] 내화구조인정업무절차



6. 시공건축물 개요(신청자

5. 기타자료

[별표 4]

내화구조 인정업무 처리기간

순 번	업 무 명	처리기간	처 리 내 용	비고
1	신청자격검토	1일	o 신청자격 및 제한조건 검토	
2	수수료통보	2일	o 수수료납부요청	
			o 인정신청시 첨부도서내용 확인 및 검토	
			1. 내화구조 설계도서	
			- 구조설명서, 재료설명서	
3	신청서류 검토	3일	– 시방서(시공방법 등) 시공관리	
			2. 신청자의 영업개요	
			3. 품질관리 설명서	
			o 자문회의 실시여부 결정	
			o 공장품질관리심사 및 시료채취 계획수립	
			1. 공장품질관리 심사	
			- 신청자의 자본 및 시설	
			– 구조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구조의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장품질관리 확인 및 시료채취	6일	2. 시료채취	
			- 신청된 구조의 배합비 등 확인	
			- 시험에 필요한 시료채취	
			- 시험기관에 시료 전달	
			o 심사결과 정리 및 보고	
5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및 인정세부내용 작성	6일	o 시험체제작 및 시험실시	
6	수수료정산요청	3일	o 수수료정산	
			o 인정 및 세부인정내용 작성	
7	 내화구조 인정 및 공고	3일	o 인정 공고안 작성	
'	11414 60 8 04		o 관련기관 통보	
			o 신청업체에 내화구조 인정서 발급	
	Й	25일	※ 1개 구조가 추가될 경우 처리기간은 7일씩 증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 11	202	* MITTER OF MINIEL TET 6/1	민원기간 10일 증가

[별표 5]

인정 내화구조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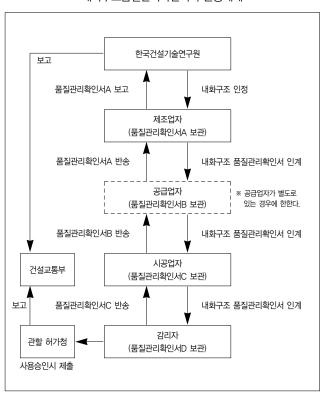
비고 1

- 사용부위는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부분 및 바탕재 등을 표시한다.
- 내화성능은 인정 내화시간을 표시한다.

비고 2

- 위 표시는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부착 또는 날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별표 6] 내화구조품질관리확인서의 운용체계



119

[별지 제1호서식]

	내화구조 인정 신청서												
	① 상호 또는 명칭												
신	② 대표자	(연락처 :)	③ 주민등록번호									
청 자	④ 영업소재지				(연락처 :)					
	⑤ 공장소재지				(연락처 :)					
구	⑥ 상품명												
조 의	⑦ 내화구조명												
개	⑧ 건축물의 부분												
요	⑨ 내화성능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오	나 같이 내화 구 조의 인정	성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l청자		(서명 또는	: 날인)						
		한 국 건 설	기 술 연 구 원	원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내 화 구 조 인 정 서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of Fire Resistant Construction

1. 인정번호 :

Accreditation No.

구비서류: 별표 2의 도서

2. 상품명:

Name of Product

3. 내화구조명:

Name of Fire Resistant Construction

4. 사용부위 및 내화성능: Limitation of Use

5. 내화구조 내용 :

Contents of Certificate

6. 인정업체 및 대표자:

Name of Corporation / Representative

7. 공장소재지:

Address of Manufactory

8. 첨부도서 :

Attachment

년 월 일까지 9. 유효기간 :

Date of Expiry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내화구조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based on Article 3 of Regulation on the Standards for Evacuative and Fireproof Construction of Buildings,

> 월 일

한 국 건 설 기 술 연 구 원 장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2005년 건축허가 현황(4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7	분		당월 (4월)			누계 (1~4월)	
	正	2004년	2005년	증기율	2004년	2005년	증기율
계	동 수	13,472	12,279	-8.9%	45,777	38,964	-14.9%
	연면적	7,716,434	10,070,883	30.5%	31,337,859	33,834,441	8.0%
주거용	동 수	4,987	3,816	-23.5%	15,532	10,935	-29.6%
	연면적	2,672,140	4,130,842	54.6%	10,437,968	14,077,829	34.9%
상업용	동 수	4,256	3,776	-11.3%	14,739	11,806	-19.9%
	연면적	2,781,373	3,009,388	8.2%	10,488,713	8,358,119	-20.3%
공업용	동 수	1,534	1,721	12.2%	6,344	6,199	-2.3%
	연면적	879,538	1,055,025	20.0%	4,514,544	4,052,682	-10.2%
문교및	동 수	692	847	22.4%	2,561	2,948	15.1%
사회용	연면적	635,452	848,192	33.5%	2,421,716	3,128,396	29.2%
기 타	동 수	2,003	2,119	5.8%	6,601	7,076	7.2%
	연면적	747,931	1,027,436	37.4%	3,474,918	4,217,415	21.4%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ュ	분		당월 (4월)		누계 (1~4월)							
	프	2004년	2005년	증기율	2004년	2005년	증기율					
계	동 수	13,472	12,279	-8.9%	45,777	38,984	-14.8%					
	연면적	7,716,434	10,070,883	30.5%	31,337,859	33,834,441	8.0%					
철 근	동 수	11,356	10,537	-7.2%	39,068	34,103	-12.7%					
철골조	연면적	7,510,503	9,926,483	32.2%	30,503,259	33,414,966	9.5%					
조적조	동 수	1,930	1,499	-22.3%	6,034	4,162	-31.0%					
	연면적	185,488	125,309	-32.4%	642,555	341,934	-46.8%					
목 조	동 수	186	243	30.6%	675	716	6.1%					
	연면적	20,443	19,091	-6.6%	192,045	77,334	-59.7%					
기 타	동 수	0	0		_	3						
	연면적	0	0		_	207	·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_	н		당월 (4월)		누계 (1~4월)								
구	분	2004년	2005년	증기율	2004년	2005년	증기율						
계	동 수	13,472	12,279	-8.9%	45,777	38,964	-14.9%						
	연면적	7,716,434	10,070,883	30.5%	31,337,859	33,834,441	8.0%						
수도권	동 수	3,974	3,563	-10.3%	14,714	11,938	-18.9%						
	연면적	3,448,689	3,786,566	9.8%	14,995,574	15,625,826	4.2%						
서 울	동 수	707	627	-11.3%	2,988	2,063	-31.0%						
	연면적	1,017,889	922,040	-9.4%	4,896,346	3,908,646	-20.2%						
인 천	동 수	455	364	-20.0%	1,488	1,185	-20.4%						
	연면적	607,962	246,957	-59.4%	1,783,781	2,102,832	17.9%						
경기도	동 수	2,812	2,572	-8.5%	10,238	8,690	-15.1%						
	연면적	1,822,838	2,617,569	43.6%	8,315,447	9,614,348	15.6%						
지 방	동 수	9,498	8,716	-8.2%	31,063	27,026	-13.0%						
	연면적	4,267,745	6,284,317	47.3%	16,342,285	18,208,615	11.4%						
부 산	동 수	466	418	-10.3%	1,860	1,427	-23.3%						
	연면적	388,900	325,585	-16.3%	1,668,064	1,459,978	-12.5%						
대 구	동 수	568	496	-12.7%	1,900	1,421	-25.2%						
	연면적	188,822	919,832	387.1%	1,028,832	1,820,811	77.0%						
광 주	동 수	317	289	-8.8%	1,022	1,027	0.5%						
	연면적	140,587	241,504	71.8%	630,857	1,009,657	60.0%						
대 전	동 수	293	344	-17.4%	1,104	940	-14.9%						
	연면적	123,168	495,166	302.0%	1,077,959	970,820	-9.9%						
울 산	동 수	380	344	-9.5%	1,365	1,113	-18.5%						
	연면적	252,508	233,923	-7.4%	578,513	548,522	-5.2%						
강 원	동 수	934	811	-13.2%	2,634	2,132	-19.1%						
	연면적	529,120	562,671	6.3%	1,179,767	1,413,150	19.8%						
충 북	동 수	934	740	-20.8%	2,694	2,294	-14.8%						
	연면적	358,402	685,294	91.2%	1,709,211	1,838,851	7.6%						
충 남	동 수	1,120	890	-20.5%	3,396	2,765	-18.6%						
	연면적	577,198	733,339	27.1%	2,761,559	2,233,423	-19.1%						
전 북	동 수	644	601	-6.7%	2,194	2,012	-8.3%						
	연면적	300,579	171,654	-42.9%	862,890	1,033,619	19.8%						
전 남	동 수	750	801	6.8%	2,464	2,432	-1.3%						
	연면적	288,730	183,579	-36.4%	791,960	769,173	-2.9%						
경 북	동 수	1,442	1,417	-1.7%	4,644	4,186	-9.9%						
	연면적	445,546	729,583	63.8%	1,702,813	2,120452	24.5%						
경 남	동 수	1,368	1,299	-5.0%	4,552	4,369	-4.0%						
	연면적	595,557	926,673	55.6%	2,014,189	2,751,450	36.6%						
제 주	동 수	282	266	-5.7%	1,234	908	-26.4%						
	연면적	78,628	75,514	-4.0%	335,671	238,709	-28.9%						

122 Korean Architects June 2005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5년 4월말

√구 분				개	Ç	인 ,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1	-"		\(\alpha\)						
건축	1	인	29	21	3'	인	4	인	5인	이상	소	계	1'	인	2	인	3	3인		인	5인		6	인	7인		8인	8인이상		계	사	구소	합	계	비율	(%)
사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127	5,127	212	422	27	83	2	8	0	0	5,368	5,640	1,486	1,486	265	523	81	244	30	120	15	75	6	36	5	35	6	56	1,894	2,575	10	10	7,272	8,225	100,0%	100,0%
서울	1,243	1,243	59	118	16	50					1,318	1,411	885	885	166	332	48	144	20	80	7	35	3	18	4	28	4	35	1,137	1,557	9	9	2,464	2,977	33,9%	36,2%
부산	530	530	25	50	3	9					558	589	71	71	11	22	7	21	3	12	4	20	2	12					98	158			656	747	9.0%	9,1%
대구	425	425	30	60	4	12	2	8			461	505	40	40	18	36	6	18	1	4	2	10							67	108			528	613	7,3%	7,5%
인천	219	219	3	6							222	225	52	52	5	10													57	62			279	287	3,8%	3,5%
광주	193	193	2	4							195	197	31	31	11	22	3	9	2	8			1	6	1	7			49	83			244	280	3,4%	3,4%
대전	204	204	18	36	2	6					224	246	25	25	8	16	1	3	1	4							1	12	36	60			260	306	3,6%	3,7%
울산	158	158	5	10	1	3					164	171	14	14	2	4	2	6											18	24			182	195	2,5%	24%
경기	651	651	27	52							678	703	218	218	27	47	8	25			1	5							254	295			932	998	12,8%	121%
강원	159	159	5	10							164	169	20	20	4	8			1	4									25	32			189	201	26%	24%
충북	168	168	9	18							177	186	19	19	4	8			1	4	1	5					1	9	26	45			203	231	2.8%	2,8%
충남	155	155	4	8							159	163	32	32			2	6	1	4									35	42			194	205	27%	2,5%
전북	182	182	3	6							185	188	19	19	2	4	1	3											22	26			207	214	2.8%	2,6%
전남	128	128									128	128	9	9			1	3											10	12			138	140	1,9%	1,7%
경북	280	280	8	16	1	3					289	299	28	28	1	2	1	3											30	33	1	1	320	333	4,4%	4,0%
경남	329	329	14	28							343	357	17	17	6	12	1	3											24	32			367	389	5,0%	4,7%
제주	103	103									103	103	6	6															6	6			109	109	1,5%	1,3%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준회원			
건축사회	건축사	2급	계	비 율	<u> </u>
합 계	8,215	10	8,225	100.0%	26
서 울	2,974	3	2,977	36,2%	13
부 산	746	1	747	9.1%	9
대 구	613	0	613	7.5%	0
인 천	287	0	287	3.5%	0
광 주	280	0	280	3.4%	0
대 전	305	1	306	3.7%	0
울 산	195	0	195	2,4%	0
경 기	996	2	998	12,1%	2
강 원	201	0	201	2,4%	0
충 북	231	0	231	2,8%	0
충 남	202	3	205	2,5%	0
전 북	214	0	214	2,6%	0
전 남	140	0	140	1.7%	0
경 북	333	0	333	4.0%	1
경 남	389	0	389	4.7%	1
제 주	109	0	109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 계	비고
회 원 수	5,640	2,575	10	8,225	
비 율	68.6%	31.3%	0.1%	100.0%	
사무소수	5,368	1,894	10	7,272	
비 율	73,8%	26.0%	0.1%	100.0%	

S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 a+u 신건축

The Architectural Review

a+u

2005년 4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최근 주 택 작 품 을 소개한 'The House'와 30대의 유럽 신진 건축사 들을 소개한 'Th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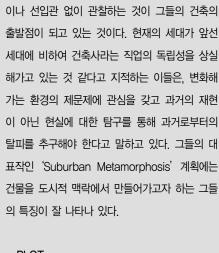


Emerging Practices'로 구성되었다. 특집 의 비중은 후자에 더 무게를 실었으며, 반 벨 & 메디나, PLOT, 51N4E 등 3팀의 건축 사사무소가 소개되었다. 이들의 사무소 결성 경위와 건축 철학, 작업의 방법 및 앞으로의 전망 등이 인터뷰되었고, 프로필과 대표작들 이 소개되었다.

30대의 유럽 신진 건축사들 -Three Emerging Practices

반 벨 & 메디나(Van Belle & Medina)

벨기에의 안트워프와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거 점으로 2004년에 결성된 반 벨 & 메디나는 쿠르 트 반 벨(Kurt Van Belle, 벨기에)과 패트리샤 메디나 프리에토(Patricia Medina Prieto, 스페 인)는 유럽의 서로 다른 사무소에서 다양한 경험 을 쌓은 후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국제적인 상인 '유로판7(Europan7)'을 획득한 후 안트워프에서 지금의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두 사람은 모든 프로젝트에 언제나 함께 참여하고. 때에 따라선 다른 건축사와 도시계획가, 예술가 등과 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그들의 건축철학이 무엇인가라

는 질문에 자신들은 기존의 이론에 기대지 않고

끊임없는 리서치를 통해 사유하는 것이라고 답한

다. 건축을 도시의 일부로 보고, 그 과정에 편견



PLOT

쥴리앙 드 스메드(Julien De Smedt)와 바르케 인겔스(Bjarke Ingels)에 의해 2001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설립된 사무소이다. 2004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스타반겔 콘서트홀'이 콘서트홀 부 문의 금사자賞을 수상했으며, '해변의 유스하우 스'가 2004년 미스 반 데 로에 賞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고 있다. 위의 두 작 품을 통해 보면 이들은 분명 건축을 통해 새로운 랜드스케이프를 만드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Suburban Metamorphosis



해변의 유스하우스



해변의 유스하우스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랜드스케이프를 건축과 일체화 시킨 형 태에의 집착은 아닌 듯이 보인다. 그들이 바라 보는 건축이라는 행위는 인간이 자신 주변의 환경을 계획하고 창조해가는 인간의 적응력이 다. 건축사는 이와 같은 행위를 도와주는 산파 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는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소 의 잠재적 힘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발견하여 실현시키는 것이 건축사의 역할이라고 지적하 고 있다. 이들은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간활동을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끌어 올리는 데 주목한다. '해변의 유스하우스'에 나타난 연 속된 지붕면은 그 곳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담 을 수 있는 場을 만들고자했던 시도였다는 점 에서도 그들의 철학이 드러난다.

51N4E

브뤼셀을 거점으로 요한 안리스(Johan Anrys). 프리크 페르세인(Freek Persyn). 페테 르 스위넨(Peter Swinnen) 3사람이 1998년 결 성한 사무소이다. 브뤼셀의 세인트 루카스 대학 출신들인 이들은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 로 자신들의 사무소를 차리는 것이었다고 말한



AMOT 문화컨벤션센터

다. 사무소명인 51N4E는 바로 브뤼셀의 좌표. 즉 위도와 경도에서 따온 것이며, 그들이 브뤼셀 에서 작업한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사무소를 개 설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그들의 철학은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언제 나 사고의 틀을 활짝 열어 놓는다는 것으로 이 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완성된 작품 중 대표작은 벨기에 브르즈(Bruges)시에 건립된 그 뢰닝 미술관(Groeiniaemuseum)일 것이다. 그 러나 그들의 재기 발랄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 품은 현재 공사중인 LAMOT 문화컨벤션센터일 것이다. 기존의 맥주양조공장을 문화와 컨벤션 을 위한 시설로 개조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기존 건물들의 입면 중 중앙의 하단부를 도려내어 유 리 커튼월로 만들고 나머지 입면은 그대로 유지 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신건축

2005년 3월호

이번 호에 서는 안도 타 다오의 주택 작품인 '인비 져블 하우스 (Invisible House)'. 쿠 마 켄고의 'COCON



KARASUMA' 등이 소개되었다. 안도의 인비져 블 하우스는 오랜만에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안 도의 주택작품이다. 쿠마 켄고의 작품은 1930년 대 교토의 역사적 오피스 건물을 상업복합시설로 리노베이션한 프로젝트로서 과거와 현재의 중첩 을 이루고자 한 그의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T-HOUSE: 하세가와 이츠코(長谷川逸子) 건축계획공방

- 연속된 정방형에 의한 다양한 場

T-House는 녹음이 우거진 작은 언덕에 세워 진 주택이다. 이 주택은 주택의 공간구성에 있어 서 매우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정방형의 틀 안에 서로 다른 크기의 작은 정방형들이 모여 실내와 실외 공간을 형성하는 모습은 흡사 미스 반 데 로에의 1938년 작품 '정원이 딸린 집합주 택(Group of Houses with Courtvard)'의 발전 된 모습을 보는 듯 하다.

방문하는 손님이 많은 관계로 주택의 일반적 인 기능에 더하여 거대한 응접 스페이스와 게스



LAMOT 문화컨벤션센터



125 0 5 0 6 대한건축사협회

트 룸이 계획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와 같은 기능을 서로 다른 상자로 만들어 적재해 나가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이 상자는 한번의 길이가 각각 2, 3, 4, 5, 6m인 것 그리고천정고가 2.5, 3, 3.5, 4, 4.5m인 5단계로 나누어 이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종류를 만들었다. 상자의 크기와 배열은 그 기능과의 절대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정된 생활 상호간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평면형은모든 것이 정방형이며, 닫혀진 방의 형태가 아닌조금씩 엇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연속되어질 수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가확보된 외실(外室,외부의 중정공간)과 서로 공간이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Invisible Heuse: 안도 타다오 건축연구소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후 다수의 대형프로젝트를 맡음으로 인해 그간 보기 힘들었던 안도타다오의 주택작품을 오랜만에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스페인의 트레뷔조 교외에 세워진 이 주택은 부지만 3ha에 달하며 건물의 연면적이 400여평에 이르는 초대형 주택이다(그가 작업해 온 작은 미술관과 맞먹는 크기이다). 주택의 구상단계부터 건축주와 함께 의논해 가며 이루어진 이 주택의 설계에서는 안도에게 많은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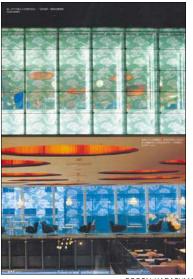


Invisible House

도가 부여된 프로젝트였다. 유일한 건축주의 요구사항은 부지 주변의 도로에서 뿐만 아니라 부지 내에서의 시선까지도 차단할 수 있는 완벽한 프라이버시의 확보였다. 이와 같은 건축주의 요구에 그간의 다른 프로젝트에서 보여주었듯이 안도는 주택을 땅속에 묻어 '보이지 않는 주택'을 만들기로 하였으며, 단순한 평면과 절제된 디자인 속에서 빛과 내외부 공간의 교차를 통한다양한 공간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안도의 전형적인 공간구성을 유감없이 펼쳐보였다.

COCON KARASUMA : 쿠마 켄고(隈研吾)건축도시설계사무소

1938년 교토의 중심, 商社인 丸紅의 전신인 丸紅吳服店이 빌딩을 세웠다. 8층 규모의 이 건물은 연면적 2만 m의 당당한 RC조 건물로서 당시 교토 최대의 건축물로도 일컬어졌다. 그 설계는 니켄셋케이의 전신인 長谷部竹腰事務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역사적 건축물을 상품판매시설, 식음시설, 영화관, 오피스를 아우르는 복합상업건물로 리노베이션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였다. 이 건물이 세워진 곳은 교토의 중심가로은행과 오피스건물들이 들어서있어 역사적 도시인 교토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시간의 그림자를찾기 어려운 곳이었다. 쿠마켄고는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적 깊이를 되살리고 싶어 했



COCON KARASUMA

다. 시간의 중첩을 표현하고 싶었던 쿠마는 건물의 입면과 내부의 전면적인 변경을 택하지 않고 새로운 것과 옛것을 혼재시킴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비록 건물의 측벽에 아트리움이 새로이 신축되었지만 기존 건물의 입면을 바꾼 부분은 1층과 2층 전면부에 불과하다.

건물 전면의 저층부 입면개수는 유리 패널에 일본의 고전문양인 '天平大雲'의 문양을 프린트 한 반투명의 커튼월을 기존 입면에 덧대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상업건축으로서의 팬시 한 디자인과 교토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고전 적인 이미지 그리고 새로운 것(유리커튼월)과 오 래된 것(기존 건물의 입면)의 중첩을 모두 만족 시키려는 시도이다. 이와 같이 옛것과 새것이 공 존하는 모습은 내부에서도 나타나는데, 건물에 천정반자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건물의 보들을 그대로 노출시킨 채 새로이 첨가된 설비들이 이 와 함께 어우러지도록 설계하였다. 노출된 기존 건물의 보는 보의 양단부가 경사져있으며, 보의 모서리가 45도로 잘려진 형태로, 1930년대 건 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바닥마감 또한 70년 전에 시공된 패킷플로어를 세심하게 보수하여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 이 패킷 플로어 의 재료는 南洋産 이페材로서, 이와 같은 고가의 재료가 70년전에 오피스 건물 전 층의 바닥에 시공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기고 싶었다고 한다. 시공의 용이성에 있어서도, 공사비에 있어 서도 바닥재를 전면 교체하는 것에 비해 불리했 던 기존 바닥의 정교한 보수를 택했던 것도 이 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신축된 아트리움의 바닥 마감도 기존건물의 바닥패턴을 그대로 이어 받 아 동일한 모습으로 처리하였다. 역사적으로나 건축적으로나 그 가치를 잘 인정받지 못하는 1930년대의 오피스 건물을 시대의 유행에 민감 한 상업건물로 리노베이션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깊이를 간직하고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려는 노 력이 돋보이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F Gallery: 키타아마 코지로(北山孝二郎)+K 계획사무소

건물이 위치한 川越은 '작은 에도'라는 별명



F Gallery

으로 일본 관동 지방 일원에 잘 알려진 마을이 다. 메이지기의 대화재로 마을이 불타버린 후 마 을이 재생되었고. 현재도 일본의 전통적인 도시 형 상점주거형태인 '마치야' 가 잘 보존되어 있 는 지역이다. 마치야는 도로에 면한 부분은 얼마 되지 않지만 도로 안쪽으로 상당히 긴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중간에 중정을 두고 도로측에는 상점이, 중정의 안쪽에는 주거가 배치된 형식이 다. 건물이 들어선 곳은 기존 건물이 없어진 상 황에서 좁고 긴 대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 었으며, 여기에 갤러리와 상점을 만들고 싶다는 건축주의 의뢰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역사 적 가로경관이 중요시되는 부지의 상황을 고려 하여 주변 가로 경관과의 조화가 프로젝트의 주 안점이 되었으며, 마을 유지들과의 몇 차례 논의 끝에 가로 경관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들을 수용 하여 설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정해진



마치야

가이드라인은 지붕의 구배 및 도로에 면한 입면의 벽면선을 주변건물들과 통일시키는 것과 마치야의 주거형식을 유지하고, 노지(路地, 좁은 골목길의 형태)를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재료를 현대적인 것을 쓰기로 한 관계로 입면의 지붕은유리패널을 경사지게 부착하여 인접건물과의 지붕선의 연속을 유지하였으며, 마치야 입면에 주로 나타나는 격자창의 형태를 격자형 철망을 통해 추상화시켜 표현하였다. 또한 좁은 골목길을대지의 끝까지 관통시켜 상점들이 이 길을 면하게 배치시켜 옛 마치야의 구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완성된 건물은 현대 도시 상점가의 세련된모습과 옛 도시 상점가의 모습들이 중첩되고 어우러진 공간으로 나타났다. (번역 / 강상훈)

The Architectural Review

2005년 3월호

1982년부 터 AR지의 편집장이었 던 Peter Davey가 사임하면서 지난 25년 간 건축계가 보여준 다양



한 양상과 이를 담아온 AR지의 변화들을 총정리하고 있다.

Davey가 회고하는 지난 25년

잡지의 분야와 종류를 망라하고 한 명의 편 집장에 의해 25년의 세월동안 이끌어져 온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사반세기 전 AR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Davey는 사회학이나 다양한 시각매체로 확대되던 잡지의 영역을 다시 건축과 그 인접분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리고 전세계로 게재대상과 판매시장을 넓힘으로써 난관을 타파했다. 20세기후반에 대한 Davey의 비평과 아울러, 당시 AR지에 게재되었던 건축가와 비평가의 글들을 부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하이모더니즘의 종말

1980년대 초반은 전후시기 서구사회가 제시하였던 사회적, 건축적 이상들의 한계가 드러나던 시기였다. CIAM과 아테네 헌장이 제안한기능의 분리는 개발업자들에게 약용되었고, 관료주의와 거대기업이 건축과 도시를 좌우했으며, 질보다는 정량적인 평가만이 이루어져왔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Team X는 도시계획에 다시 인간적인 가치들을 도입했고, van Eyck는 추상적 공간이 아닌 장소를 만들고자하는 등 모더니즘을 '인간화'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Kenneth Frampton에 의해 대

표적으로 주창되었던 지역주의는 이러한 움직임 중 가장 두드러졌던 것으로, 1980년대 초 Edward Cullinan 등 Romantic Pragmatists로 명명된 건축가들의 작품은 키취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채 전통건축과 모더니즘을 성공적으로 연계하였으며,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제정된 Aga Khan상은 이슬람권의 지역주의 건축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천편일률적인 모더니즘 건축에 정반대의 입장에서 맞선 부류는 하이테크 건축이었다. 주위 도시맥락을 무시한 퐁피두센터가 파리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하이테크 건축역시 도시환경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인식되게 되었다.

고전건축의 요소들을 다시 장식적으로 차용한 포스트모던 고전주의는 이를 통해 건축을 더욱 풍부하고 인간적으로 만들고자 하였고, 건축을 공간이나 형태가 아닌 의사소통수단으로 이해하였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사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해소하지 못한 채 한때의 양식적 유행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1980년대에는 찰스 황태자의 지원에 힘입어 엄격한 고전주의의 부활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가 설계한 Poundbury의 주택단자는 비록 양식 자체는 우스꽝스럽지만, 주호 후정의 영역을 넓히는 등 배치방식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계획의 딜레마

1980년 대 베를린에서 수행된 IBA (Internationales Bau Ausstellung)는 도시계획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실험이었다. 두 영



Poundbury의 주택단지

역으로 나뉘어 각각 J.P. Kleihues와 H.-W. Hamer에 의해 이끌어졌는데, 신건축 지역을 담당한 Kleihues는 밀집지역 내 도시흐름의 단 절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주택, 학교 등 프로그 램들을 삽입하였으며 지명현상설계를 통해 계 획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미국 포스트모더니 스트들에 의해 진해된 Tegel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Rationalist로 분류된 건축가들에 의해 추진된 결과 엄격한 질서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비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 또한 베를 린의 독특한 지형과 정치적 상황은 베를린 도 시계획의 실험이 보편성을 갖지 못한 주요원인 이었다. 파리의 경우 1980년대 중반 미테랑 대 통령에 의해 도시 곳곳에 새로운 명소가 될 대 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나, 도시 내에서 가 장 공격적인 건물이 돼버린 Chemetov & Huidobro의 재무부 청사, 도서관 기능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Dominique Perrault의 파리국 립도서관 등 내용보다 규모가 앞서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반면 바르셀로나의 도시재개발은 무척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데, 1992년 올림픽

을 대비해 사회주의 정부 아래 Oriol Bohigas에 의해 진행된 계획은 각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원과 광장을 건설하였다. 베를린이나 파리와 같은 드라마틱한 결과는 없었지만 Cerda계획체계 내의 낙후지역이나 미완성부분을 공공영역으로 매워나감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한도시재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하고 극단적인 형태 실험

도시내에서 기념비적인 위상을 점유하고, 건축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도구가 독특한 건축형태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독특한 형태의 건축이 더욱 부각되었는데, 이는 모더니즘 건축의 밋밋함에 대한해소책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효과이기도 했다. 특히 전 산업계에 걸쳐 브랜드 구축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가 역시 특정한 스타일의 브랜드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논리가 항상 새로운



Edward Cullinan



IBA (Internationales Bau Ausstellung)

브랜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Future Systems의 Birmingham Selfridges 상점과 같이 주위 환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휴먼스케일에서 벗어난 사례들이 늘고있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베를린의 네덜란드대사관이나 시애틀 도서관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Rem Koolhaas 역시 품질에 대한 관심보다는 시장논리가 건축의 내용이 되면서 억압적이고 차가우며 이미지에 치우진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의 작품은 특히 동시대의 네덜란드 건축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이러한 작업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적 체험의 복합성과 다양성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있으며, Tadao Ando, Ken Yeang, Norman Foster, Charles Jencks, Kenneth Frampton 등 건축가와 비평가들이 지난 25년간 건축계의 이슈들을 정리하며, 향후 25년간 건축계를 이끌어갈 이슈들을 제안한다. (번역 / 최원준)

미래

이 땅에서 우리와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정주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에너지의 보존과 재료의 절약은 주요 과제다. BedZED의 런던 Eco-Housing과 같이 태양에너지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에서 배워야 할 것이며, 자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기술은 이미 대부분확립되어 있으므로 이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상상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기타

98세까지 활동하다가 세상을 뜬 Philip Johnson의 부고기사, Christo와 Jean-Claude 의 뉴욕 센트럴파크 설치작품 소식이 게재되어



BedZED의 런던 Eco-Housing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강동구건축사회/486-7475・강북구 건축사회/903-2030・강서구건축사회/661-6999・만약구건축사 회/877-4844・광진구건축사회/661-6999・만약구건축사 /864-5828・금천구건축사회/859-1588・노원구건축사회/967-1100・도봉구건축사회/990-8720・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동작구건축사회/915-3026・마또구건축사회/336-781・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서초구건축사회/3474-6100・성 동구건축사회/292-5855・성북구건축사회/922-5117・송파구건 축사회/423-9158・양천구건축사회/694-8040・영동포구건축사 회/632-2143・용산구건축사회/755-3914・중구건축사회/231-5748・중봉구거촌사회/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교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침지역건축사회 (/032)664-1554 · 삼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 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 (/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 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3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 (/031)234-8872~3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 지역건축사회/(031)767-29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열월지역건축사회 (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 초사회/(783)374-2620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 /(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이산지역 건축사회/(041)562-9200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736-2117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 건축사회/(041)85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6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에산지역건축사회/(041)355-13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66-0017 · 계통지역회장 /(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저라보도거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 /(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 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주지역건축사회/(054)9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함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3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시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시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6)245-3737 · 밀일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7-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